

재관자료로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

재판자료로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



발간사

동학농민혁명은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일어난 근대 전환기의 거대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배 계급과 정부는 이를 단순한 민란이나 역모로 규정하며, 동학농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혁명에 참여한 동학농민군들은 정당한 사법절차조차 거치지 못한 채 가혹한 형벌을 받거나, 심지어 참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선 법부의 사법 기록에는 동학농민군의 활동상과 체포 경위, 그리고 처벌 수위 등이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이러한 사료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동학농민혁명연구소는 2025년 7월 정기 학술대회에서 “재판자료로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도면회(전 대전대학교 교수)의 ‘『사법품보』를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사법 문서에 나타난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왕현중(연세대학교 교수)의 ‘1894년 이후 동학농민군 처벌과 근대 사법의 편파성’은 동학농민군에 자행된 처형 방식이 국가의 제도화된 참혹한 폭력이었음을 규명하였습니다. 조재곤(서강대학교 연구교수)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법부의 판결 분석’은 동학농민군의 재판 기준과 논리를 검토함으로써 사법제도가 혁명 진압의 도구로 작용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들 연구 성과는

동학농민군의 활동 외에 근대 사법제도의 성립과 법 적용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실증적이고 이론적으로 규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소는 이번 정기 학술대회 발표문과 종합 토론 내용을 엮어 『동학농민혁명연구소 학술총서』 제4권으로 발간합니다. 본 총서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는 물론 동학농민혁명 이후 근대 사법제도의 실상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연구소는 다양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리하고 학문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더욱 명확히 밝히는 연구를 이어갈 것입니다.

끝으로 『동학농민혁명연구소 학술총서』 제4권 발간을 위해 참여해 주신 연구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 1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김 양 식

목차

발간사 / 4

『사법품보』를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 | 도면희 ————— 9

1. 머리말 / 10
2. 『사법품보』의 사료적 성격 / 11
3. 동학조직을 바탕으로 한 반정부 활동 / 16
4. 동학 교단 재건 활동 / 27
5. 동학의 위세를 이용한 사적 폭력 / 35
6. 외래 종교로의 전향 / 41
7. 맺음말 / 43

1894년 이후 동학농민군 처벌과 근대 사법의 편파성 | 왕현종 — 47

1. 머리말 / 48
2. 1894년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와 계기 / 51
3. 갑오개혁 정부의 동학농민군 탄압과 ‘효수’ 참형 / 56
4. 갑오개혁 정부의 사법 개혁 조치와 농민군 재판의 편파성 / 77
5. 맺음말 / 86

동학농민군에 대한 법부의 판결: 검사국·형사국·사리국

기안(起案) 분석 | 조재곤 ————— 91

1. 머리말 / 92
2. 동학농민군 출신 / 96
3. 동학교단 관련자 / 107
4. 기타 / 115
5. 해당 법률 조항과 판결 양태 : 맺음말을 대신하여 / 126

종합 토론 ————— 137

좌장

김양식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토론자

한보람 청주대학교 강사

김기성 군산대학교 인문도시센터 전임연구원

김항기 독립기념관 연구위원

유바다 고려대학교 교수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배항섭 성균관대학교 교수

『사법품보』를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

도면희

전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1. 머리말
 2. 『사법품보』의 사료적 성격
 3. 동학조직을 바탕으로 한 반정부 활동
 4. 동학 교단 재건 활동
 5. 동학의 위세를 이용한 사적 폭력
 6. 외래 종교로의 전향
 7. 맺음말
-

1. 머리말

동학농민혁명은 중고등학교 교과서나 대학교의 개설서에 양반 중심 신분질서를 개혁하고 일본과 서양의 침략을 물리쳐 나라를 지키려 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그 후손들이 이 농민혁명에 참여한 농민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수십여 년간의 노력 끝에 2004년에 이르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2019년에는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제정한 후 해마다 이 사건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애족정신을 높이는 행사”를 거행해 왔다.

모든 혁명적 사건이 그렇듯이 이 사건에 참여한 수십만 명의 동학교도들은 당대에는 ‘내란’ ‘역모’ ‘폭도’ 등으로 불리며 처참한 탄압을 받았다. 특히, 이 사건은 민중이 살상 무기를 소지하고 관군과 일본군과 대적한 무장투쟁이었기에 참혹한 결말을 맞이한 농민군들이 많았다. 따라서 전투 중 사망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생포되었다고 해도 주모자급은 정식 재판을 받기는커녕 현장에서 참형을 받고 효수되거나 교수형, 십자가 화형, 총살형 등을 받았다.¹

이로 인하여 기존 연구는 대체로 관군과 일본군에 의한 동학농민군 학살 및 처형에만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살아남은 동학농민군들이 이후 어떻게 활동하고 체포 처벌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 다만, 영학당이나 활빈당 또는 천주교·개신교 등 서구 종

1 박찬승, 「동학농민전쟁기 일본군·조선군의 동학도 학살」, 『역사와 현실』 43, 2005; 신영우, 「1894년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 『역사와 실학』 35, 2008.

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몇몇 연구 성과를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²

살아남은 동학농민군들은 이미 거주 촌락에서 동학교도로 알려져 있어 선불리 귀가할 경우 양반 유생 중심으로 조직된 민보군이나 유회군의 보복 폭행 내지 살해 위협에 처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교단에서 동학교도를 다시 추슬러 저항운동에 나설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한때 관군·일본군과의 투쟁에 나섰던 동학농민군들의 이후 삶을 찾아보는 것은, 동학을 바탕으로 한 혁명적 역량이 어떻게 소멸 또는 잔존하고 있었는지를 살피는 물론, 평범한 동학농민군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지 살피는 데도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사법품보』에서 동학농민군에 가담한 죄로 체포되고 처벌당한 동학농민군 기록 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동학농민군 피의자에 대한 분류는 동학 조직을 바탕으로 한 반정부 활동, 동학 교단 재건 활동, 천주교·기독교 등 외래 종교로의 개종, 동학의 위세를 이용한 사적 폭행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2. 『사법품보』의 사료적 성격

『사법품보』란 현재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보존되어 있는 개화기 근대 재판 관련 사료이다. 『사법품보』는 총 128책으로 구성된 『사법품

2 이영호, 「갑오농민전쟁 이후 동학농민의 동향과 민족운동」, 『역사와 현실』 3, 1990; 「대한제국 시기 영학당운동의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 1991; 『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연대, 1893~1919』, 푸른역사, 2020; 박찬승, 「활빈당의 활동과 그 성격」, 『한국학보』 35, 1984.

보』(갑)(규장각 분류번호 奎17278)과 총 52책으로 구성된 『사법품보』(을)(奎 17279)를 총칭하는 용어다. 두 종류 모두 전국 각지 재판기관에서 법부로 보내온 보고서와 질품서 등을 1년 단위로 일련번호를 붙여 월 단위로 구분하여 모은 것이다. 『사법품보』(갑)은 1894년(고종 31) 7월부터 1907년(광무 11)까지, 『사법품보』(을)은 1897년(광무 1)부터 1906년까지 생산된 보고서·질품서들이다.³

『사법품보』는 제목이 의미하는 대로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 운영하면서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해 각 도에 설치된 지방재판소가 법부에 질품하거나 보고한 문서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1894~1895년간은 근대적 개혁의 초창기인지라 조선 후기 이래의 공문서 양식이 일본의 근대적 제도를 모방한 공문서 형식으로 바뀌어 가는 시기였다. 이로 인해 구래의 공문서 양식과 신식 공문서 양식이 뒤섞여 사용되었다. 1894~1897년에 생산된 문서를 영인한 제1권의 경우, 구래의 관문(關文: 상급 관청이 동등 이하의 관청에 보내는 문서)이나 단자(單子: 짧은 형식의 문서), 첩보(牒報: 하급 관청이 상급 관청에 올리는 문서) 등의 문서, 과도기적 문서 양식으로서 공이(公移: 오늘날의 照會와 같은 문서), 공복(公覆: 오늘날의 照覆과 같은 문서) 등의 문서 양식이 나타난다.

1895년 윤5월 이후 일본을 통해 도입된 근대적 공문서 양식들이 제대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본 자료에서 보이는 질품(質稟)·보고(報告)를 비롯하여 조회(照會)·조복(照覆)(대등한 관부 사이에 왕복하는 공문 형식으로서 상대 측의 회답을 요구하는 형식), 통첩(通牒: 대등한 관부 사이에 왕복하는 공문 형식이지만 회답을 요구하지는 않는 형식), 훈령(상

3 이하, 도면회, 『사법품보 해제』, 한상권 외, 『역주 사법품보』, 봄날의 책, 2018에 의거함.

급기관이 소할 관청에 보내는 공문으로서 구래의 관문(關文), 감결(甘結), 하첩(下帖)과 같음, 지령(하급 기관의 질품이나 청원에 대한 지시나 명령 공문으로서 구래의 보장제사(報狀題辭)와 같음, 부령(部令: 정부 각 부에서 제정한 법령), 고시(告示: 관청에서 인민에게 고지하는 문서), 상주(上奏: 국왕에게 재가를 청하는 문서로 구래의 계문과 같음) 등의 문서 형식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사법품보』의 질품서·보고서를 올린 주체는 대부분 각 도와 개항장에 설치된 재판소의 판사 또는 각 군의 군수들이다. 이들 문서를 접수한 주체는 법부 내의 각 부서이므로, 본 자료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부·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관제 변천과 재판 절차를 최소한이나마 알아두어야 한다.

갑오개혁 이후 재판소의 종류는 지방재판소, 한성(부)재판소 및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평리원), 특별법원의 5종으로 구성되었다.

지방재판소·개항장재판소는 1895년 윤5월 10일 칙령 제114호에 의해 전국 22개 부에 윤5월 15일부터 점차 개설하고 관할구역은 각 부의 관할구역과 동일하게 하였다. 따라서 종래 감영·유수영 및 기타 지방 관아에서 행하던 재판 사무는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재판소의 수리 심판에 귀속하게 하였다.

1896년 2월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고 새로운 내각이 들어선 후 전국을 23부로 나누어 운영하던 지방제도가 다시 개편되었다. 한성에는 특별히 1부를 그대로 두되 전국 23부를 13도로 개정하고 각 도에 관찰사를 둠으로써 개혁 이전과 유사한 제도로 바뀌었다. 지방제도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1896년 8월 15일 23부제에 근거하여 설치한 개항장

재판소·지방법판소를 모두 폐지하고 새로 13도제에 근거하여 개항장재판소·지방법판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을 개정하였으며, 개혁 이전과 같이 관찰사가 판사를 겸임하는 형태로 복귀하였다.

한성재판소는 그 위상과 성격을 둘러싸고 몇 차례의 관제 개정을 겪었다. 한성재판소는 1895년 4월에 설치되어 한성과 경기도를 관할하였다. 1897년 9월 12일 경기재판소를 따로 설치함에 따라 한성재판소는 한성 5서 내의 민·형사사건만 관장하고, 경기재판소가 경기도 4부 34군을 관할하게 바뀌었다.

고등재판소는 한성재판소를 비롯하여 개항장재판소·지방법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를 수리 심판하는 최고 재판소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또한 각급 재판소의 상소심 재판뿐만 아니라 칙임관·주임관 등 고급 관리와 정치범에 관한 재판도 담당하였다. 그 후 1899년 5월 31일 고등재판소의 명칭은 평리원으로 변경되어 1907년 말까지 존속하였다(이하, 순회재판소와 특별법원은 사법품보에 거의 등장하지 않으므로 생략함).

각급 재판소가 설치 운영되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각급 재판소가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법부 또는 국왕이 최종적인 판결 확정이나 재판에 관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던 점이 이 시기 형사재판제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다. 재판제도가 근대적으로 개편된 직후이므로 법부에서는 ①심리한 형사사건이 종신유배·종신징역 이상의 형에 해당할 때 ②심리한 형사사건의 범행 정상이 형량을 경감할 만한 때 ③법률 적용상 의의(擬議)가 생길 때 등 세 가지 사안일 경우에는 모든 관련 문서를 첨부하고 법부에 지령을 청하여 판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법부가 내리는 셈인데, 이러한 체제는 1899년 5월 31일 법부 관제와 재판소 구성법을 개정한 이후 더

욱 강화되었다. 특별법원 및 평리원에서 모반대역 범인을 조사한 안건을 질보했을 때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에는 법부대신이 직접 심판할 수 있고, 평리원 및 각 재판소 민형사 소송에 억울함이 생길 때는 법부 칙주임관을 파견 심사하거나 해당 서류 일체를 법부로 옮겨와 재판할 수 있도록 법부의 재판에 대한 권한이 강화되었다. 또 평리원에서 ①국왕이 특별히 지목한 죄인의 심판 ②칙임관·주임관 체포 및 심판 ③정치범 심판 건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법부대신에게 보고하여 지령을 기다려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세 가지 경우와 사형 죄수에 대한 최종 판결 확정과 형 집행은 국왕의 재가를 얻은 후에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었다. 따라서 1899년 이후부터 국왕은 사실상 개혁 이전과 유사하게 최종적인 재판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상의 재판소 제도와 재판 절차를 볼 때, 『사법품보』에는 지방재판소·한성재판소·개항장재판소·고등재판소(평리원) 등 모든 재판기관에서 생산되는 재판기록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크게 보면 질문과 회답, 훈령과 그에 대한 보고가 대종을 이룬다. 우선 질문과 회답의 경우, 각급 재판소가 ①심리한 형사사건이 종신유배·종신징역 이상의 형에 해당할 때 ②심리한 형사사건의 범행 정상이 형량을 경감할 만한 때 ③법을 적용상 의의(擬議)가 생길 때 등 세 가지 사안일 경우 상급 기관인 법부에 질품한 내용, 이에 대한 법부의 회신 또는 지령 등을 보존하고 있다. 또는 재판소의 경비 문제, 사면 조칙을 실시할 때 감등 또는 방석할지 여부 등을 질문하는 내용이다.

훈령과 보고서들은 고종의 사면 조칙 실시 처리 결과(형명부, 공초성책, 판결선고문 첨부), 형사 피고인에 대한 양형 훈령에 대한 처리 결과, 형사 피의자를 체포하고 처단한 결과, 지방재판소에 접수된 군수들의 보

고를 재보고한 것, 기결수의 형기 만료 사실, 기결수의 속전 납부 결과 등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종신유배·종신징역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 각급 재판소 판사·검사가 법무 지령을 받지 않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 형사 판결의 양형에 대해 의문이 없는 사건 등은 『사범품보』에 수록되지 않았음을 유념해야 한다. 즉, 모든 형사재판 기록이 수록되는 것이 아니라 사형 및 종신징역(유배) 이상 일부분만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을 유념하고 『사범품보』상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조치된 동학농민군의 활동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3. 동학 조직을 바탕으로 한 반정부 활동

1) 동학농민혁명 전후의 활동

『사범품보』에서 동학도의 움직임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와 농민혁명 이후 1890년대 후반까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동학농민혁명 최대 접전지가 충청도 공주부터 전라도 장흥까지 걸쳐 있는데 『사범품보』에는 그 외의 지역에서 활동한 동학도의 재판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⁴

예컨대 1895년 4월 강원감영 보고에 의하면, 비도 우두머리인 이규하가 원주군 귀래면에 동학 접을 설치하여 어지럽히고 이에 따라 다른 면

4 최대 접전지에서의 동학농민군은 현장에서 즉각 참형 또는 총살형을 당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체포된 동학농민군에 대한 처벌을 현지 진압군이나 민보군이 주도했을 것이기에 재판을 위한 보고나 절의, 이에 대한 법부의 지령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에서는 더욱 심한 활동이 있었다고 한다.⁵ 또한 충청도 임천의 접주 임재홍은 본심에서 우려난 것이 아닌데도 동학접주가 되어 좌수를 곤형에 처하고 임천읍의 군기를 약탈하였고, 여기서 더 나아가 전봉준이 진을 설치한 곳으로 가서 후군장(後軍將)이 되려고 하였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다.⁶

충청도 청풍 표영조의 활동은 1894년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이어졌다. 그는 1894년 봄부터 화포에 쓸 염초를 백성들에게 강제로 징수하고 이임(里任)을 잡아 가두어 토색하고 (남의) 무덤을 파헤쳤으며 빗 갇기를 독촉하고, 도적의 소굴에 사족(士族)들을 가두고 형벌을 가해 처단하고, 횡불을 들거나 집을 지는 부역을 하라고 위협해 고통을 받지 않은 양민들이 없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이들에게 곡식이나 돈을 빼앗겨 부자들은 거의 모두 재산을 날렸다고 한다.

같은 해 8월에는 스스로 포군대장이라고 하여 포군(砲軍) 300명을 이끌고 창을 들고 고을 안으로 들어와 전(前) 군수를 끌어내 묶고 때렸으며, 9월에는 성두한(成斗漢)과 함께 비적 무리 만여 명을 이끌고, 고을을 에워싸고 들어와 군사 기물을 탈취하고 인가와 기물을 때려 부수었는데,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 한 읍이 폐허가 될 정도라고 하였다. 그는 일본군과 관군의 진압을 피해 종적을 감추었다가 1895년 6월 28일 고을에 돌아와 이전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장래에 후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위세를 부렸으나, 6월 말 장날 먼민 수백 명에

5 『사법품보』(갑) 제3책, 1895. 4. 19. 「강원감영래첩」 제175호. 이하, 『사법품보』라고 하면 모두 『사법품보』(갑)을 의미한다.

6 『사법품보』 제4책, 1895. 7. 8. 「임천군 래첩」

게 붙잡혀 강변에 매장당하는 변을 당하였다고 한다.⁷

황해도 재령과 해주 지역에서도 1895년 초까지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계속되었다. 신천 접주 원용일이 무리 수백 명을 이끌고 신천군을 불질러 쓸어버리고 재령군으로 향할 때, 접주 강달조는 동학도를 이끌고 그를 영접하고 그의 포와 함께 장수산에 입산했다가 다시 돌아와 청룡촌 강희열에게서 뺏은 벼 27석은 화포수들에게, 김침사에게서 강탈한 잡곡 36석은 각처 농민들에게 농사 빚으로 분배하였다.⁸

해주부 장연군 백낙회는 조선 정부의 특별사면을 받은 다음에도 해주부 사냥꾼들에 의탁하여 접장이라 칭하면서 마을에 횡행하면서 해주부 공략 계획을 구상하였다. 함께 계획을 꾸민 인물은 전양근, 백기정, 김계조, 김의순, 백낙규 등인데, 그의 진술을 통해서 백범 김구(당시 김창수)와 김형진, 김재희, 류학선, 최창조 등도 관련되어 있음이 파악되었다.⁹

전봉준과 같이 활동하다가 전라도 나주 봉기에까지 참여했던 승려 응운(應雲), 접주 한윤화, 동학도 김순여·황준삼·백낙중·이경태 등은 1896년 중반에 체포되었다. 이들 동학도는 1896년 봄 나주에서의 동학 봉기 때 하늘에 축원하고 주문을 외우다가 실상이 드러났기에 모두 교수형에 처해졌다.¹⁰

동학농민혁명 전후 동학농민군에 참여했다가 도피하여 숨어 살다가 뒤늦게 체포되어 처벌된 동학도들도 눈에 띈다. 천안의 박만귀(朴萬貴)

7 위의 책, 1895. 7. 8. 「단양군수 래첩」

8 『사법품보』 제6책, 1896. 1. 27. 「(해주부관찰사) 보고」 제6호.

9 위의 책, (음력)1896. 2. 30. 「해주부 장연군수 보고」, 이후 백낙회는 총살, 나머지 공범 5명은 교수형을 당했다.

10 『사법품보』 제11책, 1896. 8. 18. 「전주부재판소판사 이병휘 보고서」

는 동학접주 정정이(鄭正巳)가 가한 악형을 못 이겨 동학에 입도했으나 이후에는 천안의 군기(軍器)를 빼앗아 갈 때 관문을 향해 총을 쏘고 관방(官房)에 난입하여 관가(官家)에 총을 쏘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신하였다. 그는 1894년 가을 목천 세성산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는 의병에도 가담했고, 연기군 봉암에 숨어 살다가 직산 땅에서 품팔이로 생활을 잇다가 고향에 돌아왔다가 체포당했다.¹¹

같은 지역의 장숙이(張叔伊)는 동학 간부였던 친사돈 김용희의 종용을 받고 동학당에 입당하였다. 그는 본래 전직이 조예(阜隸: 관노와 유사한 직책)였음에도 김용희의 지시와 후원을 받고 이서배를 결박하여 능형을 가하고 무리를 이끌고 관청에 난입하여 관문에 총을 쏘고 군기와 공물을 약탈하기까지 하였다. 이후 토벌을 면하고 도피하여 사금을 몰래 채취하다가 체포되고 말았다.¹²

양반 또는 관리 신분임에도 동학도에 들어가 활동한 인물들도 여럿 확인할 수 있다. 문의현령이었던 홍양섭(洪亮燮)은 동학도를 돕고 보호한 죄가 있다고 하여 청주병영에서 해당 현의 아전과 향임을 잡아다가 조사받았다. 이후 피의사실이 확인되면서 문공(文功)은 한 등급 줄여 장(杖) 80에 처하고, 사죄(私罪)에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고신(告身)은 세 등급 강등한 후에 2년 동안 충청도 내의 영춘현에 정배하였다.¹³

충청도 임천 전 첨사(종4품 무관직) 남궁탁(南宮鐸)과 이원칠(李元七)

11 『사법품보』 제37책, 1898. 9. 17. 「충청남도재판소 보고」. 그에 대한 처벌은 장형 20대로 그쳤다.

12 『사법품보』 제45책, 1899. 3. 8. 「충청남도재판소 보고서」 제36호.

13 『사법품보』 제2책, 1895. 2. 6. 「關 淸州兵營」 및 1895. 3. 16. 「關 錦營」. 그러나 그는 4개월만에 사면령에 의해 정배에서 석방되었다(『사법품보』 제4책, 1895. 7. 30. 「영춘군수 보고」).

은 동학도 접사(接司)로 요행히 잡히지 않았으나, 갑오개혁에 의한 조세 제도 개혁 이후 백성들의 억울한 결세 부과에 대해 항의하여 스스로 장두(狀頭)라 주장하고 사람들을 불러모아 관아로 달려가 “관아에서 억울한 징세결을 감면하지 않고 화폐로 납입할 신결과 구결 결세를 독촉하는가?”라고 항의하였으며, 나아가 정부에서 보낸 세무주사를 잡아서 구타하기까지 하였다.¹⁴

이와 유사하지만 비극적으로 끝난 사례도 있었다. 갑오개혁 이후 정부에서 보낸 세무주사 또는 세무시찰관과 현지민들 사이의 갈등 대립 과정에서 세무시찰관 등이 과거 동학농민군 경력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황해도 장연군 목감방 김한오(金漢五)는 장연군 하급 관속인 사령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황해도 해주부 장연군 백낙희와 함께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다가 사면받은 자였다. 이후 그는 정부에서 보낸 세무시찰관이 장연군의 세무 시찰에 나설 때 총창을 든 줄개 천백을 소집하여 군의 형세를 위태롭게 만들었고, 1896년 3월 2일에는 과거 동학농민군이었던 강성일·강운경·김재식 등과 함께 세무시찰관과 사령 2명을 잡아가 인신(印信)과 문부(文簿)를 탈취한 후 총살하였다.¹⁵

14 『사범품보』 제6책, 1896. 4. 3. 「(임천군수) 보고서」 제163호.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을 담당한 홍주부 관찰사 서리 함인학은 남궁탁과 이원철이 억울한 징세를 호소하다가 관청에 불손하게 행동한 죄는 면하기 어려우나, 민요의 장두가 된 것과 비적 무리의 여당이 되었다는 죄목은 용서할 만한 것이니 살피주기 바란다는 보고를 올렸다는 점이다(『사범품보』 제8책, 1896. 6. 8. 「(홍주부관찰사서리 함인학) 보고서」 제15호)

15 『사범품보』 제45책, 1899. 3. 6. 「황해도관찰사 이은용 보고」 제29호. 김한오는 이후에도 1899년 1월 포수 6~7명을 모아 과부를 협박하고 행패를 부려 결국 관찰부에 체포당하였다.

2) 영학당의 조직 준비

동학농민혁명 이후 가장 큰 사회적 사건은 1898년 11월(음) 흥덕민란과 이듬해 1899년 4월의 영학당 봉기였다고 할 수 있다.¹⁶ 이들 민란과 봉기를 후원하거나 직접 일으킨 주체는 동학농민혁명 이후 살아남은 동학도들이었다. 우선 영학당의 조직 준비 과정을 정리해 보자.

봉기 조직 준비는 영학계를 조직하고 계원들에게 교전(敎錢)을 받으며, 영학당 명의의 집회를 열고 봉기에 필요한 의식을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과정이었다. 영학계는 우두머리 계장인 정읍군 거주 최일서(崔一西)와 장성군 사거리 거주 송문여(宋文汝), 서기는 장성군 거주 검암(黔巖) 차일용(車一用)이 조직했다. 여기에 영광군 동학도 김태서(金台書)를 수전유사(收錢有司)로 끌어들여 고부·흥덕·고창·장성·영광·무장·함평 등 7읍의 계장이라는 직함을 주어 구성하였다.¹⁷

김태서는 1894년경 동학에 들어가 접주 이은중(李殷仲)을 따라다니다가 그해 말 관군의 토벌을 피하여 숨어 살면서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지었다. 1898년 1월 22일 영광군 삼남면에 정착하여 농사짓고 살던 중 1898년 8월 이종사촌 형 이경환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이경환의 여러 차례 권유로 영학계안(英學契案)에 들어갔다. 그 학명(學名)은 ‘예슈교’이고 그 법문(法文)은 “예슈부인이 갱생하여 장씨부인이 인도하여 하날임을 섬게라. 조석상대(朝夕相對)에 공을 잘 드러라. 위성문도리하여 위봉계훈하고 애경상문(哀慶相問)하라”라는 것이었다. 계안이란 영학에 가입하고

16 이영호, 앞의 논문, 1991에 흥덕민란과 영학당의 난이 사건 진행 순서대로 잘 정리되어 있다.

17 이하의 정리는 『사법품보』 제49책, 1899. 2. 5. 「전라남도재판소판사 민영철 보고서」 제9호; 1899. 6. 30. 「전라남도재판소판사 민영철 보고서」 제62호에 의함.

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적어놓고, 각 이름 아래의 계전(契錢)은 봄가을로 나누어 받았다.

그는 계전 5전을 내고 계안에 등록된 후 수계장 최일서 지휘에 따라 백양산과 도치(島峙) 등 가까운 마을을 다니며 ‘대동계’란 이름으로 50여 명을 가입시켰고, 8월 16일 방서(榜書) 2장, 회문(回文) 1장을 영광군 사창(社倉)·남계(南溪) 등에 붙여 영광군민을 계안에 가입시키고 계전으로 1인당 5전을 내게 하였다.

방서는 제목을 「경시(警示)」라고도 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대동계(大同契)는 곧 기강을 세우고 풍속을 바로잡는 곳이다. 한 차례 예배한 후에는 반드시 대경장(大更張)의 길이 있을 것인데, 지금은 추수하는 시기라 농사일이 바쁘므로 29일로 날짜를 다시 정한다. 그 안에 입교한 여러 형제들은 일제히 이문(里門)으로 모일 것이며, 어떤 마을에서든지 포구로 쌀을 내가는 행위, 불효하거나 우애롭지 못한 일 등을 막론하고 모두 책자로 만들어 적어 가지고 와서 실제 효험을 보도록 한다면 다행일 것이다. 이외에 효유할 사항은 예배 날에 직접 전달하겠다. 칠읍 계장(七邑契長) 김(金)”.

그리고 소위 회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다음은 회유(回諭)하는 일이다. 이후에는 예배(禮拜)하지 말고 바로 수도(修道)하는 것이 마땅하다. 때문에 이에 회문하니 만일 거행하지 않는 사람은 단단히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빙자하여 교민(敎民) 사이를 혼란하게 하는 자는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분별하여 적에게 행복한 자와 같은 벌을 내린다. 본업이 밭을 갈고 길쌈하면서 수신(修身)하는 자는 적을 죽인 자와 같은 상을 내린다. 재물을 탐하는 자는 그중에서도

특히 엄히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교전(敎錢)으로 5전씩 모두 거둘 것. 수계장(首契長) 최(崔), 칠읍 계장(七邑契長) 김태서(金台書).

9월 26일에는 최일서의 지시로 송문여와 함께 고부읍 말목장터로 갔는데 마침 영국인 목사가 전주에서 왔기에 모두 모임에 참석했는데, 가르침 들으러 온 사람은 5~600명이었다. 영국인 목사는 “영학이라고 이름하는 사람 중에 혹시라도 분위기를 흐리고 폐단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면, 모두 내가 있는 처소인 전주 완산(完山) 칠봉(七峰)으로 잡아서 보내라”고 연설하였다. 또한 이른바 7일 모임(武會)은 일단 정지하고, 돈은 한 사람당 7푼씩 거둬 그날 회비에 보태 쓰라는 내용으로 한 차례 연설하고 돌아갔다.

김태서는 이러한 조직 활동을 하다가 10월 5일 귀가하자마자 영광군 순교에게 체포당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그가 영학을 청탁하여 방서와 회문을 붙이고 백성을 강제로 계안에 넣어 돈을 받으려 한다며 본관에 등소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이 과정에서 평민에게 협박하거나 돈을 강제로 거둔 일이 없었으니 억울하다고 주장하였다.¹⁸

김태서와 최일서, 송문여에 관한 기록만으로는 이들이 무장봉기까지 준비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게다가, 이화삼 등이 주도한 흥덕에서의 민란은 이들이 체포된 1898년 10월이 아니라 한 달 후인 11월 15~18일에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학당 조직 과정을 흥덕민란과 이듬해 4월의 고창성 공격까지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다소 의문

18 제가 거주하는 마을의 이문섭(李文燮) 등이 제가 영학을 청탁하고 평민을 협박하니 같이 살 수 없다며 그 면민(面民)으로 하여금 관에 호소하게 하여 공문이 내려왔던지, 저는 돈을 거두기 위해 나갔다가 마을 사람을 선동했다는 죄로 영광군 순교(巡校)에게 잡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1899. 6. 30 전남재판소 보고)

스럽다. 다만, 흥덕민란의 주모자 이화삼이 영학회장을 칭하고 있던 점, 이듬해 3월 25일경 영학당이 고창성을 공격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던 사실¹⁹을 볼 때 김태서 등의 영학계가 작용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영학당 봉기의 실행

흥덕민란과 영학당 봉기는 참여 인원이 각각 300명, 4~500명으로 알려졌는데, 『사법품보』 자료에서는 그만큼 많은 인원 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진 기록이 없다. 다만, 영학당이 최후에 점거하고자 했던 고창성 싸움에 1천여 명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일단 자료상으로는 흥덕민란 이후인 1899년 4월 중순부터 정읍·고부에서 봉기에 참여했던 영학당 대략 40여 명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영학당 봉기를 주도한 인물은 정읍 출신 최익서로 알려져 있다. 영학당 봉기 세력은 “벌왜벌양(伐倭伐洋) 보국안민(輔國安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음력 4월 20일 고부군으로 바로 들어가 성을 함락시키고 군기를 탈취하였으며, 총 40여 자루, 화약 1짐, 탄환 90여 개를 획득하였다. 4월 21일 저녁 무렵 흥덕군을 다시 공격하려 할 때 모인 자가 100여 명. 군기고에 남아 있던 무가총(無家銃)²¹ 10여 자루도 역시 탈취하였다. 4월

19 이영호, 위의 논문, 19쪽.

20 이하 내용은 『사법품보』 제49책, 1899. 7. 12. 「전라북도재판소 판사 이완용 질품서」 제15호; 같은 책, 1899. 7. 15. 「전라남도재판소 판사 민영철 보고」; 제51책, 1899. 9. 9. 「전라남도재판소판사 민영철 보고서」 제80호; 『사법품보』(乙) 제18책, 1899. 6. 10. 「전라남도관찰사 민영철 보고서」 제54호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1 ‘무가동실총(無可動實銃)’의 誤記인 듯함. ‘무가동실총’이란 발사 기능이 파괴되어 훈련용으로만 사용 가능한 실제 소총을 말함. 이 시기의 무가동실총으로는 1836년 독일의 요한 니콜라우스 폰 드라이제가 발명한 세계 최초의 군용 소총이 있었는데, 막부 시

21일 밤 무장군에 진입하여 백성들에게 “백성이 도탄에 빠져 있다. 이 때문에 거사를 일으켰다.”라 효유하고 군총 50여 자루, 화약 1짝, 환도 10여 자루, 민가의 전채 200여 냥을 탈취하였다. 4월 22일 고창군으로 내려와 수정(藪亭)에 모였다가 고창성 전투를 시작하였으나 수성군이 완강하게 저항하여 전세가 무너지면서 결국 자체 해산하였다.

이 과정을 주도한 몇몇 인물들의 기록을 보자. 최영두(73세)는 최익서의 부친으로서 4월 18일 밤 아들 최익서와 박정집 등 30여 명과 함께 고부군으로 가서 서양 총 11자루, 천보총(千步銃) 15자루, 조총 150자루, 화약 2상자, 철환 1상자, 탄자 50개를 찾아 말 5필에 싣고 귀환하는 작업을 주도하였다. 최익서는 “서울 사는 최보파리 익현이란 사람이 거사할 뜻으로 무장 등지에 통문을 보냈지만 거사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최영두는 “이번 일은 비록 좋은 계책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두 두령의 존재를 모르고 토색질을 주로 하니 마음이 매우 답답하다.”고 하면서 봉기 세력의 부도덕함을 걱정하고 있었다.

태인의 김상흠 역시 73세인데, 1849년 한성으로 올라가 내관출입번(內官出入番)이 되어 40년을 수번(守番)하던 중 1882년 4월 사채를 강제로 받았다는 죄로 태인현에 유배당했던 인물이다. 그는 1884년 2월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 태인접주 유응로(柳應老) 포에 투탁하고 동학 소탕시 산내면에 숨었다가 1899년 4월 19일 영학 무리들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두머리 정사국(鄭士國)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동학 성찰직을 맡았다. 그는 나이가 많아 주문을 외우려고 모인 30여 명과 함께 “하지 못하는 바가 없고 응하지 않는 바가 없으며 알지 못하는 바가 없어 공변되

절 일본에 수입된 것이었다. (刀劍ワールド <https://www.touken-world.jp/search-arquebus/art0002509/>).

고 거룩하지 아니하냐”는 등의 주문을 암송하였다.

홍덕군 오재봉은 1894년 혁명에 참여했다가 사면령으로 목숨을 보존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음력 4월 6일 동군 삼태리 이강성이 피어 태인군 화호에 사는 김여성 집으로 가서 그 무리에 가입을 권유받았다. 그는 4월 16일 고부군이 영학당에 의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때부터 무리를 따라다니며 철창(鐵槍)을 잡고 19일 홍덕군 공격과 군기 탈취, 20일 고부군 진격, 21일 무장군 공격, 22일 고창군 수성군과의 전투 등 적극적으로 투쟁에 관여하였다.

또, 동학농민군 3대 지도자 중 1명인 손화중의 5촌 조카 정읍의 손치범은 신체가 왜소하여 총약환(銃藥丸) 짐꾼을 지휘하여 뒤를 따라가면서 전투에 참여했다가 각 군에서 작경할 때 참여했다. 태인의 김선명은 동학 우두머리 임경학의 성찰직으로서 행군 집사로 각처를 수행하였으며, 무장의 전막동은 무장읍 진격 시 총을 메고 동행하고 다음 날 고창 전투 때 천보총 한 자루를 받아 전투에 임한 인물이다.²²

아울러 1894년 시점에서는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였으나 영학당 봉기에 참여하지 않거나 신병으로 참가하지 않은 인물들도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된 인물들도 있었다. 고창의 김준옥은 무장현 신대동의 성재명으로 부터 도를 전수받았고, 장성의 임벽화도 영학당 주도 인물 최익서에게서 도를 전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봉기에 동참하지 않았으나 역시 동학도라는 죄명 하나로 체포되어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였다.

또, 정읍·고부에서 체포된 영학당 무리 중에는 하운현·김춘언·서한경·박창규같이 이전부터 동학도였거나 영학당 봉기 시 적극적으로 관군

22 이들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들은 모두 교수형에 처해지거나 재판을 받는 도중 고문으로 인한 상처, 총상 등으로 사망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과 싸운 사람도 있었지만, 20여 명의 인물들은 모두 “동학도들의 협박을 받고 마지못해 끌려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었기에 영학당 봉기가 그들이 계획한 대로 서울까지 직향할 가능성을 애초부터 인정하기 어려웠음을 엿볼 수 있다. 개중에는 짐꾼으로 강압당한 사람, 이름이 유사해서 잡혀온 사람, 봉기 주도자의 친족으로 잡혀온 최방서와 그 동생 최동순, 봉기에 참여한 형 대신 잡혀온 사람(차봉순, 박성일, 임성진, 차병옥) 등 억울하게 체포된 사람들도 많았다.

4. 동학 교단 재건 활동

1) 개별적 동학 수련

동학농민혁명 이후 동학농민군들 중에는 동학 수련에 몰두하는 인물들도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인물들도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했다거나 사악한 술수에 빠졌다거나 올바른 도를 어지럽힌다는 죄목으로 중형으로 처벌하였다. 충청도 청주군 서석여(徐石汝)는 손사문(孫士文) 포의 접주로 도피하여 목숨을 보전하고 있다가 1896년 음력 3월 25일 강원도에서 온 강채수의 권유에 못 이겨 4월 1일 단(壇)을 세워 향을 피우고 『동경대전(東經大全)』을 읽어나가는 예식을 집행했다. 그러나 같은 집에 숙했던 김시묵은 끝내 참여하지 않고 단지 동학의 여러 물건들을 강채수에게 맡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둘 다 역종신형을 받았다가 각각 15년형, 10년형으로 감경받았다.²³

23 『사법품보』 제8책, 1896. 6. 23. 「공주재판소판사 보고서」 제54호

공주군 산내면에서도 다수의 인물들이 동학의 주문을 암송하고 제례를 올렸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공주군 산내면 상소전리의 양관복과 이원보는 둘 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행패를 안 부려 목숨을 보전하고 무죄로 귀가했었다. 1896년 12월 양관복은 모친 산소 이장(移葬) 건으로, 이원보는 조부 이장 건으로 지관 김여실을 초빙하였는데, 둘 다 류몽석 이봉여와 함께 김여실 집으로 가서 함께 보문산 상봉에 올라 제례를 올렸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다.²⁴

같은 시기에 충남 관찰부에서는 목천·진잠·연산·문의군 동학도의 행동거지가 수상하고 공주군 산내면이 도적의 소굴이라는 판단하에 비밀리에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권금봉·류한강·양영보·류재손·박승춘·문백권·박승운·김수산·김사범·박승렬·이흥서·이명옥·강광숙 등 15명을 체포해 왔다. 이들 모두 1894년 동학에 입도한 경력이 있지만 대부분 무고하게 체포당해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여기서 특히 이명옥의 진술이 주목된다. 그는 “갑오년에 누가 동학이 아니었겠습니까? 소요 진정 이후에는 누군들 유도인(儒道人)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 밤낮 기대어 사는 자가 어찌 한가하게 소요를 생각하겠습니까?”라며 무죄를 호소하는 항변을 하였다.²⁵

2) 1897~1898년초 동학 재건 움직임

1897년 말에서 1898년 초까지 정읍·태인 지역에서는 광주에 거주했던 김형순(金亨淳)을 중심으로 동학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는 1894년 8월 3일 담양읍 거주 국담(鞠淡, 후술하듯이 鞠弘默이라고

24 『사법품보』 제20책, 1897. 4. 6. 「충청남도관찰사 이건하 보고서」 제41호.

25 위와 같음.

도 불리었음)이 포살당한 사건에도 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이다. 그는 농민혁명 이후 은거해서 살다가 1897년 3월 거창 이정화, 고부 김여중과 함께 심도풍 집으로 가서 모두 함께 속리산의 이원팔을 찾아갔다. 그와 약속하기를, 이천의 동학교주 최시형을 찾아가 도 닦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첩지받고 돈을 거두자고 했으나 실제로 찾아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망건 장인(綱巾匠人)을 사칭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동학 재기 설’을 퍼뜨렸다. 그는 “이번의 도설(道說)은 이전과 다른 것이 있고 만약 잘 수양하면 재앙은 사라지고 복을 받는다. 내가 또한 그 도의 근본을 파악했다” “법헌 최시형을 만나뵈러 갔으나 그의 종적을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헛된 말을 만들어 사람들을 속이고 재물을 취하려는 마음으로 돈을 토색하는 것은 도적놈들 무리와 다르지 않다. 그 도의 근본을 알지 못한다. 다시 이 같은 동학 무리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을 따름이라”는 식의 경고를 날리면서 자기 중심으로 동학도를 모아 동학 교단을 재건하려고 하였다.²⁶

산소 자리를 구하기 위해 지관을 부르거나 동학 경전을 읽고 주문을 외고자 하는 사람들은 김형순 같은 동학 재건 세력과 관련을 맺게 된 듯 하다. 정읍의 심도풍은 지관을 초빙했는데 그가 “주문을 읽으면 병이 낫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여 주문을 청해 보니 사실상 동학의 주문이었다. 이에 동네 사람들이 1894년 같은 화를 입을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를 축출하려고 할 상황이었다. 정읍의 이내형도 심도풍의 이 같은 동학 주문 암송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한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지를 비밀리에 순찰하면서 수사하는 관군들은 이러한 기미를 보이는 인

26 『사법품보』 제31책, 1898. 3. 4. 「전남 관찰사 윤웅렬 보고」 제14호.

물들을 모두 위험 인물로 지목하여 체포해 갔다.

같은 시기 경기도 이천에서도 동학 재건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 지역의 움직임은 동학교주 최시형의 사위 김치구가 주도하였다. 김치구는 동학을 등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전날의 도는 곧 하늘을 공경하고 선을 행하는 도였다. 이전의 공부를 다시 계속하여 믿음을 갖고 잊지 않는 게 좋겠다”고 설득하면서 동학을 재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권유를 받은 이전 동학도 및 지인들은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과거의 동학교도 이상옥은 김치구의 권유를 사양하고 물리쳤으며, 권성좌는 김치구의 외가 선산 근처에 있는 자신의 부친 선산을 지키기 위하여 동학에 입도했을 뿐이라고 했다. 신명우는 아들 신면식이 최시형의 데릴사위로 들어가 김치구와 동서 간이 되었기에 김치구가 동학교도로 복귀하라고 보낸 싸리 바구니 2짝, 보자기 1개, 임원 명단을 기록한 장부를 그대로 보관했을 뿐 동학에는 뜻이 없었다고 하였다. 김낙철도 전라좌도 두목인 임실의 김학중이 ‘이전 공부를 계속해야 재앙이 사라지고 병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의 청으로 김치구 집에서 기숙하며 그의 조카에게 글을 가르치고 최시형을 만나보기만 원했을 뿐 동학을 숭상한 적 없다고 하였다.²⁷

동학도들의 움직임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1898년에 일어났다. 바로 제2대 교주 최시형의 체포와 처형이었다. 최시형의 체포는 그 사위 김치구 집에 고용되었던 박윤대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송일회에게 최시형이 경기도 이천 지역에 있다는 말을 전한 것이 빌미가 되었다. 송일회는 이를 자기 지인 옥천 거주 박가에게 말했다가 이를 포착한 경무청 관인에

27 『사법품보』 제33책, 1898. 5. 1. 「경기재판소판사 김영덕 질품서」 제1호.

의해 박윤대와 함께 체포당해 그들이 앞장서서 원주 지방에서 최시형을 체포하게 만든 것이다. 아울러 동학도였다가 귀화한 황만기는 “의리상 대종 선생을 뵈러 가야 한다”고 하여 도망친 최시형을 찾아가 생선을 바쳤다가 체포되었다. 최시형에 대한 판결은 “처형당한 최제우의 억울함을 풀어준다 칭하고, 1893년 그 무리 수천 인을 수궐(守闕)하여 소를 올리다가 곧바로 해산. 또 보은(報恩) 장내(帳內)에 다수의 군중을 모았던 때에 순무사(巡撫使)의 타이름으로 인하여 각자 흩어지더니, 1894년 봄 피고의 도당 전봉준이 고부 지방에 무리를 끌어모아 기회를 타고 봉기하여, 관리를 때려죽이며 성진(城鎭)을 함락하여 양호(兩湖) 지방이 문드러져 파탄이 날 지경에 이르렀으니, 피고가 이를 시키고 화응한 일은 없다고 하지만 난의 전개와 일의 뿌리를 따지면 피고가 주문과 부적으로 인민을 미혹함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동학농민혁명의 모든 원인을 최시형이 주문과 경전, 부적을 이용하여 인민을 선동 미혹한 행위에 있다고 교수형에 처하였다. 이와 더불어 황만기는 태100 역종신에 처했고, 박윤대와 송일회는 원래 죄는 태100 역종신이지만 최시형 체포 공로를 감안해 각각 태100 역15년, 태100 역10년형에 처했다.²⁸

3) 1899년 말~1900년 초 동학 재건 움직임

1899년 영학당 봉기가 관군에 의해 진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말부터 다시 동학 재건 움직임이 왕성하게 나타났다. 이 움직임은 전라도 고산·여산, 충청도 은진·연산 등지에서 나타나, 정부는 보부상 조직인 상무사를 활용하여 이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중국에는 주요한 인물들까

28 『사법품보 (乙)』 1898. 7. 19. 「고등재판소판사 주석면 질품서」 제12호; 동년 동월 동일 「고등재판소판사 주석면 보고서」 제33호.

지 체포하게 만들었다.

대표적인 인물은 여산의 고문선으로 1894년 동학에 입도하여 대접주로서 동년 가을 무리 1백여 명을 이끌고 전주 진영에 참여하였다. 그는 전주 읍촌 여러 부잣집에 포군을 나누어 보내고 재물을 청하여 20~30냥 혹은 70~80냥을 얻어와 집 중에 보내어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동학의 도를 매우 훼손한다고 하는 백가(白哥)를 잡아와 곤장 30여 대를 때리고 방송했는데 이로 인하여 백가가 죽었고, 겨울 사이에 중앙군이 온다는 소문이 있어 무리를 해산하고 여산에 은신해 있었다.

1899년 9월 임피 오성산 사는 김준희가 그를 찾아와서 “다시 동학을 설하면 실효를 볼 것”이라고 하여 몇 군데 잘 아는 사람들에게 동학을 재건할 뜻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권유하였다. 그를 통해 도를 받은 자가 여산 황화정(皇華亭)의 고성화, 정낙현, 정봉술, 서찬경, 이노돌, 고산 대치리(大峙里)의 김금석, 김갑동, 강윤실, 강완실, 배종갑, 은진 강경포의 류화인 등이었다. 고문선 외에 은진 남산리의 손광현과 부안의 김여중도 거물급 동학도로 활동 중이었다.

관군이 고문선의 집에 가서 체포하고, 전도차첩(傳道差帖)과 염주, 투서(套署: 각종 문서 양식), 하늘에 제사지내는 향축 등 도구, 모임을 약속하는 통문, 주술 부적, 경문 등 책자 등을 압수당하고 말았다. 고문선은 『대명률』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術條: 무속 교습과 사술을 금지하는 조항) 일응좌도난정지술혹소향집중선혹인민위수자율(一應左道亂正之術或燒香集衆煽惑人民爲首者律: 무릇 일체의 좌도(左道), 즉 정당하지 않은 술법으로 정도를 어지럽히는 술수를 행하거나, 혹은 향을 피우고 무리를 모아 백성들을 선동하고 현혹하는 자 중에서 주동자(爲首者)는

교수형[絞刑]에 처한다)로 교수형 선고를 받고 법부의 집행 지령을 기다리고 있던 중 신병으로 사망하였다.²⁹

상무사 보부상들에 의해 고문선의 무리로 지목되어 체포당한 인물이 임피의 김준홍·류덕장·김성초·장한여·이치옥·이관동·이용구 등 7명의 동학도들이다. 보부상들은 이들을 체포하면서 고문선과 같이 기폭(旗幅) 2개와 모임을 기약하는 통문 묶음과 염주(念珠), 투서(套署), 주문, 부적 등의 물건을 압수하였다. 이들 중 가장 지도자급 인물은 56세의 이관동(李關東)인 듯하다. 그는 박규협으로부터 도를 전수받고 1894년 8월 충청도 보은 장안평에 이사하여 최시형을 보필하고, 1898년 최시형이 처형당한 후 상주(尙州) 화룡원(化龍院)으로 이주한 후 1900년 1월 임피의 김준홍, 고산의 이용구 두 사람의 방문을 받고 그들의 권유로 2월 8일 이용구의 집을 사서 거주하였다. 이후 김준홍, 이용구 등과 함께 천제(天祭)를 지내고 다시 동학을 설립할 목적으로, 충청도 정산(定山)의 신촌(新村) 김정삼의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김준홍은 장경하로부터 도를 전수받았는데, 이관동의 지시를 받고 은진 강경포의 유산춘(柳山春)이 1900년 4월 8일 전주(全州) 수하(水下) 배산(盍山) 아래 넓은 들판에서 모임을 갖고 외국인을 배척하는 일을 상의하는 데 뜻을 같이하였으며, 다시 설편한 동학의 새로운 접주가 되었다. 그가 자기 집 아래 거느린 사람은 고문선 이하 30여 명이고, 다른 무리들은 강경포 류산춘이 거느린 40명이 있었다. 모여서 일을 같이 피한 자는 익산(益山) 의동(蟻洞)의 김경재(金敬裁), 김제(金堤) 남면(南面)의 강

29 『사법품보』 제57책, 1900. 3. 15. 「전라북도재판소 판사 이완용 질품서」 제1호.

문숙(姜文叔), 고부 남면의 홍경삼(洪敬三)과 김명중(金明仲), 부안(扶安)의 김여중(金汝仲)과 명중(明仲) 형제로, 이들이 호남 동학 중에 우두머리들이었다. 그러나 김준홍이 급하게 무리를 불러 이관동을 찾아갈 일을 상의하다가 체포되었다. 김준홍은 이 과정에서 “최법헌(崔法軒)께서 돌아가신 후 강원도에 있는 구암(九巖)·예암(禮巖)·송암(松巖)³⁰의 삼암(三巖)이 가장 지도자[主張]들이다. 이관동 또한 주장이니 곧 각 사람들이 맡은 일의 임명장[差紙]을 반드시 다시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할 만큼 이관동의 지위를 높이 받들었다.

나머지 인물들 중 김성초는 김준홍으로부터, 이치옥은 장경하로부터, 이용구는 은진의 조동현으로부터 각각 동학도를 전수받았다. 장한여는 1894년부터 동학도였던 인물로 김준홍 부탁으로 서찰을 전주의 류덕장과 김성초 두 사람에게 은밀하게 전해 주는 역할을 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은 위의 고문선처럼 중죄인으로 취급받았다. 이관동, 김준홍, 류덕장, 이용구 등 4명은 고문선과 같은 죄에 해당하여 태 100 역종신형 선고를 받았고, 김성초, 장한여, 이치옥 등은 중범이라 2등을 감하여 태 100 징역 10년 선고를 받았다.³¹

30 구암은 김연국, 송암은 손천민의 호이다. 예암은 의암, 즉 손병희의 호를 잘못 말한 듯하다.

31 『사법품보』 제58책, 1900. 4. 2. 「전라북도재판소 판사 이완용 질품서」 제2호. 이관동도 고문선과 같이 형이 확정되기 전에 신병으로 사망하였다.

5. 동학의 위세를 이용한 사적 폭력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동학농민군의 각종 사적 폭력 행위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국가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폭력을 독점한 존재로 간주되었지만, 혁명은 그 국가권력을 부정하고 대신하고자 하는 사건이다. 혁명이 승리하려면 국가권력을 무력화시킬 만큼의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권력은 소멸하고 혁명 세력의 폭력이 국가권력을 대신하게 된다.

또한, 근대 이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의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범죄로 인정하지 않듯이 조선시대 법제에도 이와 유사하게 사적 폭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었다. 즉, 복수를 위해 살인을 했더라도 그것이 성리학 이념에 따라 삼강오륜 윤리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라면 아예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는 법조항들이 존재하였다. 조부모·부모가 남에게 피살되어 그 자손이 가해자를 함부로 살해한 때에는 장 60에 처하고 피살 현장에서 살해한 경우에는 무죄 석방하였다.³² 또 부친이 피살되어 범인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그 원수를 죽인 경우에는 사형을 감경하여 정배하였다. 또 처나 모친이 남편·아들의 원수를 함부로 죽인 경우는 자손이 조부모·부모를 죽인 원수를 함부로 죽인 위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장 60에 처하도록 하였다.³³

32 『大明律直解』 刑律 鬪毆篇「父祖被毆」.

33 『大典會通』 刑典「殺獄」. 이러한 복수 살인 행위는 ‘義殺’이라고도 불리었다. 조선시대의 복수 살인 또는 ‘의살’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심희기, 「복수와 서설」, 『법학연구』 26-1, 1983; 전재경, 『복수와 형벌의 사회사』, 웅진출판사, 1996; 윤재현, 「다산 정약용의 복수론」, 『다산학』 3, 2002; 김호, 「의살의 조건과 한계」, 『역사와 현실』 84, 2012

『사법품보』에는 위와 같이 국가권력이 일시 소멸된 상태에서 혁명의 위세하에 동학농민군이 사적 폭력을 자행하는 경우가 존재하는가 하면, 복수 살인처럼 성리학적 삼강오륜을 수호하기 위한 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개인적으로 맺은 원한관계나 금전관계, 분묘 분쟁, 친족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 등이 그러한 경우들이었다.

특히 많은 사례는 국가권력의 비호를 받는 양반·관원들과 일반 평민 사이 분묘 분쟁 관련 폭력이었다. 부안군 이학서는 동학에 투탁하여 남의 무덤을 파헤쳐 1895년 3월 보령에서 유배되었으며, 광주군 김운선 역시 동학 무리에 의탁하여 남의 무덤을 파버린 죄로 같은 시기 공주에서 유배되었다.³⁴ 광주군 김중렬의 경우, 그의 조상 무덤 근처에 사족 토호 옥응문과 같은 면 이원숙이 투장(偷葬)했었다. 김중렬은 이에 분노를 느낀 끝에 동학농민혁명 와중에 손화중 포에 투탁하여 무리를 이끌고 와서 이원숙 무덤을 사굴하였다. 농민혁명이 진압당한 후 김중렬과 옥응문 두 사람은 매번 말다툼을 하였다. 1895년 7월 중 김중렬이 남의 집에서 노동하고 있는데 옥응문이 자기 집에 불러 “너는 동학당 무리라. 내가 이전에 동학당에게 매질당한 것, 가산 빼앗긴 것은 전부 네가 꾸민 짓이니 돈 300냥을 바치라”고 꾸짖었다. 중렬이 귀가한 이후 뒷자리를 침범당한 패악과 돈을 토색당한 수치를 생각하다가 가슴이 막히고 분해 통증을 느끼고 구역질하다가 다음 날 아들을 시켜 나주부 관찰사에 정소하였다. 그러나 그는 관청의 판결을 기다리다 옥응문과 말다툼한 날부터 5일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³⁵

참조.

34 『사법품보』 제3책, 1895. 5. 5. 「完營 牒報」.

35 『사법품보』 제4책, 1895. 9. 18. 「나주부관찰사 채규상 질품서」.

서천군 구문옥 등 구씨 일족 6명과 남양홍씨 가문 사이의 분묘 분쟁은 좀 더 역사가 길다. 전 부사 홍병도는 1876년 남양부원군 장간공 홍사훈의 무덤이 상실되어 이를 찾던 중 산 아래 사는 구씨 무리가 비석을 부수고 무덤을 침범하고 압장했음을 발견했다. 이에 봉분을 고쳐 쌓고 모점(冒占)한 무덤을 파버렸다. 그때 원래 범죄인인 구씨 일족 중 구문옥 구진구 구사희 3명은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비도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 족당을 이끌고 다시 남양홍씨네 비석을 부수고 무덤을 파서 훼손하였으며, 그 후에도 계속하여 여러 차례 압장하며 묘사(墓舍)와 위토(位土)를 탈취하고 산소 둘레에 심은 송추(松楸)를 모두 베어버렸다. 농민혁명 이후 홍병도는 이들 구씨 가문 6명을 관에 고소하고 압장한 무덤들을 모두 원상 복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³⁶

분묘 분쟁 다음으로 많은 사례는 원한이 맺힌 상대방이나 관가 또는 마을에 쳐들어가 방화, 살인, 재화 탈취 등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경우이다. 보국안민의 이념과 농민군 4대 강령을 앞세운 동학도가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경기도 안성 정천석은 자신이 거주하던 행랑채의 주인인 양성군 덕봉면 오씨 양반이 동학접주가 되자, 그 위세를 빌려 처 상전집 딸을 빼앗고 처의 상전도 잡아다 억지로 동학에 입도하도록 명령하는 등 복수를 하였다.³⁷

경기도 감영 소재지 양반 이규백이 노백용의 돈 수천 냥을 빌려 쓰고 안 갚은 상태였는데, 노백용이 1894년경 동학에 입도하자 마을 사람들이 노백용의 집을 부수고 쫓아내는 사건이 벌어졌다. 노백용이 이로 인해 원한을 품었는데, 그의 처남 전만철이 이규백의 조카를 잡아 타살하

36 『사법품보』 제26책, 1897. 10. 3. 「충청남도 관찰사 이진하 보고서」 제141호.

37 『사법품보』 제2책, 1895. 1. 26. 「關 安城」.

고 도피하였다. 이후 이규백의 형 명원이 전만철을 잡아 심문하니 전만철의 동생이 노백용을 도와 이씨 양반을 타살했다고 진술하였다.³⁸

해주군 마산방 김선장(金善長)은 동학도로 농민혁명 시기에 임종현(林宗鉉)의 화포영장(火砲領將)이라 칭하며 수대산(壽大山) 108형제라는 이름으로 무리를 모아 마을에 횡포를 부리고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였다. 일본군이 해주부로 내려와 주둔하면서 이들을 토벌하기 시작하자 김선장은 몸을 숨기고 종적을 감추었다. 그는 1896년 1월경 다시 순포(巡捕)라 가칭하고 가난한 마을과 고립된 섬에 수시로 출입하여 종종 포악하게 행동하는 폐해를 매우 많이 일으켰다. 이후 해주부에 체포되어 9월 19일 교수형이 집행되었다.³⁹

1895년 1월 재령(載寧)의 동학도 수백 명이 봉산군 사원참(沙院站)을 침탈하여 만나는 대로 총으로 쏘아 죽이고 불을 지르며 쓸고 지나갈 때에 죽은 사람이 40여 명이고, 불에 타버린 민가가 300여 호였다. 이때 화포수였던 이원조(李元早)는 평소 원한관계가 있던 송상원(宋相源)·김기성을 총살하였다. 또, 송상원이 가지고 있던 은화 250원 가운데 30원은 그가 가지고 나머지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는 체포된 이후 무고한 사람을 죽였으니 만번 죽어도 애석할 것 없다고 했으나 설사 병으로 사망하였다.⁴⁰

1894년 12월 전라도 장흥군 수성군 작대군(作隊軍)이었던 최창범은 동

38 위의 책, 1895. 5. 6. 「畿營報內部而來牒」

39 『사법품보』 제9책, 1896. 7. 22. 「해주부 관찰사서리 해주부 참서관 김효익 보고」 제38호; 『사법품보』 제13책, 1896. 9. 9. 「황해도관찰사 민영철 보고」 제455호.

40 『사법품보』 제13책, 1896. 8. 31. 「황해도 관찰사 민영철 보고」 제3호; 같은 책, 1896. 9. 16. 「황해도관찰사 민영철 보고」 제453호; 같은 책, 1896.9.19. 「황해도관찰사 민영철 보고」 제455호.

학도 무리의 기세가 성한 것을 보고 밤에 몰래 적에게 투항하여 적을 인도하여 길을 가르쳐 주고 성을 함락시킬 때 성에 먼저 올라섰으며, 강진군(康津郡) 및 강진 병영(兵營)의 성이 함락될 때에도 선봉을 섰다. 그는 1897년에 가서야 체포되었는데, 이때 그가 여동근(呂東根)과 이태문(李太文)을 포박하여 성 밖 10리 부근 모정(茅亭)에서 일시에 살해한 죄상이 드러났다.⁴¹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저지른 사적 폭력의 주범이 뒤늦게 체포되고 재판된 사례들이 있다. 예산군 임사원은 동학도가 창궐할 때 입도하였다. 복주원·이광손·유치덕 등 수백 명이 양반 김씨 집에 쳐들어갔을 때 양반 김씨 집 임산부가 낙태하면서 사망하고 젓먹이 아이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범인으로 지목된 복주원은 관군에 붙잡혀 처형되고, 유치덕은 무죄 석방되었지만, 이광손과 임사원은 도피하였고 1898년에 가서야 임사원이 체포된 것이다.⁴²

충주군 김봉순·김원오 등 8명은 동학농민혁명 좌절 이후 적당으로 변신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김봉순은 동학도가 창궐할 때 그 기세를 타고 자기 배우자인 임충주 덕 여종을 빼앗아 도주하였다가 1894년 10~12월 적당 8명을 이끌고 마을에 돌아와 돈과 재물을 탈취하기 시작하였다. 음죽 고작동(古作洞) 박춘서 집에 가서 쌀 1석과 백목 1필을 탈취하여 나누어 쓰고, 같은 달 30일 같은 무리가 천안 불당리의 김원서 집에 가서 당오전 700냥을, 같은 해 11월 24일 죽산 이부장(二釜場) 터 김성악 집에 가서 당오전 245냥을, 12월 24일 죽산 시두천(柴豆泉) 박춘명 집에서 당오전 440냥과 면주(綿紬) 1필을 탈취하였다. 1897

41 『사법품보』 제26책, 1897. 8. 24. 「전라남도 관찰사 윤웅렬 보고서」 제34호.

42 『사법품보』 제37책, 1898. 8. 31. 「충청남도재판소 판사 정주영 보고서」 제102호.

년 12월 29일 죽산 주례장(酒醴場) 터 박춘명의 집에 가서 쌀 12두를, 1898년 정월 28일에 원당리 이학길의 집에 가서 쌀 10두를 탈취였다. 결국 1898년 1월 감미면 월동 주점에 머물다 성난 동민들에게 체포되었다.⁴³

가장 극적인 사건은 1898년 담양의 국재봉·국재준 형제가 부친 국홍묵(鞠弘默)을 죽이는 데 단서를 제공한 동학도 정인악(鄭寅岳)을 살해한 사건이다. 당초 국홍묵은 1894년 8월 담양군 용귀동 접주 김형순·김문화 등에게 피살되었다고 알려졌다. 이후 1898년 정월 전라북도 암행어사가 김형순을 체포하여 담양군으로 넘겼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 국재봉 형제가 정인악도 붙잡아다 놓고 김형순에게 부친 살해 이유를 물었다. 김형순은 당시 정인악이 자신에게 “국홍묵이 동학 집장 자리를 얻으면 용귀동 집을 도륙할 것이다”라고 말했고, 자신은 이에 격분하여 다음날 활터에 무리 수백 명을 모아놓고 국홍묵을 잡아와 총살했다고 토로하였다. 이후 관찰부 명에 의해 김형순과 정인악을 압송해 가기로 한 날, 국재봉 형제는 김형순에게 한 번 더 동일한 질문을 하고 김형순이 답변을 하자마자 부친 살해의 단서를 제공한 정인악을 홍살문 앞으로 끌고가 그의 배를 가르고 칼로 머리를 베었다.⁴⁴

『사범품보』에 이 사건에 관련된 기록은 더 이상 없지만, 이 사건은 전라북도 동학도 내부에서의 대립과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이 주목되는 점은 갑오개혁으로 근대적 재판제도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1898년 시점에서 살인범 피의자를 피살자 아들 형제가 복수 살인을 했다는 점이다. 법부에서는 근대적 형사법규에 따

43 『사범품보』 제31책, 1898. 2. 26. 「충청북도관찰사 박제역 보고서」 제17호.

44 『사범품보』(乙) 제12책, 1898. 11. 「고등재판소재판장 한규설 질품서」 제14호.

라 국재봉은 태100 징역종신형, 국재준은 태100 징역15년에 처했으나, 고종은 사건의 성격이 복수 살인이고 두 아들 모두 징역 사는 것은 흠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국재봉은 징역 10년으로 경감하고 국재준은 방송하라고 특지를 내렸다.⁴⁵

6. 외래 종교로의 전향

동학도 중 일부가 정부의 탄압을 피하고 생존을 위해 천주교와 개신교 등 서양 종교로 전향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이미 밝혀져 있다.⁴⁶ 그러나 『사법품보』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세 가지밖에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천주교·개신교 등 서양 종교에 투탁하여 죄를 범한 경우, 그 피의자가 동학교도이든 그렇지 않든 법부 독단으로 처리할 수 없고 외부와 서양 영사관 관원 사이의 교섭에 의해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⁴⁷

전라도 금구의 황처중과 박사옥 두 사람은 모두 본래 동학도였다가 일찍이 귀화하였고, 그 후에는 천주교[西教]라고 빙자하고 각지에 출몰하여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 둘은 자신들의 죄상이

45 『법부기안』(奎 17277의2) 제37책, 1898. 12. 21. 「지령 고등재판소건」; 『법부기안』 제38책, 1899. 1. 17. 「훈령 고등재판소건」

46 이영호, 「농민전쟁의 계승과 그 계보」, 『역사연구』 27, 2014, 193~194쪽; 『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연대, 1893~1919』, 푸른역사, 2020.

47 따라서, 천주교·개신교 등 외래 종교 신도들의 불법 행위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서는 피해 소구 민인들이 외부에 올린 소장을 별도로 분석해야 하리라 본다(『外部訴狀』(奎 18001) 제1책~제9책).

드러났으니 변명할 말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었다.⁴⁸

충청도 서천군의 서창길은 동학도 소요에 참여하여 관장을 능욕하고 백성을 침학하였다. 유한표는 수군과 육군의 군기를 탈취하고 남비(南匪)와 합심하여 여러 성을 재앙에 빠뜨렸던 인물이었다. 이후 이 둘은 천주교(서학)에 입도하여 서천군을 전복하려 한다는 소문으로 다시 관찰부의 심문을 받았다. 관찰부에서는 이들에게 원한을 품은 조정선과 윤사평의 무고일지 모르므로 감옥에 엄히 가두어 둔다고 법부에 보고하면서 처분을 요청하였다.⁴⁹

경기도 양성군의 홍병섭은 동학 잔당인데 의병으로 옮겨갔고, 의병이 국왕의 명을 받고 해산하자 다시 개신교(야소교)로 옮겨 들어간 교두(敎頭)였다. 그는 용인 사는 김준희와 함께 어울려 불의를 자행함이 극심하여, 양성군과 용인군 백성 모두가 그들을 ‘죽여야 한다’고 원망하였다. 홍병섭은 개신교를 빙자하여 평민을 침학하고 재물을 약탈함이 동학과 의병 때보다 더 심한 바, 양성군 노곡 이보경의 답토 15두락, 농우 1필을 탈취한 사건이 널리 알려져 체포되었다. 경기재판소에서는 태100 징역중 신형으로 의율하였으나, 법부에서는 김준희보다 범죄가 약하다고 하여 태100 징역3년으로 감경하였다.⁵⁰

48 『사법품보』 제14책, 1896. 10. 16. 「전북재판소판사 윤창섭 보고서」 제527호.

49 『사법품보』 제17책, 1897. 1. 23. 「충청남도 관찰사 이건하 보고서」 제10호.

50 『사법품보』 제35책, 1898. 7. 4. 「경기재판소 보고」; 『법부기안』 제32책, 1898. 7. 8. 「지령 경기재판소건」

7. 맺음말

『사법품보』는 근대적 재판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과정에서 고등재판소(1899년 이후는 평리원)·지방재판소·한성재판소·개항장재판소 등 각급 재판소가 법부에 질의 또는 보고하고 이에 대해 법부가 내린 지령 또는 훈령을 모아놓은 자료이다. 기본적으로 각급 재판소는 재판 진행 시 ①심리한 형사사건이 종신유배·종신징역 이상의 중형에 해당할 때 ②심리한 형사사건의 범행 정상이 형량을 경감할 만한 때 ③법률 적용상 의의(擬議)가 생길 때 등 세 가지 사안일 경우에는 모든 관련 문서를 첨부하고 법부에 지령을 청하여 판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자료에는 주로 종신징역(유배)형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법률 적용상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동학농민군 관련 재판기록이 모두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각 형사재판 사건의 시초부터 최종 판결까지 분석하려면 법부에서 각급 재판소에 일괄적으로 내린 법령이나 훈령, 개별 재판소에 내린 지령 등을 수록한 『법부기안』 및 해당 시기 재판소 판결문까지 종합해서 검토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품보』는 형사재판의 첫 단계에서 법부에 질품한 기록이기 때문에 형사피고인의 진술, 즉 공초가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 사건의 전말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게다가 동학농민혁명 이후 살아남은 동학농민군들이 그 혁명적 열기를 어떻게 유지 또는 변용시켜 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사법품보』 동학농민군 피의자들을 동학 조직을 바탕으로 한 반정부 활동, 동학 교단 재건 활동, 동학의 위세를 이용한 사적 폭

력, 천주교·기독교 등 외래 종교로의 전향 등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첫 번째 동학 조직을 바탕으로 한 반정부 활동으로는 1894년 전주와 공주의 소소한 지역 사건들이 보인다. 이어서 1898년 11월과 1899년 4월에 일어난 흥덕민란과 영학당의 고창성 습격 사건에 연루된 농민군들의 활동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영학당의 조직과 자금 모집, 무장 투쟁 준비, 고부군·고창성 습격 등에 참여한 인물들의 공초가 흥미롭다.

두 번째 동학 교단을 재건하려는 지역별 움직임과 연관된 활동들이 있다. 1897~1898년 충청남도과 북도 각지에서 개별적으로 동학 의식과 예배를 통해 조직을 만들어 가는 움직임, 동학 제2대 교주 최시형이 검거되었다. 영학당 봉기가 관군에 의해 진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899~1900년 초에 다시 전라도 고산·여산, 충청도 은진·연산 등지에서 나타났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동학의 위세를 이용한 사적 폭력을 다수 확인하였다. 이는 혁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 즉 기존 국가권력의 소멸로 인해 혁명적 폭력이 국가권력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삼강오륜의 성리학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복수 살인 등도 동학의 위세와 중첩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개인적으로 맺은 원한 관계나 금전관계, 분묘 분쟁, 친족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 살인 등이 그것들이었다.

네 번째 천주교·개신교 등 서양 종교로 전향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고 나아가서 다른 민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보인다. 다만, 이러한 사건들은 외국인 사제·목사의 비호를 받기 때문에 외국 영사관과의 교섭이 필요한지라 법부보다 외부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본 『사법품보』에는 많이 보이지 않았다. 민인들이 외부에 올린 『외부소장』도 아울러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활동에 관련된 인물들은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손병희·이용구 등의 진보회 조직 활동, 천도교와 시천교로의 분리, 나아가서 1919년 삼일운동으로까지 연결된다고 보인다. 물론 세 번째 동학 위세를 이용한 사적 폭력 행사자나 외래 종교로 전향한 인물들 역시 이러한 흐름과 연관될 수도 있으나, 이들은 그보다는 대한제국기에 나타나는 수많은 정치적 사건들 및 지역 내 또는 개인 간의 분쟁 등과 연관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894년 이후 동학농민군 처벌과 근대 사법의 편파성

왕현종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역사문화학과 교수

1. 머리말
 2. 1894년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와 계기
 3. 갑오개혁 정부의 동학농민군 탄압과 ‘효수’ 참형
 4. 갑오개혁 정부의 사법 개혁 조치와 농민군 재판의 편파성
 5. 맺음말
-

1. 머리말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 관한 연구는 백주년을 맞이한 1994년을 계기로 크게 진작되었다. 이후 30년이 흐른 시점에서 동학의 역할과 주도 세력, 농민군의 지향 등에 대한 연구가 구체화되었다.

1894년 9월 이후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는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는 일본에 맞서 ‘척왜양’이라는 대의명분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정치군사적 침략에 맞서는 반외세 민족운동으로 평가되었다. 그렇지만 2차 봉기는 1차 봉기에서 기치로 내세웠던 ‘보국안민(輔國安民)’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으며, 농민적 개혁 이념의 전국적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2차 봉기 연구 과제는 당시 조선 사회의 내적 갈등과 모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과연 동학농민군의 참여자와 지도자들의 연구가 심층적으로 진행되었는지는 의문이다.¹ 1차 봉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대신에 2차 봉기의 발발 계기와 투쟁의 목표 등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볼 수 있다. 1894년 9월 이후 조선 정부의 농민군 진압, 즉 조선군과 일본군이 공동으로 농민군을 어떻게 압살했는가에 대한 연구가 다수 있다. 이는 주로 전국적인, 혹은 지역적인 차원의 탄압 과정으로 연구되었다.² 조선 정부군·일본군·지방 민보군 등이 수

1 김용섭, 「동학란 연구론」, 『역사교육』 3, 1958; 정창렬, 「동학과 농민전쟁」, 『한국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1); 한국역사연구회, 『1894년 농민전쟁연구』(1~5) (역사비평사, 1991~1997);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회,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1~30), 사운연구소, 1996.(1~30), 사운연구소, 1996.

2 1894년 당시 조선 정부 및 일본의 동학농민군 토벌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논자가 참고된다. 朴宗根, 『일청전쟁과 조선』(靑木書店, 번역본, 일조각, 1989), 1982; 조경달, 『이단

행한 동학농민군 탄압 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규명해 왔으나 농민군 학살의 양상과 전투 상황에 대한 연구 중에서도 농민군 지도자와 참여자에 대한 가혹한 학살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규명할 점이 많다. 예컨대 동학농민군에 대한 토벌에 대하여 향촌사회 지배권력층에 의한 자의적인 폭력의 양상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진압과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 특성과 함께 지적하지 못한 것이었다.³ 또한 전국적인 차원에서 국왕의 이름으로 행해진 국가의 제도화된 폭력이나 갑오개혁의 사법 개혁과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농민군에 대한 이들의 폭력적 진압이 갖고 있는 역사적 특성과 의미를 충분하게 지적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⁴

본고에서는 동학농민군의 학살이란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전근대적

의 민중반란』(岩波書店, 박맹수 옮김, 역사비평사, 2008), 1998; 배항섭, 「동학농민전쟁 당시 일본군의 개입과 그 영향」, 『군사』 53, 2004; 박찬승, 「동학농민전쟁기 일본군·조선군의 동학도(東學徒) 학살」, 『역사와 현실』 54, 2005; 강효숙, 「청일전쟁기 일본군의 조선 민중탄압-日本軍의 '非合法性'을 중심으로」,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 전략』,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신영우, 「1894년 왕조정부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51, 2009; 홍동현,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문명론적 인식의 형성과 성격」, 『역사문제연구』 26, 2011; 김양식, 「조선·일본군의 충남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진압 연구」, 『군사』 107, 2017.

3 당시 전국 각지에서 행해진 동학농민군의 대응과 학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홍동현, 「1894년 동학농민군의 향촌사회 내 활동과 무장봉기에 대한 정당성 논리: 경상도 예천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0, 2014; 신진희,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동학농민군 진압 사례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김현주, 「1894년 동학·반동학 세력의 '義擧' 선취 투쟁과 지역 사회의 대응」, 『역사와 담론』 93 (호서사학회, 2020). 앞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법적 탄압의 실상과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왕현중, 「조선정부의 농민군 진압 지휘 체계와 진압 과정」, 『「갑오군정실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의 재인식」(2016.10.6. 발표문 참조); 왕현중, 「동학 농민군 지도자 배상옥과 무안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무안동학농민혁명 재조명을 위한 학술대회, 2015. 11.13. 발표문 참조)

인 학살 양상이라는 측면을 부각시켜 이해하고자 한다. 당시 갑오개혁 정부가 전통적인 법률을 무력화시키고 대신에 근대 형법을 제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절한 법률 근거 없이 동학농민군에 대해 잔혹한 형벌로 처형하였다. 이는 신체적인 인명의 존중과 민권을 강조하려고 했던 갑오개혁의 사법 개혁 이념을 연상해 볼 때 도리어 배치되는 측면이 많지 않은가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학농민군의 학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의 양상과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동학농민군 토벌에 가해진 잔학한 처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주목했다. 단지 전투 중에도 많은 동학농민군을 다수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전투 이후에도 생포된 동학농민군 참여자 중에서 지도자급을 선별하고, 이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추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⁵ 그 중에서도 동학농민군 주요 지도자에 대한 ‘효수(梟首) 처형’을 초점으로 하여 검토해 보려고 한다.

우선 본문의 서술에서는 동학농민군 토벌 과정에서 사법적 조치의 변화를 크게 2시기로 나누었다. 2차 봉기의 발발 이후 전국적인 토벌이 이루어진 시기, 그리고 이후 동학농민군 지도자에 대한 재판 시기로 구분해 보았다. 이는 농민군 포로의 처형과 참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양상과 원인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1894년 9월 이후

5 19세기 내내 조선 정부는 민중반란이나 천주교의 탄압 과정에서 지도자들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가하였다. 형사처벌 양상에 대해서는 김성우, 「조선시대의 감옥, 사형, 그리고 사형장의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19 (역사문화학회, 2016); 남호현, 『조선후기 국가의 천주교 대응과 형정(刑政)』, 서강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4; 1894년 농민군 학살의 실태에 대해 박찬승은 학살의 주체로 1) 일본군, 2) 조선 경군과 지방관, 민군을 지목하고 장흥전투 이후에는 대학살이 자행되었다고 단계를 구분하기도 했다(박찬승, 「동학농민전쟁기 동학농민전쟁기 일본군·조선군의 동학도(東學徒) 학살」, 『역사와 현실』, 2004, 45~56쪽 참조).

전국적으로 자행된 탄압 과정은 불법무도한 학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전쟁 수행의 방침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⁶ 다음으로 1895년 근대적 재판소 제도의 수립 이후에도 동학농민군 지도자에 대한 폭력적·사법적 조치가 기존의 양반 관료 지배층과 어떻게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동학농민군의 학살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농민군의 학살이 어떻게 전쟁 수행 방침으로, 그리고 법 제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민중에게 드리워진 전근대적 폭력의 특성을 밝히려고 한다.

2. 1894년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와 계기

1894년 7월 초 전봉준 등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6월 말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충청도 아산전투에서의 일본군 승리 소식을 듣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7월 전라감영에서 무주 집강소에 보내는 통문에서 당시 반응을 찾아볼 수 있다.⁷

1894년 7월 초 6일에 전라도 감영에 전봉준과 그의 학도들은 여러 읍의 집강과 함께 통문을 지어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들의 통문에서는 “말이 실심(實心)에서 나왔으며 사리에 합당하다”고 하였다. 전라감사 김학진은 ‘종전과 같이 소란을 일으키는 자’는 ‘진동학(眞東學)’이라고 하더라

6 왕현중, 『민중을 바라보는 방법』(소명출판, 2024) 제3장 민중운동의 성장과 민중 주체 인식의 변화, 238~289쪽 참조.

7 『수록(隨錄)』 「茂朱 執綱所」(갑오 7월 17일)(『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5)』, 이하 『사료총서』로 통칭, 사운연구소, 278~279쪽).

도 마을에서 힘을 합쳐 관에 바쳐야 하며, 이미 거두어들이는 포, 창, 칼, 말의 수효를 기록하면서 소유한 자의 성명과 거주지를 자세히 적고, 책자를 만들어서 바치게 하였다. 이어 후속된 통문에서는 전봉준 등 동학도가 취한 포와 창 등을 영문에 반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는 다시 통문을 전라도 53개주에 보내면서 동학도를 비도(匪徒)라고 한 부분에 대해 “일부 부랑배들이 동학에 자탁(籍托)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하고 있었다.⁸

이 감결에서는 정확하게 발포 시점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1894년 음력 7월 6일 이후 17일 전후의 어느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 시점에서도 전주화약 이후, 즉 1894년 5월 중순 이후에 수행되었던 관민상화(官民相和)의 협치가 준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

그렇다면 당시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부에서 일본군의 왕궁 점령 사건과 청일전쟁의 초기전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궁금하다. 이에 관해서는 명확한 장소와 시점을 밝혀내기 어렵다. 예컨대 〈전봉준 공초〉에 의하면, 7월에서 8월간으로 부정확하게 표현하였다. 또

8 「甘結五十三州」(開國 503년 甲午 7월), 『草亭集』 12권(중 7권의 「公文」). 해제에는 “甘結五十三州”는 7월 1일경에 발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라감사 김학진과 전봉준과의 협의를 통해 집강소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직전의 감결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감결이 7월 1일에 발포된 것이 아니라 이후 7월 17일 무주 집강소 통문 전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9 최경선 등 40여 명과 함께 7월 6일경 전주로 가서 김학진을 만났다. 그리하여 전봉준은 김학진과 담판 끝에 이때 “觀察使相議 官民相和之策 許置執綱于各郡”이라 하여 다시 한 수준 높여 집강소를 인정받았으며 守城의 임무를 맡기로 하고 전라도 감사로부터 전라도 일대의 행정권을 이양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 김학진은 53주에 내린 감결에서 “今此革舊自新 可見天 彝之良心 自此以後 俱是改過之平民 切勿以舊愆指目”이라 하여 전봉준의 뜻을 적극적으로 긍정함으로써 그의 입지를 강화해 주었다(『수록』 「茂朱甘結」 7월 8일자, 『梧下記文』, 2필 64~65쪽).

한 일본군의 침략 사실을 들은 장소도 전주가 아니라 남원에서 들은 것으로 보인다.¹⁰ 이후 전라감사 김학진과의 교류와 신뢰를 통해서 전라도 일대의 행정권을 함께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때 전봉준의 대응책을 명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다음 사료이다.

[사료 1] 무주 집강소(茂朱 執綱所)

방금 외적이 대궐을 침범하였으며, 임금께서 옥을 당하셨다. 우리들은 마땅히 죽을 각오로 일제히 나아가라. 저들 외적들이 바야흐로 청국의 군사와 함께 서로 대적하여 싸우는데, 그들 군대가 매우 날래고 민첩하다. 지금 만약 갑자기 싸우게 되면 그 화는 예측할 수 없어서 종사에 미칠 수 있을 듯하니, 물러나 잠적하는 것만 못하다. 시세를 본 후에 기운을 북돋아주어서 계획을 실천한다면 만전을 기하는 대책이 될 것이다……(중략)……. 1894년 7월 17일 영하(營下)에서. 좌우도소(押) 도서. 좌우도 도집강(都執綱)¹¹

이 <통문>(7월 17일자)에서 전봉준은 “바야흐로 왜구(倭寇)가 궁궐을 범하여 국왕을 옥보였으니 우리들은 마땅히 목숨을 걸고 의로써 싸워야 한다”고 하면서 사태의 진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화가 종사에 미칠지 (모르니) 물러나 은둔하여 시세를 관망한 연후에 대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이었다. 다시 말하면 세력을 모아 다음 계책을 도모

10 「전봉준공초」에 의하면, 처음에는 “問 日兵之犯闕 聞於何時오 供 聞於七八間月이외다 問 聞於何人고 供 聽聞狼藉 故自然知之외다”라고 하여 누구에게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다음에는 “問 日軍之犯闕 聞於何處何時 供 七月間始聞於南原地”와 같이 남원에서 비로소 확실한 내막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11 『隨錄』「茂朱執綱所」(갑오 7월 17일).

하는 것이 ‘만전지책(萬全之策)’이라고 당부하였다. 7월 말까지는 전라감사와의 약속에 따라 관민상화책에 기대어 농민들이 흩어져 있다가 나중에 기회를 포착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전봉준은 언제 재봉기의 결정을 한 것일까. 어떠한 정치적 상황 변화를 계기로 했을까.¹² 우선 당시 조야의 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갑오개혁 정부는 1차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정책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한편, 각지에서 일어난 민란이나 농민봉기군에 대한 진무(鎭撫) 대책을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었다. 7월 9일 학부협판겸 의원인 정경원이 삼남 선무사(宣撫使)로 되고 26일에는 도헌 이중하가 영남선무사로 되어 선무 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의 활동은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므로 선무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도선무사(都宣撫使)의 파견이 검토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8월 24일에 이르러서는 삼남지방의 농민군에 대한 선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평가로 바뀌었다. 정부의 일각에서는 선유와 진압, 토벌을 겸비하되 토벌에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탄압의 방침을 바꾸려고 하였다.¹³

이에 반대하여 흥선대원군은 이때에도 농민군 토벌에 완강히 반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농민군을 설득하기로 하였다. 대원군은 각지에 소모사, 선무사라는 이름으로 동학도 진무를 가장하여 충청도의 양반 토호와 전라도 농민군 지도자들에게 밀서(密書)를 보내 봉기하도록 촉구하고

12 흥선대원군의 동학 효유문과 밀사에 의한 중앙 정계 동향에 대한 파악은 이후 2차 봉기의 시기와 목표 설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설명도 있지만 이는 간접적인 영향이고, 동학농민군 지도부의 결단에 달린 것이라 할 수 있다(왕현중, 「갑오정권의 개혁정책과 농민군 대책」, 『1894년 농민전쟁연구』 4, 역사비평사, 1995, 502~504쪽).

13 『군국기무처 의안』 개국 503년(1894) 8월 24일, 『일성록』 고종 31, 개국 503년 8월 24일.

있었다.¹⁴ 이는 대원군의 고도의 양면전략, 즉 한편으로 농민군을 효유하는 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농민군의 봉기를 부추겨 이를 이용하여 정권을 잡으려는 정치적 모략을 추진하고 있었다.¹⁵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에 일정한 경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농민군의 재봉기 징후가 8월 말 이후 각 지역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8월 25일 김개남의 주도하에 농민군 5만여 명이 남원에 모여 대회를 열었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공주 근처에서 충청감영의 관군과 대치하고 있었으며, 8월 하순에는 충주 지역에서 농민군이 일어났다. 경상도에서도 8월 하순경 60여 지역에서 농민들이 일어났다고 중앙에 보고되었다. 9월 1일에는 김인배가 이끄는 순천 영호대도소의 농민군 부대가 섬진강을 건너 경상도 하동을 공격하였다.¹⁶ 강원도에서는 9월 4일 영월, 평창, 정선 등지의 농민군 수천 명이 강릉부를 점령하였다.

전봉준은 <사통>(9월 10일)에서 “지금 이런 거사는 몹시 커서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공곡과 공전을 이용해야 하겠으니”라고 하면서, 밤사

14 대원군의 밀서에는, “방금 倭寇가 關內를 범하고 宗社에 화가 미쳐 명맥이 朝夕에 달려 있으니 이러한 시기를 맞이하여 너희들이 만약 不來하면 禍患이 기필코 당도할 터”라고 하였다. 이는 9월 1일 공문장 金基泓의 상소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김홍집, 김윤식, 박정양, 김종한, 안경수, 김가진, 조희연, 권형진 등 ‘8奸이 日本과 符同해서 오로지 賣國하는 謀計를 기도한다’는 탄핵 상소를 올렸다(『관보』 503년 9월 초1일, 초4일자; 『일본외교문서』 676면 문서번호 458의 부속서 「宮門將 金基泓 疏草」).

15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와 흥선대원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이이하,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 『역사비평』 11호, 1990; 양상현, 「대원군과의 농민전쟁 인식과 동향」 『1894년 농민전쟁연구』(5), 역사비평사, 1997; 배항섭, 「전봉준과 대원군의 ‘밀약설’ 고찰」 『역사비평』 39, 1997), 공초의 심문 내용에서 전봉준은 양자의 밀접한 관계성을 명확하게 부인하는 증언을 남겼다(왕현중, 「1894년 농민전쟁 지도자의 재판과 정과 판결의 부당성」, 『한국사연구』 168, 2015, 234~240쪽).

16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東學黨의 檄文 通報 및 情報通知 要請」 1894년 10월 22일 (140쪽).

이 금구 원평의 대도소로 수송하기 바란다고 하여 2차 봉기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¹⁷ 마침내 9월 14일 삼례역에서 800여 명의 부하를 인솔하고 전주 성내로 들어왔다. 이때 삼례에 대도소를 차리고 전주성으로 진출한 것이 2차 봉기의 시작이었다.

3. 갑오개혁 정부의 동학농민군 탄압과 ‘효수’ 참형

1) 조선과 일본의 동학농민군 진압 과정

갑오개혁 정부는 9월 초 시점까지도 전봉준 등 농민군의 동향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에서는 흥선대원군 계열의 정치 공작이 시행되고 있었다.¹⁸ 이어 동학농민군의 동향에 대한 소문은 서울에까지 미쳐왔다.¹⁹

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장위영 영관 이두황과 경리청 영관 성하영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관으로 파송하여 농민군을 초무(招撫)시키려고 하였다. 갑오개혁 정부가 적극적으로 탄압을 확정한 것은 공교롭게도 삼례에서 2차 봉기한 그날인, 9월 14일이었다.

[사료-2] “구월 십사일

상고할 것. 동요(東擾)가 하나같이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중략) 도의 수신

1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行全羅道觀察使 爲騰報事」 1894년 9월 18일(130~131쪽).

18 9월 2일 경무사 이윤용의 해임에 이어 3일 궁문장 김기홍(金基泓)의 정권 퇴진 상소 등이 이어져 갑오 정권의 위기상황이 전개되었다(『갑오실기(甲午實記)』 9월 4일; 『나암수록(羅岩隨錄)』 217, 「수문장김기홍상소」 9월 3일, 394쪽).

19 『속음청사(續陰晴史)』(상) 1894년(고종 31) 9월 7일, 339쪽).

과 읍진 관리들은 진정 협심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초무(勦撫)의 방안을 갖추었으면 저 무리들의 경화(梗化)가 어찌 여기까지 이르렀겠는가. 이제 한편으로 은무(恩撫)를 행하는 것은 불가하니 그치고, 마침내 부득이하게 용무(用武)해야 할 것이다. (중략) 만일 거괴(渠魁)를 잡아들이는 자가 있으면 먼저 영읍에서 중히 논상(論賞)해 주고 조가(朝家)에서는 또한 각별히 녹용(錄用)하도록 해야한다. (하략)”²⁰

여기에서는 군국기무처에서 부득이하게 ‘용무(用武)’의 입장에서 농민군 탄압을 결의한 것이다. 실제 각 지방에 내려보내는 관초(關抄)에서는 진압의 임무를 각 지방 감영·병영에 위임하고 있다. 마침내 9월 21일 호위부장 신정회를 도순무사로 삼아 모든 군사를 지휘하게 하고, 양호순무영(兩湖巡撫營)을 설치하고 순무영 별군관 이규태를 좌선봉장으로, 이두황을 우선봉장으로 삼았다.

한편 일본은 청일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반으로 하여 동학농민군의 토벌 방침을 세우고 조선 갑오 정부를 압박해 나가기 시작했다. 9월 16일 서한을 보내 삼남지방 농민군이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므로 파병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서한에서는 쓰인 표현으로 ‘동학농민군을 국해(國害)로 제거할 방침을 내비추었다. 이틀 후인 9월 18일에는 일본군이 농민군을 진압하는데 갑오정부의 협조를 강요하는 공문을 보냈다. 여기에서 일본은 “조속히 우리의 권고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될 것이다. 이에 다시 조회를 하는 것”이라고 강요하였다.²¹ 갑오개혁 정부는 이제 결정적인 국면에 몰렸다. 중앙에서 정치

20 『관초존안(關草存案)』 「훈령(訓令)」 9월 14일.

21 『주한일본공사관기록』(1), 제202호 「동학당의 재기와 일군의 비도진압에 따라 조선정부의 협조 요청」, 「조회」, 1894년 9월 18일, 132~133쪽(번역문, 원문, 428쪽).

세력 간의 투쟁을 통해 권력 기반이 와해되어 가는 상태이고, 지방에서도 권력적 기반이 취약했으므로 갑오정권은 일본의 강요에 따르는 현실 추수적인 선택을 택했다.²² 갑오정권은 일본의 군사적 압력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에 의존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동학농민군 토벌에 나서게 되었다.

당시 동학농민군 진압의 최고기관은 1894년 9월 22일에 설치된 도순무영이었다.²³ 갑오정부는 초기부터 도순무영의 군사 동원 체제를 주도면밀하게 세워놓지는 못했다. 그로부터 1894년 12월 말에 보고된 양호도순무영의 산하 지휘를 받는 부대로는 8개 부대로 편성되었다.²⁴ 양호도순무영 산하 편제된 장교 및 병정의 숫자는 모두 2,974명 규모였다.

이에 비하여 일본군은 주도면밀한 탄압 계획을 세웠다. 용산에 병참부를 두고 후비보병 독립 19대대를 주축으로 하여 농민군 토벌군을 편성했다. 이들은 1894년 10월 13일(양력 11월 10일) 후비보병 독립 제19대대를 파견하여 10월 15일 용산에서 출발시켰다. 세 방향으로 진격했는데, 동로는 병참선로, 중로는 청주가도, 서로는 공주가도였다.²⁵ 일본군은 각 부대에 소속한 조선의 정예군사 1개 중대를 교도중대로 편성하여 진두지휘했다. 일본군 진압부대는 ‘대일본제국 동학당 정도군’이라는 이름을 내걸었고, 총 2천 7백여 명이었다.²⁶

22 왕현중, 『한국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역사비평사, 2003, 385~386쪽.

23 『갑오군정실기(1)』, 「갑오 9월 22일」, 『선봉진일기』 1894년 9월 21일 「조지(朝紙)와 동일.

24 『양호우선봉일기』 2, 1894년 11월조.

25 「동학당정도약기(東學黨征討略記)」,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1895년 5월).

26 井上勝生은 약 2천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갑오농민전쟁(동학농민전쟁)과 일본군』, 『동학농민혁명기의 동아시아적 책임』,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편, 2002; 신영우, 「1894년 日本軍 中路軍司의 鎮壓策과 東學農民軍의 對應」, 『역사와실학』 33, 2007, 272~273쪽, 재인용), 姜孝淑은 농민군 탄압에 참가하였다는 규모를 제19대대를 포함하여 약 12개

일본군은 초기부터 농민군 토벌일자의 기한을 설정하고 있었다. 즉, ‘(1895년) 1월 28일’을 동학당을 초멸(剿滅)하는 기한 날짜로 삼았다. 당시 일본군은 “동학당에 대한 처치는 엄렬함을 요구한다. 향후 모조리 섬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²⁷ 동학농민군을 전투 과정에서, 포로로 잡힌 이후에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무참하게 살해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렇지만 제1군 사령관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우리 군대가 동비를 초토함에 있어 본래 비적(匪賊)을 귀화시키는 데 주력하여 살육을 함부로 가하지도 않았다. 무릇 비도(匪徒)를 한번 체포했을 경우 그 석방에 대해서는 서로 회동하여 철저히 규명하고 지방관에게 일임시켜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기를 바랐다”고 하였다.²⁸ 이는 자신들의 초멸 기조를 덮기 위해 유화적인 발언에 불과했다. 실제로는 일본군은 관련 동학농민군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조서도 작성하지 않고 재판도 없이 즉결 처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당시 일본군이 동학농민군을 처형하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²⁹

[사료 3-가] 임실은 전술한 바와 같이 모두 동학도이고 오수역(樊樹驛)도 또한 인민 모두가 동학당에 가담하였다. 오수역에 들어가 동학당 5명을 붙잡았다(이 중 접주 1명은 탈주했다). 임실에서 붙잡은 비도(匪徒)도 7~8명 있었

중대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고, 후비보병연대편제표에 의하여 일본군의 수는 2,708명이라고 보았다(姜孝淑, 『제2차 동학농민전쟁과 일청전쟁-방위청 방위연구소도서관 소장 사료를 중심으로』, 千葉大學 大學院, 2005, 27쪽).

27 박종근, 『일청전쟁과 조선』, 아오키서점, 1982, 218쪽(번역본, 일조각, 1989), 참조.

28 「海州東學軍 防剿狀況 및 基本方針의 示明과 拿獲者 會審方針의 周知依頼」(발신 伯爵 井上馨, 1894.11.2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五. 東學黨에 關한 件 附巡查派遣의 件二」 참조.

29 「동학당정도약기」,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위의 글(1895년 5월).

다(임실과 오수역의 거리는 40리 정도이다)…… 우선 인심을 바로잡기 위해
접주 5명을 죽임으로 해서, 인민들은 비로소 동학도에 가담하는 것이 잘못
이라고 깨닫게 된 것 같다. 포로 중 죄가 가벼워서 사면된 자는 14~15명이
되고 대개는 포박했다가 사면했지만, 앞에 쓴 5명은 접주이고 그 죄가 크므
로 총살한 것이다.³⁰

[사료 3-나] 순천(順天)에는 척(賊)이 허다하게 많았었고 성(城) 안에는 그 시
체가 400여 구나 버려져 있었다. 그 까닭을 물었더니, 스즈키(鈴木) 대위(大
尉)가 도달하기 전에 그 지방 민병들이 이들을 죽였다고 하였다.³¹ (중략) 함
장(艦長)은 수병(水兵)을 상륙시켜 좌수영의 비도(匪徒)를 격파하게 되었다
고 하였다.

[사료 3-다] 장흥(長興) 근처에서는 인민을 협박하여 모두 동학도에 가담시켰
기 때문에 그 수가 실로 수백 명에 달하였다. 그래서 진짜 동학당(東學黨)이
잡히는 대로 이를 죽여 버렸다.³²

위의 기록 중 [사료 3]과 같이 장흥 일대 전투에서 많은 비도들을 죽
이라는 방침이 정해졌다. 그래서 진짜 동학당을 잡히는 족족 죽여버렸다고
한다. 이렇게 과도하게 탄압한 이유는 “이는 소관(小官) 한 사람만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훗날에 재기(再起)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다소 살벌하다는 느낌을 살리라도, 그렇게 하라는 공사(公使)와 사령관
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30 위와 같음.

31 위와 같음.

32 위와 같음.

1894년 나주에는 임시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각지에서 붙잡혀온 생포 농민군에 대한 심문과 처형이 이루어졌다. 이곳에는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 지도자들을 조사하거나 이후 일본공사관으로 호송하는 절차를 밟았다.³³ 그리고 나머지 생포된 농민군 중 대다수는 즉결처분으로 처형되었다. 일본군은 동학농민군 토벌을 처음부터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처럼 거짓된 보고를 남기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가혹한 처벌을 하였다.³⁴ 따라서 동학농민군이 일본 및 관군과의 전투 과정에서 희생된 수효는 구체적인 규모조차 알 수 없다. 일반 추정치로는 이규태가 장흥으로 가는 길에 영암에서 2만여 명을 죽였고, 이두황과 이규태 및 일본군이 연합해 해남에서 3만 6천여 명을 죽였다고 한다.³⁵

1895년 2월 28일에는 조선 정부군과 일본군에 의한 동학농민군 토벌 상황을 종료하고 일·한 양군 개선식이 있었다.³⁶ 이렇게 일본군의 농민군 토벌은 1894년 10월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2월 말까지 마감되었던 것이다.

2) 붙잡힌 동학농민군의 사형과 ‘효수’ 참형 처벌

양호도순무영은 1894년 10월 10일에 처음으로 내린 고시문에서 동학 농민군에 대한 사후 처리 방침을 선포하였다. 순무영의 고시문에서는 국

33 강효숙, 「제2차 동학농민전쟁과 일본군」, 『전북사학』 30, 2007, 78~82쪽 참조.

34 강효숙, 위의 글(2009), 453~459쪽.

35 이이화·배항섭·왕현중, 『이대로 주저 앉을 수는 없다-호남 서남부 농민군, 최후의 항쟁』, 해안, 2006, 144쪽; 조경달은 2차 봉기에서 희생된 수를 3만 인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異端の民衆反亂: 東學と甲午農民戰爭』, (岩波書店, 1998) 317쪽 참조).

36 「朝鮮時事-東學黨征討軍의 凱旋」(2월 28일 靑山好惠) 『東京朝日新聞』 1895.3.13. 2면, 2~3단 기사.

왕의 이름으로 동학농민군 “모두를 적자(赤子)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사리에 어둡고 완고하여 다스려지지 않고, 패악을 더욱 심하게 저지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양호도순무영은 붙잡힌 동학농민군 포로 처벌에 대해서도 동학에 협박에 의해서 들어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을 엄격히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① 협박을 받아 들어간 자는 잘못이 없음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주고 원래대로 되돌리게 하며, ② 가장 흉악하고 모질고 교활하여 감히 교화를 거스르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해대면서 난을 선동하고 추악한 것을 믿고 고치지 않는 자는 법에 따라 엄단하고, ③ 갑자기 깨달아서 무리를 흩어지게 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복종하거나, ④ 그들의 우두머리를 포박해서 바치거나, ⑤ 평민을 보호하여 근처에 있는 지역들을 편안하고 조용하게 하고 흔들림이 없게 한 자는 이름을 지적하여 그가 저지른 이전의 과오를 씻어주고 오히려 상을 후하게 할 것” 등 상세한 처벌 방침을 세웠다.³⁷

양호도순무영은 처벌 방침 중에서 동학의 주요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효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³⁸ 이는 동조하는 동학도들에게 경계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죄의 처분을 가혹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이에 따라 동학농민군 퇴조기에 해당하는 1894년 11월 중순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는 미증유의 탄압

37 『갑오군정실기(1)』(번역본), 「훈칙」(1894년 10월 14일), 75~76쪽. 동학농민군에 대한 체포는 진압과정에서 흔히 ‘포로로 잡아[노획(虜獲)]’라는 용어로 쓰고 있다. 이때 노획이라는 의미는 전투과정에서 포로로 생포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예컨대, “추격하여 살해한 자 7명 [追擊殺七名] 포로로 잡아[虜獲] 사살한 자 10명 [虜獲殺十名] 당일”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양호우선봉일기』갑오 10월조).

38 『순무선봉진등록(2)』, 「갑오 11월 초2일」.

과 살해가 저질러졌다. 각 지역 농민군 학살은 사로잡힌 농민군의 처벌이 여러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동학농민군 지도자, 특히 거괴로 지목된다면 이들을 단순히 총살이나 타살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베어 죽이는 효수(梟首)’라는 극형에 처해졌다.³⁹⁾

다음 표는 1894년 2차 봉기에 참여한 동학농민군 지도자에 대한 효수 사례를 모은 것이다.

〈표 1〉 1894년 2차 봉기 시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효수 사례

	날짜	지역	보고	동학농민군 처형 사실(효수)	숫자	출전
1	1894. 9.28	대구	영남선무사 이중하	의흥 반란의 장두 이장학(李章鶴) 효수 요청	1	계초존안
2	10.3	한성	순무영	내일 이른 새벽, 괴수 김내현(金鼎鉉)·안승관(安承寬) 남벌원(南伐院)으로 나아가 효수하는 것이 마땅	2	갑오군정실기
3	10.6.	용인	죽산부사 이두환	거괴 이용익(李用益)·정용전(鄭龍全)·이주영(李周英)·이삼준(李三俊) 등은 양지현에서 효수	4	갑오실기
4	10.8.	진주		괴수(魁首) 임석준(林石俊)을 잡아 곤양군에 들어가서 취초, 오시(午時)쯤에 크게 민인을 모으고 성(城)의 북쪽 시장에서 효수	1	장계, 갑오군정실기, 봉계

39) 조선시대 이래 사형의 참형 형률 적용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대시(待時) 참형’과 군율을 적용하는 ‘부대시(不待時) 참형’으로 나뉘어졌다고 한다(김성우, 위의 논문(2015), 30~32쪽). 원래 『대전회통』 형전 추단조에 의하면, “군문(軍門)에서 효수할 죄인에 관해서는 적(敵)과 임전할 때가 아니면 먼저 자백서(自白書, 拷音)를 받고 다음에 임금의 전지(傳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처형이전에 국왕의 전지(傳旨)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당시 동학농민군의 처형은 명령 계통으로 일반 지방관과 군지휘관 등을 막론하여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공개 처형 효수형을 처하면서 사후에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날짜	지역	보고	동학농민군 처형 사실(호수)	숫자	출전
5	10.11	강령	해영	적당(賊黨)의 접주 3명을 잡아 호수하여 경계한 후에 아뢰(명단 없음-필자 주)	3	갑오해영 비요전말
6	10.11~13.	안성	안성군수 홍운섭	목천접주 박병억(朴秉億)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호수, 10월 13일 민영훈(閔泳勳)·임상옥(林尙玉) 등 2놈을 많은 백성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모두 호수	3	갑오군정 실기
7	10.13.	보은	순무영	접주 백학길(白學吉)을 붙잡아 호수하고 도집(都執) 유홍구(柳鴻九)·윤경선(尹敬善), 접사 이승일(李承一)·우범손(禹範孫)도 즉시 호수	5	순무선봉 진등록, 선봉진 서목, 선봉진 정보첩
8	10.13.	영천		차석의 장두 정기석(鄭基碩), 이승연(李承然) 군인과 백성들을 많이 모아놓고 호수	2	계초존안
9	10.15.	웅진	웅진수영	웅진수영(瓮津水營) 배우배(白佑培) 등 11명과 영교가 잡은 1명은 목을 호수 경계	12	갑오해영 비요전말
10	10.20.	죽산	지평현감 맹영재	죽산의 비괴 박성익(朴性益)·접사 최제팔(崔齊八)·이춘오(李春五)·장태성(張太成) 등 4놈을 모두 호수	4	갑오군정 실기
11	10.25.	공주	선봉진	사로잡은 여섯 놈은 호수(성명 없음-필자 주)	6	순무선봉 진등록
12	10.25.	목천	선봉진	체포한 괴수 김복용(金福用)은 잠시도 용서할 수가 없기에 즉각 호수하고 즉시 본 진영에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1	순무선봉 진등록, 선봉진정보첩
13	10.27.	진주		10월 27일 유시(酉時)쯤 죄인 류효순(柳孝淳)과 김득현(金得賢)을 법에 따라 결안(結案)을 받아낸 뒤 군졸과 백성을 대대적으로 모아놓고 호수, 공초 상송	2	봉계
14	10.29	목천		목천 적괴 김춘일(金春日)·김용희(金龍喜), 진천 괴수 박명숙(朴明淑), 직산의 서성만(徐成萬) 등 4명을 갑오년 10월 29일 신시(申時)쯤에 호수	4	선봉진상 순무사서, 이규태왕복 서병묘지명

	날짜	지역	보고	동학농민군 처형 사실(호수)	숫자	출전
14	10.29	직산	양호도순 무사	비류 14명 중에 괴수(魁首) 김용희(金用喜), 김응서(金應西), 김명준(金明俊), 서성만(徐成萬) 등 네 놈은 갑오년 10월 19일 신시(申時)에 직산을 앞들에서 호수	2	선봉진서 목
15	11.2.	봉평	관동 소모사	본관 영서지역의 비도(匪徒)는 이미 가서 토벌하여 괴수 7명을 잡아서 호수(성명 없음)	7	동비토론
16	11.3	공주 효 포, 대교	영관 홍운섭	몰래 뒤쪽부터 포를 쏘아 이십여 명을 죽였고 여섯 놈은 사로잡아 호수하여 많은 사람들을 경계(성명 없음)	6	갑오실기
17	11.7.	상주	소모영	임곡(壬谷) 동학의 괴수 강선보(姜善甫)와 가리(佳里) 강홍이(姜弘伊) 그리고 영수(靈水)의 김경준은 거접(巨接)으로 용서할 수 없는 죄이므로 강선보는 태평루 앞에서 호수	1	소모일기, 소모사실 (10.19), 갑 오군정실기 소모사실 (상주)
18	11.8.	정선	소모관 정 준시	11월 8일 소모병(召募兵)이 체포한 정선군의 포군 신정숙(辛正叔)·남복흥(南福興)·이상선(李祥善) 3놈은 조사하고 문초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죄를 자복(自服), 호수	3	갑오군정 실기
19	11.8.	평창	소모관 정 준시	평창 북면(北面)의 접주 이문보(李文甫)는 동학의 포덕접주(布德接主)로서 제반 행패(行悖)는 이루 손꼽아 셀 수 없이 많고, 호서의 4개 군에서 비류 5천여 명을 꺾어서 들여와 이처럼 큰 변란을 일으켰으니, 호수하고 경계(警戒)를 보였습니다.	1	갑오군정 실기
20	11.9.	천안	선봉진	난리를 피운 무리 박치홍(朴致弘)은 체포하여 호수 요청	1	순무선봉 진등록
21	11.14.	선산		선산부 성주 윤우식(尹雨植)은 이미 동학의 괴수 3놈을 호수하여 경계	3	소모일기
22	11.14.	용수막	동위영 우참령관	14일 오시(午時)쯤에 용수막(龍水幕)에 행군, 비도의 교수(敎首)로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오가(吳哥)라는 놈을 붙잡아서 즉시 호수	1	선봉진정 보첩

	날짜	지역	보고	동학농민군 처형 사실(호수)	숫자	출전
23	11.17.	해주		강령접주 민경순(閔景淳)·민원장(閔元長)·이제석(李濟石) 등 11월 13일 남문 밖 훈련원에서 군민들을 크게 모아놓고 호수	3	갑오군정실기
24	11.18 (1.7 보고)	순천	우선봉	이달(12월) 12일 좌수영 본부의 좌수 장동렬(張東烈), 호장 장태완(張泰完), 이방 이둔근(李敦斤)을 모두 압송해 가서 18일에 쏘아 죽였다고 한다(1월 7일 앞부분 기사). 지금 호수한 이 세 놈들의 죄목은 온 지경 내에서 다 아는 사실이고, 나라 사람들이 다 죽여야 한다고 여기는 자들이다(뒷부분 기사-필자 주).	3	양호우선봉일기
25	11.21.	해주	황해도관찰사 정현석	접주 김용헌(金溶憲) 등 11놈은 본영에서 잡은 접주 오봉석(吳鳳石)과 함께 16일 신시경에 군민(軍民)들을 크게 모아 호수	12	갑오군정실기
26	11.21 (12.2.보고)	홍주	홍무목사 이승우	최동신(崔東臣), 박윤일(朴允一), 옥출곤(玉出崙), 문학준(文學俊) 등은 모두 본주 출신으로 난적의 전모(前茅)가 되어 성을 침범한 자들이고, 이병호(李炳浩)는 해미 동도의 접주로 해미읍의 무기를 빼앗고 성을 점거한 자이다. 김낙연(金樂璉)은 태안의 아전으로 있다가 퇴직한 자로 그곳 수령을 죽이려고 모의한 자이다. 이달 21일 미시(未時)쯤에 북쪽 성문 밖에서 군사와 백성들을 대대적으로 모아놓고 위에 열거한 자들을 모두 호수	6	갑오군정실기
27	11.9.	수원	수원유수조병직에게 공문	직산비류 황성도(黃聖道)는 기호지방의 거괴이므로 잡시라도 용서할 수 없으니 귀영 수원부에서 즉시 호수	0	선봉진일기
	11.22.	직산	선봉진	직산의 거괴 황성도(黃聖道) 등 4놈, 차과(次魁) 김춘일(金春日) 등 2명, 진천의 비괴 박명숙(朴明叔) 등 2명을 모두 그 자리에서 호수하고, 공주의 달동(達洞)에 사는 접주 장준환(張俊煥)은 즉시 호수	9	갑오군정실기, 갑오실기, 선봉진일기, 선봉진상순무사서(11.8), 선봉진상순무사서(10.29)
28	11.22.	충주		최맹순(나이 42세)은 조정의 명령과 순영의 지시를 어기고 지키지 않았으니 이미 호수하여 경계시킬 죄에 해당	1	갑오척사록

	날짜	지역	보고	동학농민군 처형 사실(호수)	숫자	출전
29	11.22.	강릉	관동소모사	비고 윤태열(尹泰烈), 정창호(丁昌浩) 등 13놈을 잡아서 바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총살하고 한편으로는 호수를 한 뒤에(인원을 알 수 없음-필자 주)	0	갑오군정 실기
			관동소모사	사로잡은 거괴 차기석(車箕錫)과 박학조(朴學祚) 등 두 놈은 이달 22일에 교장(敎場)에서 자리를 만들어 머리를 베어 호수	2	갑오군정 실기
30	11.23.	직산	별군관 최일환	김순천(金順天) 등 네 놈과 또 붙잡은 양성의 접괴(接魁) 이치오(李致五)를 평택현으로 옮겨 가두었습니다. 갑오년 11월 23일 신시(申時)쯤에 인민들을 그 현의 오리정(五里亭)에 크게 모아놓고 아관(亞官)과 함께 참석하여 호수	5	선봉진정보첩, 순무선봉진등록
31	11.23.	해주	황해도관찰사 정현석	황해감영에서 체포한 접주 김기원(金基元)은 11월 18일 신시(申時)에 군사와 백성들을 크게 모아놓고 호수	1	갑오군정 실기
32	11.25.	김산	김산군수 박준빈	이달 25일 민인을 크게 모아놓고 남홍언(南洪彦)과 편사흠(片士欽)은 호수하여 대중을 경각시키고 최복지(崔福只)와 김순필(金順弼)은 곧바로 포살하고 그 나머지 협종은 엄히 곤장 10여 대를 쳐서 효유하고 징계하여 방면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2	소모사실, 별계
33	11.29.	공주	충청병사 이장희	압송하여 온 비류 이천악(李千岳), 김천일(金千日), 강자중(康子仲), 서학성(徐學成), 임원일(林元日), 강응서(康應西), 김완성(金完成) 등 7놈 및 접사 김응구(金應九) 등은 이달 29일에 이들 모두를 호수하였으며,	8	갑오군정 실기
34	11.30.	고산	소모된 전동석	지난달 30일에 고산에 도착하여 비류의 접주 최성호(崔成浩)를 호수	1	갑오군정 실기
35	12.1.	무장	우선봉	무장에 이르러 숨어 있는 동도 괴수 42명을 잡아들여 그 중 김경운(金景云)이란 자는 행패가 극악한 자라 그 자리에서 호수	1	양호우선 봉일기

	날짜	지역	보고	동학농민군 처형 사실(효수)	숫자	출전
36	12.1.	공주	선봉진	장준환(張俊煥)은 잠시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진 앞에서 효수	1	선봉진일기, 이규태 왕보서병묘지명(11.3)
37	12.1.	평산	평산부사 이창렬	본부에서 10여 명의 비류를 잡아 가두었는데 그 중 거괴와 접주 8명은 먼저 즉시 효수(성명 없음)	9	갑오군정실기
38	12.3.	음죽	음죽현감 김종원	동도의 거괴(巨魁) 이기영(李基榮)은 비괴라는 점을 이미 자백하였으니 군민을 크게 모아 효수	1	갑오군정실기
39	12.3.	광주	전라도	광주(光州) 괴수 전수지(全秀志)와 동당(同黨) 3명을 초 2일에 체포, 진영(鎭營)으로 압송하여 효수	4	전라도각읍 소찰동도수 효급소획잡 물병록성책
40	12.3.	전주	전라감사 이도재	3일 신시(申時)쯤에 서교장(西教場)에 군민을 크게 모아 (비도를) 효수하여 사람들을 경계한 뒤에 머리는 껍짝에 넣어 도순무영(都巡撫營)에 올려보냈으며, 나머지 3놈은 경중을 나누어서 처분하여 급히 아뢰고, 그 머리들은 껍짝에 넣어 올려보냅니다.....적괴 김개남(金介男)을 효수하여 사람들을 경계한 일은 이미 급하게 보고하였습니다.	4	갑오군정실기
	12.13.	전주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적의 두목 김개남은 사로잡은 후에 죄인 호송 수레로 서울로 압송하여 조사하고 사형에 처해야 하나, 해도(該道)에서 조정의 명령도 기다리지 않고 앞질러 효수하였다. 설사 중도에서 빼앗길 염려가 있더라도 경솔히 함부로 처단한 것은 극히 놀라운 일이니, 전라감사 이도재에게 월봉 2등의 별전을 시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0	갑오실기
41	12.5.	장성	선봉진	정읍 비류의 거괴 손덕수(孫德秀), 손화중 부대의 곤장 치는 사람인 정정칠(丁正七)과 본부 아곡(鵲谷)에서 잡아들인 괴수 이봉학(李奉學) 등 세 놈을 어제 오시경에 군인과 백성을 장대(將臺)에 대대적으로 모아놓고 ‘부대시참형(不待時斬刑)’으로 효수	3	순무선봉진등록, 갑오군정실기

	날짜	지역	보고	동학농민군 처형 사실(호수)	숫자	출전
42	12.6.	공주 대 전	충청병사 이장희	비류(匪類) 이천악(李千岳) 등 일곱 놈과 접사(接事) 김응구(金應九) 등을 많은 군민들을 모아 호수	8	갑오실기
43	12.8.	광양	광양현	영호대접주 금구 김인배(金仁培) 호수, 순천 유하덕(劉夏德) 초8일 호수	2	광양현포착 동도성명성책
44	12.8.	남원	소모관 전 동석	호남도공사관(湖南都公査官) 이사명(李士明)과 청림도사(靑林道士) 임광희(林光熙), 도접주(都接主) 최진락(崔陳樂), 최한일(崔漢一), 황내문(黃奈文), 변홍두(邊洪斗), 구창석(具昌錫), 이금용(李金用), 김순복(金順福), 전태중(全台仲), 이인종(李仁宗) 등 11놈을 붙잡아 12일에 군민을 크게 모아 호수	11	갑오군정실기
45	12.10.	진주	진주목사	삼남도성찰(三南都省察)인 익산포(益山包)의 괴도 김상규(金商奎)와 문쌀순(文耒順), 박범이(朴凡伊) 등을 읍에서 잡아 가두었고, 김상규는 전후에 그가 벌인 흉악한 짓을 이미 자백했기 때문에 그날로 읍의 장사에서 호수	1	갑오군정실기, 별계
46	12.11~12.	순천	순천부	이우회(李友會), 수영 진중에서 11일 호수, 서면(西面) 접주 김영구(金永九) 수영 진중에서 12일 호수, 별량면(別良面) 접주 김영우(金永友) 월등면(月燈面) 접주 남정일(南正日) 수영 진중에서 12일 호수	4	순천부포착동도성명성책
47	12.12.	상주		상주목사 이만윤(李晩胤)과 함께 4거리에서 개좌(開坐)하여 이득이(李得伊)와 박기봉(朴起奉)은 호수하고, 권화일(權和一) 등 5놈은 그 자리에서 총살	0	소모사실(상주), 소모일기
	12.14.	상주	상주소모영	남촌(南村)의 거괴 4놈이 9월의 변고 이후에 호서로 도망가서 최적(崔賊) 및 이괴(李魁)와 함께 몰래 무리를 모아 무주로 가서 오늘의 화를 조성, 당일 오시에 문루(門樓)에서 개좌(開座)를 하여 이들을 모두 호수.....본 고을의 동도(東徒)로서 법망을 빠져나간 거괴(巨魁)인 최인숙(崔仁叔), 윤경오(尹景五), 김순녀(金順汝), 전명숙(全明叔) 등 4놈이 적의 경보가 다급한 때에 그들의 목숨을 잡더라도 살려둘 수가 없어서 오늘 오시(午時)에 본주의 목사와 함께 군문에서 개좌하여 모두 호수	6	소모일기, 소모사실(상주), 갑오군정실기

	날짜	지역	보고	동학농민군 처형 사실(효수)	숫자	출전
48	12.13.	서산	참모관 별 군관	서산군수 성하영 진(陣)의 참모관인 권 중석(權鍾奭)과 별군관 유석용(柳錫用) 의 첩정에 의거하면, 한산과 서천에 있 는 비적의 거물급 괴수를 추적해 잡아 효수(숫자 성명 미상·필자 주)	0	선봉진서 목
49	12.14.	무안	선봉진	배상옥(裴相玉)·배규찬(裴奎瓚) 형제 는 그 마을의 거괴일 뿐 아니라 하도 연 해 지역의 괴수로 불리던 자로서, 전봉 준·김개남·손화중·최경선 등의 적보 다 못하지 않는다. 배상옥은 법망을 피 해 도주하였고, 배규찬은 체포하여 잡 아 가두었기 때문에 군민을 대대적으로 모아놓고 효수	1	순무선봉 진등록
50	12.14.	이천	이천부사 남정기	비도의 접사(接司) 조용이(趙龍伊)를 추적하여 붙잡았다고 하였으므로, 관 부의 동쪽에 있는 1리로 압송하여 와서 효수	1	갑오군정 실기
51	12.15.	나주		본주의 인사가 최경선을 경상(境上)에 서 목을 베어 7월에 성을 범한 죄를 성 토해야 한다고 청하였다. 경군 선봉이 말하기를 “이 3인은 모두가 나라의 적이 다. 마땅히 경사(京師)에 끌고 가서 고 가(藁街)에서 효수하여 경계를 삼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0	금성정의 록
52	12.23.	장성	장성도호 부사	본부 경내에 있는 공기로(孔基魯), 김종 익(金宗益), 이기주(李基周), 공치환(孔 致煥), 남나구(南羅九), 이궁궁(李弓弓), 한덕일(韓德一), 김사문(金士文) 등은 모두 비도의 큰 악질로서장날 거리 에서 사람들을 크게 모아놓고 공기로, 김종의 등 두 놈은 효수하고, 이기주, 공 치환, 남나구, 이궁궁, 한덕일, 김사문 등 여섯 놈은 처단	2	선봉진정 보첩, 순무 선봉진등 록
53	12.23.	광양		송덕언(宋德彦)과 손인석(孫仁碩) 등 두 놈은 모두 양호의 거괴였으므로 12월 23일에 군민을 크게 모이게 한 뒤 효수	2	별계

	날짜	지역	보고	동학농민군 처형 사실(효수)	숫자	출전
54	12.24.	상주		이달 22일에 상주목사 이만윤(李晩胤)과 함께 군문에서 개좌하여 박효식은 효수하고 김홍업 등 9명은 총살, 전오복 등 세 놈도 이달 24일에 군문에서 개좌하여 총살. 나머지 죄수들 가운데 전혀 의혹이 없는 자들이 36명. 처벌하지 않고 귀화하여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라는 뜻으로 일일이 효유하여 석방	1	소모사실(상주)
55	12.24.	천안	천안군수 김병숙	저자거리에 군민(軍民)을 크게 모아 정정이는 효수, 정정용은 본부 군의 감옥에 갇혀 있는 비괴 김종칠(金仲七)과 함께 처형	1	갑오군정실기
56	12.25.	남벌원	순무영	비적의 괴수인 성재식(成在植)과 최재호(崔在浩)와 안교선(安敎善)은 그날로 남벌원에서 효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고, 김개남(金介男)의 머리는 서소문 밖 네거리에 매달았다가 3일 후에 김개남과 성재식의 머리를 경기 감영에서 소란을 일으킨 지방에 조리를 돌리게 하였다.	3	갑오실기, 갑오군정실기
57	12.25.	낙안	낙안군수	본 군의 동면(東面)에 사는 이수희(李守喜)도 이달 25일에 본 군으로부터 경내로 잡아들여 효수	1	순무선봉진등록, 선봉진정보첩
58	12.27.	장성	장성군수 소모사	사당(射堂)에 진열하여 있는 호위병이 매우 성대하였고, 강계중(姜桂中)은 참하여 효수하였고, 강서중(姜西中) · 손경서(孫敬敍) · 정별장의 조카(鄭別將姪) · 손학모(孫鶴模) · 공치광(孔致光) 등 16인은 총을 쏘아 죽여 17인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	1	봉남일기
			선봉진	이달 27일 읍의 장날에 거리에 백성을 대대적으로 모아놓고 강일음(姜日陰)을 효수	1	순무선봉진등록
59	12.27.	낙안	좌선봉	보성에 사는 안규복(安奎馥)은 본래 동도의 거괴로서 접주 · 집강으로 불리며 가까운 읍에서 크게 행패를 부린 자로 이달 27일에 본 경내로 잡아들여 효수	1	순무선봉진등록, 선봉진정보첩

	날짜	지역	보고	동학농민군 처형 사실(효수)	숫자	출전
59	1.2.	낙안	선봉진	본군 경내의 거물급 괴수인 강사원(姜士元), 안귀복(安貴福), 이수희(李秀希) 등 세 놈은 개남(介南, 金開男)의 적이 청주를 가서 범할 때에 '선봉진(先鋒陣)'이라 칭하며 비당을 이끌고 수창(首倡)하여 앞에 가서 소요를 일으킨 놈입니다. 또한 조종하여 각별히 그를 잡아서 효수	2	선봉진정 보첩
60	1.2.	전라 좌수영	만경현령	접주 진원필(陳元弼)·박봉관(朴奉寬)·홍인영(洪仁永) 세 놈은 순무영의 회답에 의하여 당일 효수하여 경계	3	양호우선 봉일기
61	1.6.	광양	전라 좌수영	광양현 백양동(白楊洞)에 이르러 괴수의 한 사람인 정홍서(丁弘西)를 포박, 이를 효수	1	주한일본 공사관 기록
62	1.11.	흥덕	흥덕현감	동적 거괴 정읍의 차치구(車致九)는 답신의 지시에 의거하여 당일에 군민(軍民)을 크게 모아놓고 효수하여 군중들에게 경계	1	양호우선 봉일기
63	1.19.	보성	전라 좌수영	보성군 방면의 동학도 거괴인 양성좌(梁成佐)·허성보(許成甫)·허용범(許用範)과 장흥 방면 동학도 거괴인 김보열(金寶烈)·김성한(金成漢)·정덕침(鄭德欽)·김시언(金時彦) 및 구자익(具子益) 등을 포박, 19일 이들을 효수	8	주한일본 공사관 기록
합계	총 63건				213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효수 사례는 1894년 9~10월까지의 14건에 불과했으나 11월에는 20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12월에는 25건이고, 1895년 1월에는 4건으로 줄어들었다. 지금까지 제시된 관련 기록을 통해서 당시 효수된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총수는 무려 213명이나 되었다. 참형으로 처형된 자는 거의 대부분 실명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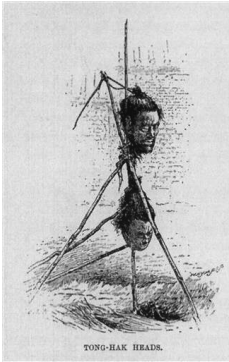
먼저 주목되는 첫 번째 특징으로는 동학농민군 지도자 및 참여 농민

군의 처벌은 전투 이후 생포된 자를 중심으로 취조하는 과정에서 그 등급을 나누었다. 가장 극형은 효수였고, 다음은 총살, 그리고 타살(打殺)이라는 형태였다. 지도자급과 참여자의 구분은 자의적이었다. 전국 각지의 효수 처형은 주로 정부군 등과 농민군이 1차로 격전을 치른 후 생포된 동학농민군의 잔당 중에서 선별되었다. 즉, 취조와 추궁 등을 통해서 대접주, 거괴 등을 추려내는 과정을 거쳤다. 예컨대, 광양현에서의 농민군 처형에 대해 광양현 공형(公兄)의 <문장(文狀)>에서는, “이달(12월) 7일에 본 읍의 이교(吏校)와 노령(奴令) 및 민포(民砲)가 일제히 힘을 합쳐 동도 중에서 영호대접주라고 하는 금구의 김인배(金仁培)와, 수접주라고 하는 순천의 유하덕(劉夏德) 및 도당 40여 명을 잡아 김인배와 유하덕은 바로 목을 베어 대소민인(大小民人)에게 경계(警戒)를 하였고, 나머지 놈들은 모두 쏘아 죽였다”고 보고했다.⁴⁰ 이처럼 영호대접주라는 금구 김인배, 수접주 순천의 유하덕의 경우에는 효수형을 당했고, 나머지 사로잡힌 도당 40명은 총살을 당했다(위 표 43번 광양현 사례). 그러니까 생포된 동학농민군 지도자들 중에서 살아 있는 신체에 참형을 가해 효수형을 자행한 것이다.

다음으로 효수형을 실행하는 과정의 공통된 두 번째 특징은 공개재판과 공개처형을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우선봉 이두황(李斗璜)이 농민군의 토벌 임무를 띠고 중로전선 지역 여러 지역을 정토하고 있었다. 그는 홍양현 지역에 와서 동학 거괴 유봉만 등 일단의 동학군

40 『양호우선봉일기』(갑오 12월 12일 보고); 『양호우선봉일기』(갑오 12월 10일 보고) “14일에 떠나 30리 길을 가서 순천읍에 주둔하여 그 성에 들어가서 보니 이리저리 널려 있는 적의 시신이 150여 구가 되었고, 아전과 백성이 들고일어나서 적을 죽이고 성을 회복한 데다가 각 면의 마을이 점차로 의병을 일으켜서 적을 죽인 것이 많았다.”(12월 18일 기사).

재판을 실시하고 ‘장사에서 군민대회를 열었다[當日開座場市大會軍民]’고 하였다.⁴¹ 공개재판을 통하여 동학 혐의자의 죄상을 공개하여 대중의 적대감을 고취함과 동시에 참형인 효수형을 행사함으로써 극단적인 충격 효과를 노렸을 것이다.⁴²



〈그림1〉 1894년 12월 서울 서소문에서 참형으로 처형된 동학군 지도자 모습, 수원 동학농민군 지도자 김내현과 안승관으로 추정 (Bishop, Isabella Bird, Korea and her neighbors (volume2), p54, 1898, London)

〈그림2〉 일제하 일재(一齋) 김윤보(金允輔, 1865~1938)가 그린 형정풍속도의 일부, 역적참향(逆賊斬項)의 모습, (『형정도첩』 김윤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출처: 공공누리)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해당 고을의 장사에서 법정을 열어 즉결 처단하는 수순을 밟았다. 이후 계속해서 보고된 첩보류(牒報類)에서 반복되어

41 『양호우선봉일기』(갑오 12월 19일 보고).

42 전라도 홍양현에서는 장사에서 법정을 열어 사로잡힌 동도의 거괴 유봉만(劉奉滿) 이하 10명을 총살한 후, 다시 거괴와 추종자 등 3명의 머리를 나무상자에 담아 좌수영에 바쳤다(『양호우선봉일기』(1895년 1월 1일 보고). 이 사료는 위의 63개 효수 사례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시신에 다시 훼손한 만큼 잔인하게 처형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사료이다.

언급되는 ‘개좌(開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공개재판을 치르지 않은 채 공개처형에 처했다는 통과적인 절차에 그쳤다. 이는 정식의 재판이 수행되지도, 합리적인 처결도 존재하지 않은 그야말로 폭압적인 ‘즉결처형장’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농민군의 진압 과정에서 지방에 따라 행해진 재판과 처벌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가혹했는지는 순천 지역의 사례에서 그 일단을 알 수 있다. 1894년 12월 12일에 좌수영 본부(本府)는 동도 괴수 및 수중자 1백 50여 명을 잡아들였다. 이후 좌수 장동렬(張東烈), 호장 장태완(張泰完), 이방 이돈근(李敦斤)을 모두 압송해 가서 18일에 쏘아 죽였다고 했다.⁴³ 그렇게 되자 1895년 1월 4일 첩보에서 순천부 수향공형(首鄕公兇)의 요청으로 이들이 어떤 죄목으로 죽임을 당했는지 탐문하여 보고하라고 했다.⁴⁴

그렇지만 이 범죄 사실조사는 이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사후보고에 불과했다. 따라서 사건의 진상은 이랬다. 위의 혐의로 처벌된 3명의 관속은 사실 좌수영이 압송해서 한 번도 문초하는 일 없이 형틀을 씌우고 감옥에 가두었으며, 같은 달 18일에 갑자기 그대로 쏘아 죽여 처형된 것이었다.⁴⁵ 그리하여 그들이 어떤 죄목으로 죽었는지는 순천부에서 알 수 없게 되었다. 19일에 순천부의 관리들도 좌수영에 보낸 전령에서는 해당 사건의 진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가운데 ‘숨어 있는 비류들을 계속하여 정탐하고 잡아들여 말끔히 쓸어낼 계획’이라는 토벌의 당위성만을

43 『선봉진정보첩』, 「순천부 공형 문장」(개국 503년 12월 27일)

44 『양호우선봉일기』, 「좌도수군절도사(左道水軍節度使)가 보낸 공문서」(1895년 1월 7일 보고).

45 『양호우선봉일기』 (1895년 1월 7일 보고).

강조할 뿐이었다.⁴⁶

이후 1895년 1월 중순에 양호우선봉에 올린 <첩보>에 의하면, 동학농민군 토벌과 관련하여 12월 17일에 고창에 주둔해 있던 교장 홍선경이 “잡아들인 거괴 손화중(孫化中)·홍낙관(洪洛寬)·서천일(徐千日)을 압송해 왔다. 그래서 곧바로 나주로 압송하였다. 또한 일본 진영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죄인 등 도합 94명도 같이 나주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죄인 등의 성명을 수정한 후 책자로 만들어 일본군 진영 대대에 올렸다’라고 간단히 보고하였다. 이어 순천부는 지난 12월 30일, 94명 중에서 73명은 일본 진영에서 쏘아 죽였다. 이후 ‘각처에서 획득한 돈·곡식·군기와 죽인 죄인들의 성명을 아울러 수정한 후 성책하여 급히 보고하라’ 하였기에, 이렇게 성책하여 올린다고 하였다.⁴⁷ 당시 『순천부포착동도성명성책』에 의하면,⁴⁸ 이때 처형된 자에 대해 정우형 포살(12월 6일), 이우회 효수(11일), 권병택 포살(12일), 서면 접주 김영구 효수, 병량면 접주 김영우, 월등면 접주 남정일 효수(12일), 송광면 성찰 김배옥 등(포살) 등 다양했고 심지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94명은 ‘때려서 죽임[打殺]’에 이르게 했다. 이상 112명에 대해 조사, 재판, 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과 동시에 처형이 공공연하게 자행된 것이다.

이처럼 순천부의 처벌 사례를 확장해 보면, 전국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나 조회 없이도 자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당한 재판 과정

46 『양호우선봉일기』(1895년 1월 15일 보고).

47 『양호우선봉일기』, 「군무아문에 첩보(牒報)」(1895년 1월 12일 보고).

48 12월 6일부터 순천부 쌍암면(雙巖面)의 영호도집강(嶺湖都執綱) 정우형(鄭虞炯)을 비롯하여 동촌면(東村面)·서면(西面)·별양면(別陽面) 등의 접주와 성찰·마부와 광주 성찰 박현동, 운봉 서기 오준기, 경상도 양산 접주 황두화 등 18명에 대한 총살·효수(梟首)·장방(長房) 수감 등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였다.

없이 그리고 즉각적으로 참형과 사형을 위주로 한 동학농민군 지도자 및 참여자의 처벌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4. 갑오개혁 정부의 사법 개혁 조치와 농민군 재판의 편파성

1) 갑오개혁의 사법제도 개혁 이념

갑오개혁은 1894년 6월부터 조선왕조의 낡은 재판제도와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였다. 군국기무처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6월 28일 갑오개혁 정부는 행정부서의 개편을 시도하여 법무아문을 설치하였고, 이듬해 법부로 개칭하여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7월 8일에는 “모든 죄인은 사법관이 재판 명정(明定)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죄벌을 줄 수 없게 하여” 사법권의 독립체계를 확보하였다. 구래의 법령들과 신규 법령들이 서로 뒤엉켜 법률 적용에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어 이후 일련의 법률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각종 사법기관 및 사법제도의 근대적 면모를 갖추는 제법령을 제정 시행하였다.⁴⁹⁾ 초기에는 법부령으로서 각급 재판소의 설치와 직원에 관한 법률이 주로 반포되었다. 또한 재판 운영에 관한 법률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여, 민사 및 형사에 관한 소송법이나 각종 처벌에 대한 규례 등이 제정되었다.⁵⁰⁾

1894년 12월 13일에는 고종은 중앙과 지방의 신사와 백성들에게 종묘

49 도면회,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법령 제정과정-형사법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27, 2001, 331~32쪽.

50 『한말근대법령자료집(1)』 법률 1호~17호, 법부령 1~9호, 법부고시 1~3호 참조.

서고문 행사에 이어 윤음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려면 그것은 사실 오랜 폐단을 바로잡고 실속 있는 정사를 잘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14개 조항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민법과 형법을 엄격하고 명백히 제정하여 함부로 감금하거나 징벌하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민법 개혁의 방향성이 모색되었다.⁵¹

당시 법무대신 서광범은 법무아문 임시 재판소로 이름을 고치고 여러 가지 재판을 관장하게 하였다. 또, “무릇 형구(刑具) 중에서 가혹한 형구는 사형죄 외에는 모두 쓰지 못하게 하며 형(刑)으로는 단지 태형(笞刑)만 적용하고, 가두는 데서는 단지 칼을 씌우고 족쇄를 채울 것”이라 하여 가혹한 형구 사용을 제한하였다.⁵²

한편 1894년 12월 27일 고종은 별도의 조칙을 내려 동학농민군 토벌에 대한 진압 활동을 중지시켰다. 먼저 “남도(南道)의 비적(匪賊)들이 차례로 평정되어 가니 순무영을 없애고 토벌에 나갔던 장수와 군사들은 모두 군무아문에서 절제(節制)하여 나머지 비적들을 수일 내로 없애거나 붙잡게 하라”고 하였다. 이어 일본 병관(兵官), 군사들과 각진(各陣)의 선봉부대, 중앙과 지방의 장수들과 군사들이 있는 곳에 빨리 가서 위문하고 호궤(犒饋)하고 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는 9월 중순 이후 동학농민군 토벌을 담당한 순무영이나 일본군을 비롯한 각군의 동원을 전격 중지한다는 선언이었다. 이어 “일체 사형죄에 대하여 능지처참(凌遲處斬) 등의 형률(刑律)을 이제부터 폐지하고 법무아문에서 형벌하는 것에는 교수형(絞首刑)만 적용하고 군율(軍律)에 의하여 형벌하는 것에는 총살

51 왕현중, 앞의 저서(2003), 227~228쪽.

52 『갑오실기』 갑오년 12월조, 참조.

만 적용하라”고 하였다.⁵³

이 조치는 그동안 갑오개혁의 근대적 사법제도의 일환으로 크게 주목해왔다. 이 칙령이 발포된 시점에 주목해 보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학농민군의 지도자에 대한 처벌 과정에서 무려 200여 명의 희생을 치른 후였고, 12월 27일 이후 1월에도 여러 차례 효수형이 거행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동학농민군에 대한 가혹한 학정을 사후에 덮어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1895년 4월부터는 법률 1호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을 정식으로 공포하여 사법권 독립과 근대적 재판 과정을 제도화하였다.⁵⁴ 재판소는 지방재판소, 한성재판소 및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 특별법원의 5종으로 구성되었다. 재판소 제도의 실시로 말미암아 근대 법 체계 일반과 운영 방식이 갖추어졌다.

〈표2〉 갑오개혁 시 주요 법률 제정(『법부청의서』를 중심으로)

일자	제목	주요 내용	비고
1895. 4.16.	유형분등 (流刑分等)	유형을 3등으로 나누고 1등 유종신(流終身), 2등 유15년, 3등 유10년 ⇒ “유3천리는 유종신, 유2천5백리는 유15년, 유2천리는 유10년으로 정함”	양반 관료의 처벌 수위 낮춤
4.29.	법률 7호 징역처단례	도형(徒刑)-징역, 유종신- 종신, 유15년 -15년, 유10년 -10년, 도3년 -3년 등 이하 차감하여 제정됨. 제2조 국사에 관한 범죄는 유형을 두고, 도형을 징역으로 바꾸어 취역(就役)을 면함.	

53 이것은 칙령 30호로 ‘대벽(大辟-사형제도)의 처참(處斬)·능지(凌遲) 등 형률은 폐지하고 법무 행정(行刑)은 교(絞)만을 사용케 하고 군율(軍律) 행형(行刑)은 포(砲)만을 사용케 하다’는 내용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관보』 갑오 12월 27일 기사 참조).

54 『한말근대법령자료집(I)』, 法律 제1호 「재판소구성법」 개국 504년 3월 25일, 190-198쪽.

일자	제목	주요 내용	비고
4.29.	8호, 고등재판소 수리 지방재판소 불복상소	감영 유수영 및 기타 지방재판의 상소를 고등재판소에서 수리 심판.	
윤 5.10.	지방재판소 개설	개항장재판소와 지방재판소는 개국 504년 윤 5월 15일부터 점차로 개설, 인천재판소 등 22개소	종래 감영 유수영 기타 지방 관아 재판 사무는 폐지
6.12.	주청사형(死刑)	살인 및 강도 죄인의 사형에 처할 자는 추청함이 가부(可否)	
6.27.	죄인석방안 (27호)	개국 504년 4월 1일 이전 전죄인 참량 방식 청의서- 모반과 살인, 절도와 강도, 통간(通奸), 편재(騙財)를 범한 죄인 외에 일체 방석, 징역에 처한 죄인은 법부대신이 참작 수속(收贖)하는 칙령안(기안 6월 20일)	유길준의 석방안과 달리 모반, 살인 등 중대범죄, 강도 통간, 편재 등 일반 잡법도 석방하지 않는 서광 범안이 통과됨.
11.13.	모반죄인 박선 등 처교안	모반죄인 박선, 이주희, 윤석우 등 고등재판소 엄척심리 8월 20일 사변에 가담 혐위(법부대신 서리, 법부협판 장박). 하오 11시에 좌각옥 교육에서 사형 집행	모반죄 사형 집행(11월 15일 하오 1시 좌각옥서 교육(絞屋)에서 시행(을미사변 조선인 주모자로 처벌)
1896. 1.11.	각군수청리관 내 소송	지방 편의에 따라 각해 군수로 해관 내 일체 소송을 청리케 함이 합당(칙령 5호).	이후 각부 관찰사를 각 재판소 판사로 임명함(1.18).
2.16.	죄인 민영준 민형식 조율상주	죄인 민영준, 민형식 고등재판소에 나치 사행. '대전회통 금제조 호강품관능학백성자장 1백, 유3천리 처함.	법률 6호로 징역종신으로 바뀌었으나 정상 작량 2등으로 감해 징역 10년에 처함.
4.4.	적도처단례	법률2호 적도처단례 제정, 범죄에 따라 교형, 태형 후 역형(役刑), 역형, 태형 등으로 세분화.	총 20조로 반포일로부터 시행함을 명시함.

참고 : 『법부청의서』(1895~1896) 1책, 『의주(議奏)』 54책, 법률 제2호, 「적도처단례」, 20~21쪽.

이에 따라 지방재판소는 일체의 민·형사재판을 관할하고 단독 재판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합의 재판을 둔다고 하였다. 또한 재판소 제도하에서는 종래 단심으로 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등재판소에서

상소 사건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고등재판소는 재판장 1인, 판사 2인의 합의재판제를 취하여 한성 및 인천항재판소의 상소만 수리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각지방에 소재한 지방재판소의 상소는 순회재판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국가가 처음으로 근대식 재판제도를 시작하였으므로, 향후 시민의 생명과 권리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재판제도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⁵⁵

그럼에도 1894년 12월 이후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자들은 여러 차례 심문과 재판을 받았다. 당시 법무아문의 권설재판소에서 재판을 담당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개입하고 전과정을 주도하였다. 선고 판결에서는 반일농민전쟁의 죄목이 아니라 구래 대명률에서 규정한 반란죄로 규정되었다. 1895년 4월 신식 재판소 제도의 실시가 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오정권과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3월 30일 동학농민군 지도자 5명을 전격적으로 처형해 버렸다.

농민군 지도자의 처형 조치는 조선 갑오개혁 정권의 반민중적, 친일적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일본이 농민군의 처형과 법률적 처단의 공동 법적 책임을 갖게 되었다.⁵⁶ 이때는 재판소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시기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농민들을 학살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근대적인 법률과 재판 운영을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학살을 제한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다. 이렇게 근대 재판제도의 초기시행에도 불구하고

55 도면회는 『대명률직해』 형률 도적편 약인약매인조(略人略賣人條)와 「적도처단례」 제8조 7항의 위 조문을 비교하였다. 그는 규정상 양인, 노비로 표현된 부분이 모두 ‘인가 남녀’, ‘고용’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노비의 인격적 독립을 지향하는 형사정책으로 높이 평가하였다(도면회, 「갑오개혁기 형사법규의 개혁」, 『규장각』 21, 1998, 15~18쪽; 도면회, 『한국근대형사재판제도사』 푸른역사, 2014, 151~155쪽).

56 왕현중, 앞의 논문(2015), 252~253쪽.

하고 동학농민군에 대한 재판 배제라는 불공정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수많은 동학농민군에 대한 과도한 희생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렇게 갑오개혁의 근대 법제 시행 자체에만 의미 부여하면서 1894년 하반기 동학농민군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가졌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2) 1895년 이후 동학농민군 지도자와 참여자의 처벌

1895년 4월 이후에도 동학농민군에 대한 법적 조치는 전국 각지에서 농민군에 대한 과도한 탄압과 처벌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조선 정부의 형사집행과 관련된 『정배안(定配案)』에서 실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1894년 이후 유배된 자의 죄목과 유배지 등을 기록한 자료이다.⁵⁷ 당시 각 지방관의 비리와 횡령에 대한 사후 처리를 담고 있다. 예컨대 경상도 금산군에 유배된 이용태(李容泰)의 경우, 1894년 4월 21일 승정원 전언에 의하면, 유배형에 처한 것으로 “고부 안핵사로 전내의 명을 받아 안핵(按覈)하라는 법의(法意)가 있었지만, 아무런 사계(查啓)도 하지 않고 오히려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유배형으로 처분하였다.⁵⁸

경상도 거제부에 안치된 김문현(金文鉉)의 경우, 5월 14일부터 승정원의 명에 의해 위리안치(圍籬安置)하여 가극(加棘)의 벌을 받았다. 주된 이유는 그가 전라감사로 있으면서 농민봉기를 막지 못하고 도리어 전주성을 버리고 월경했기 때문이었다. 그해 5월 20일에 이설(李僎)이 부패관료의 처벌을 가중처벌하라는 상소로 말미암아 가중처분된 것이기도 했

57 원 제목은 『도유배안(島流配案)』(1책)이며, 내지에는 ‘정배안’이라고 했다. 1895년 3월 경에 작성하여 이후 과정을 기록하였다.

58 『계초존안』 1894년 9월 30일조.

다. 고부군수 조병갑에 대해서도 5월 17일 엄형 1차로 신장(訊杖) 30도 후에 원악도 안치의 죄를 처분하였다. 이어 조만승, 민영준 등 수많은 부패 관료들이 그해 말까지 계속해서 처벌되었다. 당시 고종은 반복적으로 “세신(世臣)을 보전하려는 고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유배형의 사유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부패무능 관료들의 유배형은 1895년 6월 27일 전격 중단되었다.⁵⁹ 이러한 중단 조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895년 6월 갑오개혁 정부내에 대립과 갈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6월 19일 내부대신서리 내부협판 유길준은 새로이 국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각의 국무대신들에게 비밀회의(秘密會議)를 열 것을 요구하였다.⁶⁰ 그는 조종의 종사와 강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4가지 정책을 제기하였다.⁶¹ 그중에서 ‘대소 죄인 방석하는 사’라는 사면 안건을 제외하였다. 1895년 4월 1일 이전(신식 재판소제도 시행 전-필자 주)에 국사범 이하 정치상 관계 및 기타 유형(流刑)에 처한 자는 모두 석방하자는 안이었다. 이렇게 되면 농민전쟁과 관련되어 재판을 받거나 구속된 농민들도 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그러나 법무대신 서광범은 다음 날인 6월 20일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그는 ‘개국 504년 4월 1일 이전 죄인참량방석 청의서’에서 그는 석방 적

59 『첨보(牒報)』 1권, 규 26300, 20면.

60 『의주(議奏)』 21책, 「秘密會議求하는 請議書」(내각대신서리 내부협판 兪吉濬 ⇒ 내각총리대신 朴定陽, 1895년 6월 19일) (『의주』 2,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4, 336~337쪽).

61 제1안은 신법을 엄명히 정하는 안으로, 다시 말하면, 대소 죄인의 석방안(釋放案)이었고, 제2안은 성의를 봉준(奉遵)해야 인민도 상송(相訟)하는 폐가 없고 각 사업에 편안하게 하는 안, 제3안은 전지개량(田地改量)하는 폐를 없애기 위한 방안, 제4안은 국내 인민의 교육대도를 세우기 위한 안이었다(『의주』 21책, 위의 자료, 337쪽; 『각부내조준안』 2책, 「군부조복(軍部照覆) 군 24」, 1895년 6월 25일; 『각사등록』 63책, 333쪽).

용 예외 대상으로는 절도, 강도, 통간, 편재 등 파렴치한 범죄를 범한 죄인 이외에도 모반(謀反)과 살인자(殺人者)까지도 포함시켰다. 이는 1895년 4월 이전 범죄인 중에서 모반이나 살인자로 거론함으로써 농민전쟁에 연루된 민중들을 석방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또한 징역에 처한 죄인의 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을 법부대신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법부대신의 권한으로 선별적으로 가려내어 석방시키겠다고 한 것은 석방 문제를 정략적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것에 다름없었다.⁶² 이때 법부 소속의 죄인 83명과 각읍 소속의 죄인 196명 등 279명이 석방 대상자였다.⁶³ 고종은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의 죄인들인 민영준을 비롯하여 조병식 등 19명 외 260명을 방송(放送)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는 갑오개혁의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취한 대사면은 결과적으로 주요 부패 관료층의 석방 조치에 불과했다.⁶⁴ 결국 최종적인 조치는 위의 표와 같이 법부 주도로 주로 유배된 주요 관료들만에 한정하는 사면 조치를 취했다.⁶⁵

〈표3〉 1895년 6월 27일 죄인 석방자 중 주요 관료 명단

번호	이름	정배 사유	번호	이름	정배 사유
1	김문현(金文鉉)	거제 위리안치	16	민형식(閔炯植)	범장
2	김세기(金世基)	영양 정배	17	오석영(吳錫泳)	무주 도배
3	김태욱(金泰郁)	고금도 도배	18	이용직(李容直)	범장

62 왕현중, 『한국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역사비평사, 2003), 409~411쪽.

63 『관보』 106호, 1895년 7월 5일(1072~1073쪽); 126호, 1895년 8월 1일(1134~1136쪽).

64 『고종실록』 1895년 7월 3일 기사.

65 『관보』 106호, 1895년 7월 5일, 1072~1073쪽.

번호	이름	정배 사유	번호	이름	정배 사유
4	박수만(朴受晩)	고금도 도배	19	이용태(李容泰)	금산 서배
5	백은수(白殷洙)	용천 유배	20	이정규(李廷珪)	선천 서배
6	서정철(徐廷喆)	범장	21	임치재(任穉宰)	녹도 도배
7	신채희(申采熙)	범장	22	정기봉(鄭基鳳)	면천 도배
8	신학휴(申學休)	범장	23	조만승(曹萬承)	고금도 안치
9	심능필(沈能弼)	범장	24	조병갑(趙秉甲)	탐호
10	민병석(閔丙奭)	원주 도배	25	조병식(趙秉式)	탐호
11	민영순(閔泳純)	문경 유배	26	조준구(趙駿九)	지도 도배
12	민영은(閔泳殷)	범장	27	조필영(趙弼永)	독운(督運)가혹
13	민영주(閔泳柱)	고금도 도배	28	채경묵(蔡慶默) ⁶⁶	범장(犯贓)
14	민영준(閔泳駿)	임자도 위리안치	29	홍량섭(洪亮燮)	영춘 도배
15	민응식(閔應植)	방축 향리죄인			

비고 : 『관보』 106호, 개국 504년 7월 5일, 1072~1073쪽; 126호, 개국 504년 8월 1일, 1134~1136쪽

유배형 관료의 석방 조치는 1894년 동학농민군이 죽음을 무릅쓰고 제기했던 조선 국가의 정치 개혁과 부패 관료의 청산 과제가 1년 만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에 반하여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탄압을 받았다. 당시 법무에서 보고된 각종 보고서류에서는 이후 동학농민군 관련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동학의 지도자의 수색과 검거, 그리고 처형 등 후속 조치에서 많은 동학농민군 지도자가 지속적으로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⁶⁷

66 『계초존안』 1894년 9월 11일조.

67 『법부래문(法部來文)』 5책, 「1898년 7월 18일자 판결선고(최시형)」; 『(법부)기안』 「법부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1894년 9월 이후 동학농민군 토벌 과정에서 이루어진 잔학한 처형 방식에 대하여 동학농민군 주요 지도자에 대한 ‘효수(梟首) 처형’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본문에서는 조선 정부군·일본군·지방 민보군 등 탄압자에 의한 농민군 학살 과정을 각 지역의 개별적인 탄압 사례연구를 활용했지만, 동학농민군 학살이 조선 국가의 제도화된 폭력이었으며, 중세적인 참혹한 참형의 처벌이라는 성격으로 규명하려고 하였다.

우선 1894년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의 과정을 살폈다. 7월 초에서 중순에 이르는 시기에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전봉준과 전라감사 김학진 사이에 ‘관민상화’의 대책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전봉준의 〈통문〉(7.6.)과 김학진의 〈감결〉(7.17.)로 확인하였다. 이후 8월 말까지는 전라도 지역에서 전봉준 등은 재봉기를 아직 일으키려는 생각이 없었다. 다만 8월 말 이후 흥선대원군의 개입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대응하기 시작했고, 특히 9월 초에 경상도와 순천에서 영호대도소 김인배가 움직이기 시작하여 결국 9월 14일에 삼례에서 전봉준 등 주도세력이 재봉기하였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2차 봉기에 대응한 조선의 갑오정권과 일본군의 동향을 살폈다. 9월 14일에 ‘용무’의 입장을 천명하고 9월 21일에 양호순무영을 설치하였으며, 일본은 9월 18일에 탄압을 강요하였다. 양호도순무영 산하 조선군과 후비보병 독립 제19대대를 주축으로 하는 일본군 등이 연합으

에서 고등재판소에 지령하는 건」(제73호, 74호), 참조.

로 동학농민군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당시 동학농민군의 탄압은 철저하게 이루어져 다시는 분란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가혹했다.

또한 농민군의 사후 처리 방침은 세부적으로 처벌의 정도를 효수, 총살, 타살, 석방 등 일정한 분류에 따라 처벌하는 원칙을 세웠다. 그중에서 효수의 경우는 동학농민군 지도자 중 거괴라고 간주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전국적으로 63차례 이상 자행되었고, 희생자도 213명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해당 지역의 군민들을 가능한 한 많이 모아놓고 잔혹한 공개처형을 통하여 경계(警戒)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효수 처형에는 실제로는 공정한 증거조사와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진압군의 자의적인 강압에 의해 즉각적으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동학농민군 지도자에 대한 ‘효수형’은 중세 말기적인 가혹한 형벌에 의한 인명 참살이었으므로 근대 법률 개혁을 지향하는 갑오개혁의 취지와도 맞지 않았다. 1894년 12월 종묘에 나아가 홍범 14조라는 개혁의 원칙을 천명했던 고종은 12월 27일에야 사후적으로 효수형을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다. 이는 그동안의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처벌을 감추고 합리화하려는 조치일 따름이었다.

또한 1895년 4월 이후 새로운 재판소 제도의 실시를 앞두고,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자들은 종전 『대전회통』의 추단조 반역죄 조항에 의해 ‘교형’에 처해졌다. 그해 6월 갑오개혁 1주년을 맞이하여 이루어지는 대석방이라는 사면 조치에서는 그동안 지탄을 받아왔던 부패한 관료층의 사면 조치가 이루어진 반면, 동학농민군 수감자의 석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같이 동학농민군 지도자와 참여자에 대한 진압 과정을 살펴본 결과, 동학농민군의 학살은 이제까지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전근

대적인 학살 양상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동학농민군들은 철저하게 근대법의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고 무법(無法)에 가까운 참형으로 처벌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조선과 일본 연합전선의 합력(合力)은 아래로부터 민중의 저항의 싹을 아예 없애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 의미에서 1894년 변혁 주체로 등장하려고 했던 민중운동세력은 이후 1919년 3.1운동에 다시 민족적 저항운동으로 전면에 나서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인고를 견뎌야 했다.

참고문헌

저서

- 도면회, 『한국근대형사재판제도사』, 푸른역사, 2014.
- 朴宗根, 『일청전쟁과 조선』(靑木書店, 1982), 번역본, 일조각, 1989.
-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회,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1~30), 사운연구소, 1996.
- 왕현중, 『한국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역사비평사, 2003.
- 왕현중, 『민중을 바라보는 방법』, 소명출판, 2024.
- 이이화·배항섭·왕현중, 『이대로 주저 앓을 수는 없다-호남 서남부 농민군, 최후의 항쟁』, 해안, 2006.
- 조경달 지음, 박맹수 옮김, 『이단의 민중반란』, 역사비평사, 2008.
- 한국역사연구회, 1894년 농민전쟁연구』(1~5), 역사비평사, 1991~1997.

논문

- 姜孝淑, 『제2차 동학농민전쟁과 일청전쟁-방위청 방위연구소도서관소장 사료를 중심으로』,千葉大學 大學院, 2005.
- 강효숙, 「제2차 동학농민전쟁과 일본군」, 『전북사학』 30, 전북사학회, 2007.
- 강효숙, 「청일전쟁기 일본군의 조선민중탄압-日本軍의 '非合法性'을 중심으로」,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 전략』, 동북아역사재단, 2009.
- 김성우, 「조선시대의 감옥, 사형, 그리고 사형장의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19, 역사문화학회, 2016.
- 김양식, 「조선·일본군의 충남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진압 연구」 『군사』 107, 2017.
- 김용섭, 「동학란 연구론」, 『역사교육』 3, 1958.
- 김현주, 「1894년 동학·반동학 세력의 '義擧' 선취 투쟁과 지역 사회의 대응」, 『역사와 담론』 93, 호서사학회, 2020.
- 남호현, 『조선후기 국가의 천주교 대응과 형정(刑政)』, 서강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4.

- 도면회, 「갑오개혁기 형사법규의 개혁」, 『규장각』 21, 1998.
- 도면회,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법령 제정과정-형사법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27, 2001.
- 박찬승, 「동학농민전쟁기 일본군·조선군의 동학도(東學徒) 학살」, 『역사와 현실』 54, 2005.
- 배향섭, 「동학농민전쟁 당시 일본군의 개입과 그 영향」, 『군사』 53, 2004.
- 신영우, 「1894년 日本軍 中路軍司의 鎮壓策과 東學農民軍의 對應」, 『역사와실학』 33, 2007.
- 신영우, 「1894년 왕조정부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51, 2009.
- 신진희,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 -동학농민군 진압 사례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왕현중, 「갑오정권의 개혁정책과 농민군 대책」, 『1894년 농민전쟁연구』 4, 역사비평사, 1995.
- 왕현중, 「1894년 농민전쟁 지도자의 재판과정과 판결의 부당성」, 『한국사연구』 168, 한국사연구회, 2015.
- 정창렬, 「동학과 농민전쟁」, 『한국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1.
- 홍동현,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문명론적 인식의 형성과 성격」, 『역사문제연구』 26, 2011.
- 홍동현, 「1894년 동학농민군의 향촌사회 내 활동과 무장봉기에 대한 정당성 논리 : 경상도 예천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0, 2014.

동학농민군에 대한 법부의 판결

검사국·형사국·사리국 기안(起案) 분석

조재곤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1. 머리말
 2. 동학농민군 출신
 3. 동학교단 관련자
 4. 기타
 5. 해당 법률 조항과 판결 양태 : 맺음말을 대신하여
-

1. 머리말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법부 자료에는 동학농민군의 재판 기록이 실려 있다. 이 중 검사국 기안은 1895년 5월부터 1899년 8월까지 법부 검사국에서 각부, 재판소에 훈령, 지령, 조회한 것과 법부 대신의 상주안의 기안문을 묶은 것으로 전 33책으로 되어 있다. 형사국 기안은 법부 형사국에서 1895년 4월부터 1899년 5월까지 기안한 사안을 연월일 순으로 묶은 것으로 전 42책이다. 사리국 기안은 법부 사리국에서 1899년 6월부터 1905년 12월까지 중앙 각부, 각도 각항 재판소 등에 보내는 훈령·지령·통첩·조회·조복 및 상주 안건 등의 기안문을 합철한 것으로 전 32책이다. 이 외에 규장각 법부 주요 자료로는 『소장(訴狀)』·『법부내거문(法部來去文)』·『법부내문(法部來文)』·『법부청의서(法部請議書)』·『훈령(訓令)』 등이 있다.

한국의 근대 형사법 체계는 갑오개혁 시기인 1894년 6월 28일 군국기무처에서 고종의 재가를 받은 법무아문 설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일 제정된 『각 아문 관제』에 따르면 “법무아문은 사법·행정·경찰·사유(赦宥; 사면)를 관리하고 겸하여 고등법원 이하 각 지방 재판을 감독한다. 대신 1인, 협판 1인, 참의 4인, 주사 20인을 두며 다음의 각국(各局)을 분설(分設)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형사법 체계를 관장하는 기구로 형사국을 두었는데, 규정에 따르면 “형사국은 치죄·형살(刑殺; 사형 집행)·복사(復査; 재검사)·심열(審讞; 죄의 심리)·보석·징역·감형·복권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참의 1인, 주사 8인을 둔다”¹로 되어 있다. 이후 1895년 4월

1 『官報』, 開國 503年 6月 28日.

1일부로 법무아문이 법부로 개칭되고 기구도 재편되면서 『법부관제』가 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법부에는 민사국·형사국·검사국·회계국의 4개 국을 두고 이 중 민사국과 형사국을 1등국, 검사국을 2등국, 회계국을 3등국으로 하였다. 『법부관제』 제8조에 형사국은 형사재판 또는 은사 및 복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제9조에 검사국은 전국의 검찰 또는 변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하였다.²

이어 같은 해 4월 20일에는 『법부분과규정』을 제정하였다. 그 제8조에 형사국(刑事局)에 제1과와 제2과를 두는데, 제1과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한 사항과 그 집행에 적당한 세칙 등의 기안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규정하였다. 제2과는 1. 사형 집행·은사·특사·복권·가출옥 등에 관한 사항, 2. 품계가 있는 자의 범죄에 관한 사항, 3. 형사재판 비용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였다. 검사국(檢事局)은 1. 검사 직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법경찰에 관한 사항, 3. 형사피고인의 처치에 관한 사항, 4. 형사 변호에 관한 사항³을 관장토록 규정하였다.

대한제국 시기인 1899년 5월 30일 『법부관제』는 다시 개정되어 형사국과 검사국을 통합한 사리국(司理局)을 신설하였다. 그 제3조와 제4조에 법부에 사리국과 법무국·회계국을 두는데 사리국과 법무국은 1등국으로 회계국은 3등국으로 규정하였다. 제5조로 사리국은 재판소 설립과 관할 구역 및 민사재판 집행의 감독과 형사재판 및 은사·특사·복권·가출옥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하였다. 제6조로 법무국은 조사 및 법률 제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하였다.⁴ 이어지는 법부 분과 규정에 따라

2 『官報』, 開國 504年 3月 25日.

3 『官報』, 開國 504年 4月 20日.

4 『官報』, 光武 3年 6月 5日.

6월 13일 사리국에는 민사과와 형사과를 두었는데 이 중 형사 업무를 담당하는 형사과는 1. 은사·특사·복권 및 형사 주안(奏案) 기초에 관한 사항, 2. 형사피고인 처단에 관한 사항, 3. 형사재판의 비용에 관한 사항, 4. 형사상 일체 공문 기안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규정하였다. 한편 법무국에는 직제로 검사과와 법제과를 두었는데, 검사과에서는 1. 민사 형사 초심 안건에 대하여 각 재판소 질품에 응한 공문과 검찰 사무에 관한 사항, 2. 사법관의 자격 판정 및 고시(考試)에 관한 사항, 3. 형사피고인 처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였다.⁵ 이 같은 법부의 3국 체제는 러일전쟁 기간인 1905년 2월 26일 칙령 제20호로 민사국과 형사국의 2국 체제로 개편되면서 사리국의 업무가 형사국으로 이관될 때까지 유지되었다.⁶

법부 각국(局) 기안(起案)은 1895년(고종 32, 개국 504년) 4월부터 1905년(광무 9) 12월까지 법부 검사국·형사국·사리국에서 각부 재판소에 보낸 지령과 훈령·통첩·조회·조복·질품과 국왕(황제)에 올린 상주 안건 등의 기안문을 연대순으로 묶은 것이다. 법부 기안의 대부분은 중앙 사법기관인 법부의 실무 관료와 책임자들이 소장이나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처리하는 지령·훈령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왕(황제)에게 올려 최종 결재를 받는 주본류와 다른 정부 부서와의 협조를 거치는 조회·조복류 등도 포함된다.⁷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 시기에 이르는 기간 사법제도, 동학농민군 참여 인사들의 사후 활동과 정부의 처리, 활빈당

5 『官報』, 光武 3年 6月 15日.

6 『官報』, 光武 9年 3月 1日.

7 도면희, 「규장각 소장 법부 관련 자료의 내용과 자료적 가치」, 『奎章閣』 26, 2003. 법부 기안의 서지학적 접근은 유승희, 「法部 <起案>의 자료적 성격과 특징」, 『書誌學研究』 43, 2009 참조.

과 의병을 비롯한 사회변혁을 위한 각종 민중운동, 동시대 사람들의 생활상과 사회상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 중에는 1894년 이후 동학과 농민군 활동에 대한 문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에는 현재까지 공식 등록된 3,913명에 포함된 인물은 물론 갑오년 이후 이른바 ‘동비여당(東匪餘黨)’의 지속적인 활동상과 체포 처형과 관련하여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에 대한 판결이 많다.⁸ 검사국 기안은 용담의 김낙삼 등 49명, 형사국 기안은 해주의 윤덕여 등 15명, 사리국 기안은 정읍의 하윤현 등 64명의 참여자로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인물들의 활동상도 파악할 수 있다. 동학교도와 동학농민군, 그 지도자, 서학 투탁자, 영학당 등의 체포 수사 및 처벌의 수위, 근거 법률까지 다양한 사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들을 규정하는 용어도 ‘비도’, ‘동도’, ‘동도 죄인’, ‘비류’, ‘동비’, ‘동학배’, ‘난당’, ‘동학의 잔당’, ‘갑오년의 잔류’, ‘비류 죄인’, ‘동학 죄인’, ‘도적’, ‘적도’, ‘동학 난류’로, 그 지도자는 ‘비괴(匪魁)’, ‘비적 수괴’, ‘동학 거괴’, ‘동학 괴수’, ‘당괴(黨魁)’, ‘비류 두목’, 농민군 토벌은 ‘토비(討匪)’, ‘초비(剿匪)’ 등 다양하다. 농민군 지목·수색·체포·처형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 내부의 다양한 갈등상도 이해할 수 있다.⁹ 이 중 법부 검사국 기안 관련 내용은 형사사건 판단과 기본적인 처리 방안 제시에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있다. 형법 적용과 피고인에 대한

8 동학농민군의 재판과 관련하여 김용섭은 5차례에 걸친 동학농민군 총지휘자 전봉준에 대한 법무아문과 일본 공사관의 신문기록 분석을 통해 ‘동학란’의 성격과 지향을 분석하였다(金容燮, 1958 『全瑋準供草의 分析：東學亂의 性格一斑』, 『史學研究』 2). 왕현중은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의 판결선고서를 중심으로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판결 상황을 소개하고 전봉준의 ‘재판투쟁’을 정리하였다(왕현중, 『1894년 농민전쟁 지도자의 재판과정과 판결의 부당성』, 『韓國史研究』 168, 2015).

9 조재곤, 『해제』, 『법부 검사국 기안·법부 형사국 기안·법부 사리국 기안』(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5, 16~39쪽.

처치 등의 사안은 형사국에서 전담하였다. 법부 형사국 기안은 법률적 판단과 해당하는 조문 적용, 지방관에 대한 훈령 등을 다루고 있다. 사리국은 법부 관제 개정으로 1899년 6월부터 형사국과 검사국을 통합하여 새롭게 재구성한 국으로 동학농민군 관련 판결은 그해 7월부터 시작한다. 각국 기안 문서 중 관련 내용을 사안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동학농민군 출신

1894년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한 인사의 대부분은 전투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살아남은 경우도 활동 당시와 그 직후에 체포되어 특별한 심리과정도 없이 현장에서 처형되는 것이 일상이었다. 반면 법망에서 빠져나가 피신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후 1904년 러일전쟁 전후에 이르는 오랜 기간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지역공동체 사회의 감시(surveillance)와 지목(point out)의 대상이 되었고 체포된 후 판결을 거쳐 처벌되었다. 먼저 전라도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주부 관찰사는 동학의 잔당과 체결하여 군기를 빼돌리고 포고를 써 붙인 박준상 등 6명은 모두 총살하였고 나머지는 조사 중이거나 도망가 체포하려고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법부는 사형 이상을 선보고 없이 처형하는 것은 율례에 어긋나니 앞으로는 미리 보고할 것이며 나머지는 속히 잡아 처리하라고 훈령하였다.¹⁰ 그 후 법부는 태인 등지에서

10 『起案』(法部 檢事局), 開國 504年 월일 미상.

체포한 18명은 박준상의 잔당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처벌할 수 없으니 무리를 이룬 이유를 조사 보고하고 지령을 기다리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김천용이 올린 소장에 지난 갑오년에 ‘동학난의 죄’로 경남 남해군으로 유배를 가서 그때 무주군의 같은 죄인 4인은 되돌아왔는데 제 아버지 김귀서만 홀로 풀리지 못하니 남해군에 훈령하여 무주군에서 징역을 치르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법부는 징역정식(懲役定式) 이후에도 이전의 유배형에 따랐다는 것은 지극히 놀라운 일로 즉시 압송해 와서 징역형으로 처판하고 죄가 종신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그동안의 유배기간을 형기(刑期)로 계산하라고 훈령하였다.¹¹

전주부에서 정읍과 태인 등지에 순검을 파견하여 과거 범망을 빠져나갔던 집주 김형순 등 10명을 체포하였다. 진술서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갑오년 동학의 남은 무리로 속으로 사악한 뜻을 품고 여전히 수상한 자취를 밟아서 결국 사람들의 지목을 받아 이렇게 수색하여 붙잡았다”라고 되어 있다. 비류의 두목 김형순은 인명을 상해하고 전재를 약탈하는 등 악행이 끝이 없었으며, 심도풍·임몽기·조진옥·강도련은 모두 갑오년의 잔류로 지목되어 잡혀왔고, 이내형·김재원·조대집·한용기·최동골은 장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억지로 죄를 씌울 수 없다고 하였다. 전라남도 재판소는 이들 중 심도풍은 거짓으로 꾸며대는 말들을 달게 받아들여 ‘그 도를 닦으면 재앙과 질병이 없다’라며 부적을 받고 주문을 외웠으니, 비류로 지목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고 평결하였다. 그러나 수감된 심도풍은 얼마 후 구체적인 병명 없이 단지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¹² 집주 김형순은 동학농민군 활동에 적극 참여한 인사로 판단할 수

11 『起案』(法部 刑事局), 建陽 2年 2月 25日.

12 『起案』(法部 刑事局), 光武 2年 7月 2日; 7月 15日.

있으나 무장투쟁도 아닌 동학의 부적을 받고 주문을 외운 심도풍 같은 용의자도 옥중 사망할 정도로 엄히 처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갑오년 8월 담양군 용귀동에서 같은 동학당인 국홍목을 살해한 일로 그의 아들 국재봉과 재준이 복수차 담양군에 투옥 중인 김형순과 압송한 정인악을 대질한 바 있다. 당시 김형순과 정인악 등은 통문을 돌려 수백 명을 모아 국홍목을 총살하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정인악이 토설하자 국재봉 형제는 그를 대로로 끌고 가 칼로 찢어 살해하였다. 이후 ‘살육죄인’ 김형순은 차꼬를 부수고 탈옥하였다. 법부는 도망친 김형순은 해당 재판소에 특별히 탐문 체포하고 공범 송내춘의 경우 태 80 후 석방하라고 훈령하였다. 또한 아버의 복수를 기약하다가 발생한 일이라며 정상을 참작하여 국재봉은 본율에서 각각 1등을 감하여 태 100, 징역 중신에 처하고, 국재준은 태 100,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였다.¹³

그러나 이에 고종은 “아버를 위하여 복수한 것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에서 그런 것이다”¹⁴라며 다시 재결하라고 되돌려 보냈다. 황제의 분부에 따라 법부는 “아버를 위해 복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피해 입힌 것과 크게 다릅니다. 두 아들을 함께 징역 받게 하는 문제는 죄수 처리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리로 놓고 볼 때 참작하여 용서할 근거가 없지 않은 만큼 특별히 가벼운 쪽으로 처리한 것입니다”¹⁵라고 하였다. 결국 이들을 고등재판소에 압송하여 성지를 널리 알린 후 국재봉은 징역 10년에 처하고 국재준은 특별히 풀어주라고 훈령하였다. 그 사이

13 『起案』(法部 刑事局), 光武 2年 12月 26日.

14 『起案』(法部 刑事局), 光武 3年 1月 10日.

15 『起案』(法部 檢事局), 光武 3年 7月 10日.

국씨 형제는 자신들의 옥사에 든 비용이 1,700냥이라며 살해한 정인악의 시친(屍親) 진사 정대섭에게 토색하는 등 재산 침해로 민원의 대상이 되었다.¹⁶

전라북도 재판소는 정읍의 비도를 수종한 혐의로 박승도·이흥구·이석교·김대율·최한경을 각각 태 100, 징역 종신을 선고하였다. 그러면서 김사일·이성문·남윤선·진찬문은 형벌과 위엄 때문에 겁을 먹고 정치조의 지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경중·김기홍·이문화·배치성·김정화는 죄상을 보아 용서하는 쪽으로 처결해야 할 것 같다고 질품하였다.¹⁷ 이에 법부는 박승도 등 5명은 선고대로 집행하고, 김사일 등 4명은 ‘협박 때문에 저지른 죄는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뜻에 비추어 용서할 만하고, 이경중 등 5명은 재판소에서 논의한 것이 이치에 합당하므로 모두 풀어주라고 지령하였다.

다음은 ‘비류 죄인’ 오재봉과 양선태를 참형(斬刑)에 처하는 율을 적용해야 하나 종신 이상은 본 재판소에서 선고한 관례가 없다는 전라남도 재판소의 보고이다. 이에 법부는 훈령을 내리기를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님에도 선고한 격례가 없다고 하니 즉시 율을 헤아려 선고하고 보고하되, 형명(刑名)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라는 지령을 내렸다.¹⁸ 그로부터 1년 후에는 이들을 교형에 처하는 안건에 재가가 났으니 집행 후 보고하라고 훈령하였다.¹⁹

충청도의 경우, 옥에 갇혀 있는 ‘비적 우두머리’ 김재홍에 관한 임천군

16 『起案』(法部 刑事局), 光武 3年 1月 25日.

17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4年 11月 23日.

18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4年 5月 18日.

19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5年 5月 18日.

수의 보고 문서를 살펴보니 범한 죄가 매우 악하고 모질어서 사형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를 인명을 살해한 죄로 교수형에 처한다는 소단자(小單子)를 정서하여 바치라는 지령이다. 군수는 김재홍은 “동학의 무리에 뛰어들어 접주가 되어서는 관청 창고의 군기를 빼앗고, 관속들을 위협하고 도를 강요하였습니다. 또 전봉준의 후장(後將)이 되어서는 마을을 도륙하여 파괴하고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였습니다”라고 첩보하였다. 이에 법부는 중범죄에 관계되는 것이라 압송하여 처단하는 것이 합당하나 민심을 위로하고 미혹된 무리에게 경고하기에는 고을에서 총살하는 것만 같지 못하므로 즉시 거행 후 전말을 보고토록 지령하였다.²⁰ 이후 다시 임천군에 지령하여 그를 교수형에 처한 후 거행 결과를 급히 보고토록 하였고,²¹ 죄목과 성명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내각 기록국에 통첩하였다.²²

청산현에서 ‘동학 비도’에 참여한 송치삼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산현감의 첩보에 따르면, 남면 도분리의 송치삼은 본래 토호로 향촌을 억압하였고 동비들이 창궐하자 팔도 도집강(八道都執綱)이 되어 무리를 이끌고 고을을 돌아다니며 약탈하고 시찰관의 친척이라고 사칭하다가 체포되었다는 것이다.²³ 이에 법부는 장교와 나졸을 보내서 엄중히 칼과 쇠사슬을 채워서 압송하도록 지시하였다. 충주 민섬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충주병사의 첩보에 의하면, 그는 원래 토호로 동학 무리의 괴수가 되어 일본 군대에 체포되었지만 요행히 풀려났다고 한다. 그러자

20 『起案』(法部 檢事局), 開國 504年 월일 미상.

21 『起案』(法部 刑事局), 開國 504年 7月 9日.

22 『起案』(法部 刑事局), 開國 504年 9月 12日.

23 『起案』(法部 檢事局), 開國 504年 5月 8日.

그는 오히려 감영에서 장교를 파견하여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고 재산과 벼 포대를 몰수하였다고 법부에 무고하는 한편, 마을 백성들을 붙잡아 채찍질하면서 독촉하는 등 행패가 극심하다는 것이다.²⁴ 이에 법부에서는 장교와 나졸을 정해 압송하여 엄히 징벌토록 조회하였다.

청주 오일상의 경우는 군부와 법부의 동학농민군 여부 판단의 차이와 처형 수위로 인한 첨예한 갈등이 노정되는 하나의 사례이다. 법부는 영장과 군수가 보고한 ‘비괴’ 오일상은 하는 짓이 매우 악하고 모질어 사형에 처함이 마땅하고 그 무리 오두상·이정도·김인동은 죄를 참작하라고 지령하였다.²⁵ 연이어 지령을 내려 보고한 모든 서류를 상세히 조사하니 오일상은 악명이 널리 퍼져 있으나, 실제로는 도리에 어긋난 행실이 없었고 사민(士民)을 비호한 공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형에서 1등을 감하고, 나머지 3인은 경중에 따라 처분토록 하였다.²⁶ 그러나 이후 청주군수는 군부에서 훈령으로 수감한 ‘도적 수괴’ 오일상을 친위 제2대대 행진소에서 총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법부는 비록 그 죄명은 악자하게 말해지고 있으나 실제 행패를 벌인 흔적은 없기 때문에 이미 징역형으로 처결하였음에도 군부 훈령으로 그를 총살한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항의하였다.²⁷ 이에 대한 군부의 조회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충북재판소에 보낸 또 다른 훈령에서는 중범 오두상과 이정도는 동비(東匪)의 수종으로 말과 곡식을 빼앗았으니 이는 6범(六犯)의 하나인 절도에 해당하므로 1등급 감형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제시하였다. 이

24 『起案』(法部 檢事局), 開國 504年 5月 13日.

25 『起案』(法部 刑事局), 開國 504年 7月 9日.

26 『起案』(法部 刑事局), 開國 504年 9月 5日.

27 『起案』(法部 刑事局), 建陽 元年 1月 23日.

들은 2년 징역형을 받아 수감되었고 기한 만료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못하였다.²⁸

한편 공주군에서는 평택 사는 박서유는 유명한 ‘동괴(東魁)’로 법망에서 빠져나가 이전 습관을 고치지 않고 과부를 겁박하여 억울한 호소가 있었는데도 무죄 방면을 지령하였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법부는 고등재판소에 분명하게 조사하여 심판하라고 조회하였다.²⁹ 당진의 사례는 평민 김성원이 갑오년 동도에 투입하여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사건으로 공소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고등재판소에서는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할 만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2등급을 감등하여 태 100 징역 10년에 판결한 선고서를 보내니 관보에 게재하라고 통첩하였다.³⁰ 한편 전 천안군수 김병숙이 살해당한 일로 ‘비괴’ 박만귀를 잡아 조사하니 갑오년 동학군이 천안군의 군기(軍器)를 탈취해 갈 때 자신이 관문에 총을 쏘았고 관방에 난입한 사실 등은 위협을 받아서 했던 것이라고 자복하였다. 이에 법부는 충남재판소에 훈령 도착 즉시 박만귀를 교수형에 처한 후 보고토록 하였다.³¹

법부 기안 문서는 그간 다른 자료에서 파악이 안 되는 황해도 동학농민군 관련 새로운 내용이 많이 보인다. 평산의 경우, 경무청에서 파송한 순검 김광련과 박승호에게 ‘동학 죄인’ 이용손을 압송하여 좌옥(左獄)에 가두도록 하였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으니 사령을 보내 죄인을 받아 오라는 조회문이다.³² 법부는 경무사에게 분명하게 알려 특히 엄히 다스

28 『起案』(法部 刑事局), 光武 2年 3月 4日.

29 『起案』(法部 檢事局), 開國 504年 7月 23日.

30 『起案』(法部 刑事局), 建陽 元年 11月 14日.

31 『起案』(法部 刑事局), 光武 3年 1月 22日.

32 『起案』(法部 檢事局), 開國 504年 閏5月 4日.

러서 해이해지는 폐단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다음은 ‘비적 수괴’ 박대련·신창식·박기영 등을 체포 조사하니 범죄가 심상치 않아 더 심문하여 보고하라는 훈칙과 조사하여 즉시 처벌할 범죄이면 그렇게 하라는 훈령이다.³³ 은율군의 경우 동학당 김계문·정택근·정관선·김이섭·이경환·이근달·조승찬·사명철·김명학을 총살한 사건을 조사하여 범죄를 상세히 기록하여 보고토록 한 훈령, 이들이 군의 문서와 장부를 불태우고 진상품과 군기를 약탈하여 총살하였다는 군수의 보고문이 확인된다. 이에 법부는 은율군수가 9명을 마음대로 총살한 사건의 전말과 처리 과정을 자세히 조사 보고하라고 해주부에 훈령하였다.³⁴ 이에 해주부 관찰사는 장연 오리포에서 일본군이 체포한 13명의 동학군 중 9명을 전 부사가 총살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³⁵ 다음은 신천·송화·장연·옹진·강령 등의 고을에 들어가 관사를 불태우고 돈과 식량을 약탈한 이동엽은 교형을, 승려 금월은 징역 종신의 율을 적용한 후 그 결과를 급히 보고하라는 훈령이다.³⁶ 이어 ‘비괴’ 이동엽 등 교형에 처한 죄인의 죄목과 성명을 내각 기록국에 보내 관보에 게재토록 하라고 통첩하였다.³⁷

재령 장수산성을 근거지로 활동하던 윤덕여와 종범 김운성·맹소희 등의 판결 문서는 다음과 같다. 해주부는 군부 훈령에 따라 간혀 있는 ‘적괴’ 윤덕여를 사방으로 통하는 큰길에서 총살하고, ‘여당’ 김운성은 대낮에 물건을 빼앗은 조항으로 도(徒) 2년, ‘수중’ 맹소희는 도 1년에 의율하여 모두 새로운 정식을 따랐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여자 도적’ 2명은 해

33 『起案』(法部 檢事局), 建陽 元年 3月 12日.

34 『起案』(法部 檢事局), 開國 504年 월일 미상.

35 『法部去來案』, 開國 504年 9月 24日.

36 『起案』(法部 刑事局), 開國 504年 9月 6日.

37 『起案』(法部 刑事局), 開國 504年 9月 12日.

주부로 이송하여 각각 그 남편을 염탐하여 붙잡아오는 사이에 우선 보증을 서서 맡아두었다. 방이조는 ‘위협을 건디지 못하고 총을 만든 것이 애당초 그 무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며 극구 원통함을 외치므로 장 30대 후 석방하였다. 그러나 법무대신은 이는 처음 듣는 일로 이 사건에 군부가 간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군부대신에게 조회하였다.³⁸ 나아가 군율(軍律)을 제외한 사건에 대한 일체의 조율은 법무에서 짐작하여 헤아리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부의 지휘를 기다려 시행하라고 다시 조회하였다.³⁹

한편 법부는 해주부에 훈령하여 강령군에서 체포한 오원경·이봉신은 서울로 압송하되 적용할 법률을 살펴 보고하고, 김영하·오현근·현학진·조사여·조순승·배동명·연순길·송만영·조봉도·오가인 등 10명은 각별히 엿보아 잡아들이라고 지시하였다.⁴⁰ 또한 동괴(東魁) 강달조를 옥에 가두고 지령을 기다린다고 한바, 이를 살펴보니 더 조사할 것이 있으니 신문 문서[供案]를 보내라고 지령하였다. 재령의 아전 출신 강달조는 동학 접주가 되어 여러 곳에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곡식 수백 석을 징수하였다. 또한 접주 원용일이 수백 명으로 신천군 공격 후 재령으로 향할 때 동학도를 이끌고 십 리 밖에서 영접하였다. 이후에는 원용일 포(包)와 함께 장수산에서 활약하였고 다시 돌아와서 청룡촌 강희열로부터 벼 27석을 징수하여 화포에게, 장촌 김첨사로부터 잡곡 36석을 징수하여 농민들에게 농사 빚[農債] 상환용으로 나누어 주었다.⁴¹ 그는 법무

38 『起案』(法部 刑事局), 開國 504年 9月 13日.

39 『起案』(法部 刑事局), 建陽 元年 1月 23日.

40 『起案』(法部 檢事局), 開國 504年 9月 28日.

41 『司法稟報』「海州府觀察使李鳴善報告」, 建陽 元年 1月 27日.

훈령으로 교수형에 처해졌다.⁴²

해주부에 대한 법부의 또 다른 조회문으로, 백낙희 등이 모반을 꾀하다 발각되자 도주하였는데 이들을 서둘러 체포한 후 전후 사정을 조사 보고하고 사건을 꾀한 이들을 율에 따라 처리하도록 장연군에 지령토록 하였다. 그런데 장연군에서는 백낙희 등 6명을 극형에 처하도록 해주부에 보고하였음에도 계속 지령이 없다고 하니 앞으로는 형사사건은 내부가 아닌 법부에 보고토록 할 것이며, 위 6명에 대한 처벌을 속히 시행하라고 훈령하였다.⁴³ 이에 장연군수 염중모는 군에 가둔 백낙희는 총살하고, 전양근·백기정·김계조·김의순·백낙규는 교수형에 처하고, 송화 비괴 강성일과 같은 당 강운영, 산포 이승조를 심문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법부는 이들을 다시 조사하여 범죄의 수종을 분간하여 보고하라고 훈령하였다.⁴⁴ 그 결과 백낙희는 본래 동학은 물론 산포(山砲)의 우두머리로 전양근·백기정·김계조와 모의하였고, 김의순·백낙규는 그 수종이 되어 반란을 꾀한 혐의로 재가를 받아 모두 교형에 처하였다. 도망친 김형진·김창수·김재희·유학선·최창조와 문화군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 등 6명은 즉시 체포하라는 지령을 내렸다.⁴⁵

황해도 재판소에서 심리한 동도의 화포영장 김선장은 ‘수대산 108형제’라는 도당으로 순포(巡捕)를 칭하면서 백성들의 돈과 재물을 토색한 죄로 교수형에 처하라는 훈령이다. 그다음 훈령도 화포 이원조가 동도 수백 명으로 봉산군 사원참에 몰려와 사람을 총살하고 재물을 약탈한 사

42 『起案』(法部 刑事局), 建陽 元年 3月 28日.

43 『起案』(法部 刑事局), 建陽 元年 4月 1日.

44 『起案』(法部 檢事局), 建陽 元年 5月 日.

45 『起案』(法部 刑事局), 建陽 元年 5月 30日.

실을 자복하였으므로 김선장과 같이 교수형에 처하라는 내용이다.⁴⁶ 내각에서 상주하여 재가받았기에 이들을 각기 교형을 집행하고 그 사정을 보고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원조가 병사하였다는 보고에 따라 그의 시체를 즉시 매장할 것을 지시하였다.⁴⁷ 한편 배천군 안사건의 문족(門族)이 갑오 동비 소요 시 당괴(黨魁)가 되어 향교와 서원을 불태웠다는 군민의 소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 판결하라는 훈령도 보인다.⁴⁸

강원도와 경상도의 사례를 보면, 원주의 '동도 죄인' 이규하와 홍정성은 같은 무리로 1894년 가을과 겨울 사이 원주 귀래면에 집을 설치하고 활동하다가 충청도 충주 소태양면에서 체포되었다.⁴⁹ 이에 법부는 첩보와 증거물을 일일이 보냈으니 함께 심판한 후 한성재판소로 보내라고 통첩하였다.⁵⁰ 경상남도 재판소에 보낸 훈령은 산청군의 민계약·민성언·양윤문은 갑오년에 동도의 괴수가 되어 많은 난민 무리를 이끌고 모이고 흠어짐이 비할 바 없으니 체포하여 범죄 유무를 조사하라는 것이다.⁵¹ 그러나 그로부터 2달 후 양윤문은 거처를 알 수 없고 체포한 민계약과 민성언도 범한 일이 없으므로 즉시 석방하라고 훈령하면서 사건을 종결하였다.⁵²

46 『起案』(法部 刑事局), 建陽 元年 9月 9日.

47 『起案』(法部 刑事局), 建陽 元年 9月 29日.

48 『起案』(法部 檢事局), 光武 2年 7月 27日.

49 『司法稟報』, 開國 504年 4月 19日.

50 『起案』(法部 刑事局), 開國 504年 5月 27日.

51 『起案』(法部 檢事局), 建陽 2年 6月 28日.

52 『起案』(法部 檢事局), 光武 元年 8月 17日.

3. 동학교단 관련자

동학교단의 주요 인사 또는 교단 활동에 치중한 인사들로서 체포된 사람들로 2대 교주 최시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들과 일반 동학교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복집 교단 지도부 중심인물인 보은의 ‘동도 죄인’ 황하일에게 징역 3년형을 적용하였는데 3천리 떨어진 곳으로 유배 보내라 하니 어떤 일인지 상세히 알려달라는 조복이 보인다.⁵³ 다음은 청주지방대에서 체포 조사 중인 서석여·김시묵과 임경원의 아들 도호를 공주지방재판소로 송치하라는 조희문과 이들이 통문을 발하고 접(接)을 개설함에 비밀리에 병정을 보내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동경대전(東經大全)』 등을 찾아냈다는 보고문이 확인된다.⁵⁴

보다 구체적 활동 사실을 알 수 있는 청주지방대의 체포 압송 내역을 보면, 서석여는 갑오년 8월 동학이 일어났을 때 거괴 손사문(손천민) 포의 접주로 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서석여와 김시묵은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고, 임도호는 사학(邪學)에 오염된 자취가 없음이 확실하게 증명되므로 잘 타일러서 풀어주라고 훈령하였다.⁵⁵ 그러나 이후 충남재판소는 서석여와 김시묵을 “훈령을 받들어 본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관할하는 징역 죄수 중 6범 외의 범인들에게 성지(聖旨)를 널리 알린 뒤 모두 풀어주고, 성명 책자를 먼저 작성하여 올립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법부는 이들은 6범 이내의 범인인데도 살피지 않은 책임은 경계할 것이며 즉시 재수감하여 징역에 처한 후 결과를 급히 보고토록 훈령하

53 『起案』(法部 刑事局), 開國 504年 閏5月 26日.

54 『起案』(法部 檢事局), 建陽 元年 5月.

55 『起案』(法部 刑事局), 建陽 元年 6月 30日.

였다. 그런데 당시 법무 형사국에서 김시묵과 서석여에게 적용한 죄명은 ‘동학죄(東學罪)’였다.⁵⁶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 등의 체포 처형 관련 형사국 기안에 따르면, 최시형은 1866년 간성에서 박춘만으로부터 동학을 전수받은 후 인민을 선동 규합하고 법헌(法軒)의 호를 부르며 두목을 각 지방에 임명하고 포(包)와 회소(會所)를 설치하였다. 1893년 대궐 상소와 보은에서 무리를 모았고, 1894년 전봉준·손화중 등의 활동은 피고가 주문과 부적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킨 데 연유하였다는 것이다. 황만기는 갑오년 임학선의 협박을 받아 동학에 입도하였다가 곧바로 귀화 후에도 도망 중인 최시형을 방문하여 생선을 바쳤고, 송일회는 1894년 4월 동학에 투탁하여 최시형이 청산에 있을 때 방문하여 만나보았고 이후 박윤대와 함께 경무청에 체포되어 길잡이 역할을 하여 원주로 가서 최시형을 포획하였다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법부는 피고 최시형은 교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내용을 상주하여 그대로 처결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으므로 고등재판소에서는 그대로 시행하라고 훈령하였다. 황만기는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고, 박윤대와 송일회는 최시형 포획 시 공로가 있으니 감등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박윤대는 최시형에게 식비를 제공하려 한 행동거지가 놀라우니 1등을 감하여 태 100, 징역 15년에 처하고, 송일회는 2등을 감하여 태 100,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하였다.⁵⁷

‘동학 죄인’ 서정만 등 34명을 교수형에 처하자는 법무대신의 상주, 서정만은 재가받았으므로 즉시 형을 집행하라는 훈령, 검사의 공소에 따라 서정만·김당골·편합덕·육사명 등의 안건을 평리원에서 심리한 내용

56 『起案』(法部 刑事局), 光武 元年 11月 日.

57 『起案』(法部 刑事局), 光武 2年 7月 19日.

등이다. 이에 따르면 ‘동학 거괴’ 서정만은 최시형의 제자인 선산 사람 김치만에게 동학을 배웠고, 최시형이 처형된 후에도 동학교도 정해룡·양지동 등과 상의하여 그의 억울함을 풀겠다며 무리와 재물을 모아 속리산에 치성을 드린 후 상경 복합 상소를 위해 ‘남조선충의장군(南朝鮮忠義將軍) 선봉대원수(先鋒大元帥)’라는 푸른 깃발을 만들고 물품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김당골과 편합덕·육사명은 서정만에게 동학을 배워 속리산 치성에 같이 갔으며, 국모의 불공을 드린다는 등의 설로 사람을 유인하여 소위 ‘성심전(誠心錢)’을 내게 하고 상복과 술·떡 등을 준비하였다. 법부는 서정만을 교수형에 처하고, 김당골·편합덕·육사명은 모두 태 100, 징역 종신에 선고한 것에 따라 집행하도록 평리원에 지시하였다.⁵⁸ 서정만 등은 동학교단의 핵심 인사이자 ‘남조선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집단으로 소백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세력이었다.⁵⁹ 김당골(金堂骨)의 경우 이름으로 보아 무속인으로 판단되는데 1년 후 옥중 병사하였다.⁶⁰

다음은 검사의 공소에 따라 서장옥과 손사문을 심리한 내용이다. 최시형과 함께 동학의 핵심 지도자의 한 사람인 서장옥은 1888년부터 동학을 숭상하기 시작하여 1894년 백성들을 선동하였는데 그 기세가 전봉준·김개남·최시형과 막상막하였다고 한다. 최시형의 최측근이기도 한 손사문은 이보다 앞선 1883년부터 동학을 숭상하였고 1894년 청주 북면 등지에 접을 설치하니 따르는 자들이 수만 명이었으며 그해 9월에 전

58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4年 7月 25日.

59 이영호, 「농민전쟁 이후 동학농민의 동향과 민족운동」, 『동학과 농민전쟁』, 해안, 2004, 323~329쪽 참조.

60 『司法稟報』, 「報告書(제149호)」, 光武 5年 7月 15日.

봉준에게 합세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은 진술에 명백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 모두 교형에 처할 것을 선고하고 상주하였다.⁶¹ 그 결과 상주대로 시행하라는 명에 따라 법부는 평리원에 즉시 이들을 교형 집행 후 보고 하라고 훈령하였다.⁶²

평리원은 최시형의 사위 김연숙과 최명기는 갑오년 동비 창궐 때 생명 보존을 위해 유혹에 빠지거나 위협을 받아 입도하였고 아직도 동학을 배척하지 못하였다는 혐의로 태 100, 징역 종신을 선고하였다. 또한 김춘서·조성덕·이기현·김영래도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고자 하나 애초부터 행패를 부린 적이 없으므로 참작하여 본율에서 1등을 감하여 각각 태 100, 징역 15년에 처하였다. 이에 법부는 모두 원래 헤아린 율대로 집행 후 형명부(刑名簿)를 즉시 올려보내도록 지령하였다.⁶³ 그로부터 2년 반 후 평리원에서 징역 죄인 김연숙을 풀어주고 죄명·형기·속전(贖錢)의 실제 액수와 방면한 날짜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법부는 김연숙 체포 이후 사면령 이전에 1등을 감하더니 평리원에서 멋대로 풀어주었다고 지적하였다. 법부의 판단은 김연숙의 범죄 행위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교화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당초 해당 안건을 법부에 질품하여 그 처결 지령을 기다려서 집행해야 하는데도 속전을 받고 명령을 멋대로 시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범인의 범죄 사항은 용서할 만한 흔적이 없고 좌도(左道)로서 정도(正道)를 어지럽힌 풍화(風化)에 관계되므로 실제 사정을 살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김연숙은 다시 잡아들여 가두고 속전은 내어주고 전에 처했던 징역으로

61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4年 9月 20日.

62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4年 9月 22日.

63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6年 4月 26日.

처리 후 당시 판결했던 판사를 확인하여 급히 보고하도록 훈령하였다.⁶⁴

다음은 동학교단 활동자 또는 동학교도로서 체포되어 판결받은 인사들에 관한 사례이다. 처음 문서는 여산 ‘동학 거괴’ 고문선이 옥중에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내부 조회문이 법부에 전달되었다는 조회문이다.⁶⁵ 전라북도 재판소도 고문선의 무리인 김준홍·유덕장·이관동(이원팔)·이용구는 모두 교형으로 결정하였고, 김성초·장한여·이치옥 등은 징역 종신으로 결정하였다고 질품하였다. 이에 법부는 김준홍 등은 고문선의 무리이기 때문에 고문선이 수범이라면 이들은 자연히 종범이 되므로 수율(首律)로 결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종범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각각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도록 하였다. 김성초 등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으므로, 본율에서 2등을 감해 각각 태 100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지령하였다.⁶⁶ 『대명률(大明律)』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述條)」의 수범과 종범 죄목으로 판결한 규정을 적용받은 이들은 농민군이라기 보다는 복점 계열의 동학교단 인사였다.

전라북도 재판소의 질품서에 의하면, 진위 제2연대 제3대대 대대장 김한정의 조회에서 ‘전도(傳道)를 칭하면서 무리를 모으는 동비(東匪)’들을 비밀리에 탐문 체포하였다고 원수부에 보고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대에 가두었던 ‘동비’ 조창식·이명삼·정순구·김덕화·이이노·김문영과 이인규·홍종한·박순경·조가희 등 10명을 압송하였다고 조회하였다. 이외에 ‘백성들을 선동하며 전도한 거괴’로서 태인 ‘동비’ 유달수, 임피 김광

64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8年 10月 12日.

65 『司法稟報』 「全羅北道裁判所判事李完用報告書(제16호)」, 光武 4年 3月 19日;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4年 4月 5日.

66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4年 4月 11日.

유, 진산 김치삼 등을 체포하여 사실조사 후 신문기록을 보냈다. 이에 법부는 전라북도 재판소에 조창식·이명삼·정순구·김덕화·이이노·김문영·유달수·김광유 등은 교형을 선고하되 모두 특별히 단단히 가두었다가 상주를 거쳐 훈령을 기다려 집행하라고 지령하였다. 또한 이인규·홍중환·박순경·조가희·김치삼 등은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여 집행 후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려보내도록 하였다.⁶⁷ 그러나 교형은 반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법부는 사형수를 감동하는 것은 대사면이 아니면 의논할 수 없고 애초에 용서할 수 있으면 극형을 논하지도 않았을 것이니 감동은 논할 수 없다고 훈령하였다.⁶⁸ 이들 또한 앞의 고문선부하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도’를 통한 포교에 치중한 활동과 판결죄목으로 보아 동학교단의 인사들로 판단된다.

형사국 기안에 따르면, 충청도의 경우 목천·진천·연산·문의 등지에서 동학이라 칭하고 도당을 이루는 것이 극심한데, 특히 공주 산내면 상하소전리에는 소굴을 이루었다는 소문이 낭자하였다고 한다. 이에 공주 수비대에서 병정을 파송하여 김여포를 붙잡아 가두었지만, 유몽석·이봉여 등은 다른 곳에 있어 붙잡지 못하였다. 그러나 법부는 죄수들이 마치한 입으로 말하듯이 변명하고 있는데, 공주군 서기는 무엇을 근거로 비밀리에 탐지한 것인가 알 수 없으니 충청남도 재판소는 다시 조사하여 진술서를 갖춰서 급히 보고토록 훈령하였다. 그러면서 만약 무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즉시 방면하고, 죄지은 자는 요행히 도망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⁶⁹

67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8年 7月 7日.

68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9年 1月 14日.

69 『起案』(法部 刑事局), 建陽 2年 4月 13日.

경기도의 경우도 농민군이거보다는 동학교도로서의 활동에 치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성재판소에 보낸 법무 조회문을 보면, 일본군에게 체포된 광주의 동학도들은 심사 후 방송되었으나 아직도 수감 중인 연노성을 일본영사관에 조회하여 심의 결정 후 귀농토록 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⁷⁰ 또 하나의 문서는 이천군에서 체포한 이상옥·신명우·김정업·김낙철·권성좌 등을 조사하니 모두 ‘갑오년 이전에 동학에 물든 동학 비류’로 감옥서에 얹히 가두고 경기재판소로 압송하여 신문 문서를 첨부하고 전말을 보고하라는 훈령이다.⁷¹ 이에 경기재판소는 이천군에서 체포한 이상옥 등은 갑오 이전에는 동학에 오염된 적이 있었으나 조정의 토벌을 받은 후로는 동학을 등지고 농사일로 돌아왔다고 하니 단단히 타이른 후 풀어주자고 질품하였다. 법무도 해당 범인들이 이미 귀화하였으니 ‘억지로 행했다’든가 ‘기꺼이 따랐다’든가 하는 말을 지금 거론할 필요는 없으므로 특별히 단단히 타이른 후 모두 풀어주라고 지령하였다.⁷²

평안도의 사례들도 동학교도로서의 활동 관련 내용이다. 의주진위대에서 병사들을 파견하여 체포한 ‘동학의 여당(餘黨)’ 원의길은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태 100, 징역 종신, 오치덕·이원선은 태 100, 징역 10년에 처하여 집행하고, 황해도로 도주한 정기명은 법무에서 황해도 각 군에 훈령하여 엽탐해 붙잡자고 보고하였다.⁷³ 동학 수범(首犯) 강성탁은 평안북도에서 접주가 되어 그 무리가 많았는데 양민들을 속이고 미혹시켰다

70 『起案』(法部 檢事局), 開國 504年 월일 미상.

71 『起案』(法部 檢事局), 光武 2年 2月 21日.

72 『起案』(法部 刑事局), 光武 2年 5月 4日.

73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4年 12月 12日.

는 혐의로 교수형을 선고하였고 지령을 기다려 집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강병업과 박종근은 우매한 소치로 사교(邪敎)에 잘못 빠져 들어서 용서할 만하니 태 100, 징역 10년에 처하여 선고하겠다고 질품하였다. 법부는 강성탁은 상주를 거쳐 훈령을 기다리고 강병업과 박종근은 즉시 집행하라고 훈령하였다.⁷⁴ 이후 법부는 황제의 재가를 받았으므로 강성탁은 형 집행 후 보고하라고 재차 훈령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다.⁷⁵ 한편 평안남도 재판소는 중화군의 김영학과 그 조카 김광찬은 동학 괴수로 도당들을 모아 돈과 재물을 거두고 민심을 선동하였으므로 김영학은 교형에 처하고, 김광찬은 장 100, 징역 종신에 처하여 선고하겠다고 질품하였다. 법부도 평의한 바가 모두 타당하니 원래의 율대로 처리하도록 지령하였다.⁷⁶

함경도도 평안도와 유사한 사례다. 함경남도 재판소는 “동학당 맹범영·김응삼·정승조 3인을 태 100, 징역 3년, 백낙현과 임수련은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였다. 그러나 윤형천·송재원·최성도는 사형에 처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당연히 법부에 보고한 후 지령을 기다려 집행해야 하나 현재 함경남도 각 군에 동학이 크게 치성하여 의외의 사건이 일어날 우려가 없지 않아 시일을 끌 수 없어 ‘부득이하게 권도(權道)를 좇아 즉시 포살(砲殺)’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법부는 윤형천 등 사형수들은 모두 법부에 보고하여 상주를 거쳐 재가 후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는 것이 본디 정해진 법이므로 ‘응당 보고해야 할 사안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논하여 경계하지 않을 수 없으나’ 잠시 보류

74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5年 3月 8日.

75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5年 4月 17日.

76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8年 6月 16日.

하고 이후에는 규정을 각별히 준수하여 시행하라고 지령하였다.⁷⁷ 맹범영 등에 대해서는 경중을 나누어 심리 처단한 것은 타당하므로 모두 원래의 율에 따라 즉시 처결토록 하였다. 평안도와 함경도의 경우 동학농민군 잔여 세력인가 판단 여부 문제는 자료가 제한되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기타

1) 기독교 투탁과 영학당 활동

법부 기안 문서는 동학농민군 출신으로 충청도 한산과 서천에서 활동하면서 기독교에 투탁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된 2건의 사례가 보인다.⁷⁸ 먼저 한산군의 김선재와 서가량은 ‘동학난류(東學亂類)’로 서학(西學)이라 칭하며 타인의 집과 재산을 파괴하고 금전을 빼앗는 등 동학 소요 때보다 심하니 교사(敎師)에게 단단히 타이르고 경계하여 폐가 없게 해달라는 조회문이다. 법부는 이들을 비호한 선교사에게 엄히 경고하라고 외부에 조회하였는데 아직 회답이 없다며 해당 공관에 다시 조회토록 하였다. 홍주부 관찰사에게는 김선재와 서가량을 재물 손괴와 절도에 준하여 논하고 태 100, 징역 종신의 율을 적용하여 처벌 후 보고토록 지령하였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법부에서 징벌할 것이니 즉각 압송하고 명령을 어기고 한산군수가 마음대로 풀어준 이유를 즉시 보고하라고 하

77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8年 4月 16日.

78 한산·서천 동학여당의 천주교 투탁에 대해서는 이영호, 「충청남도 서남부 지역의 동학여당(東學餘黨)과 서양종교」, 『역사와 담론』 88, 2018 참조.

였다.⁷⁹ 이어지는 지령은 상세히 조사하니 김선재는 동행하였을 뿐 포악한 짓을 돕지 않았으니 수종한 것이 분명하면 가벼운 쪽을 따라 형틀을 적용하여 처분하고 징역 처소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⁸⁰

두 번째는 서천군의 서창길과 유한표의 범죄는 사면할 수 없는 일이나 공술 없이 단지 자복했다는 보고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니 다시 조사 보고하라는 훈령과 이들은 ‘동괴(東魁)’로 수사망에서 빠져 달아났던 자로 서학에 투입하여 전후 못된 행실을 하였다는 조회문이다. 법부는 이들이 허다한 죄상을 자복하였지만 반은 토설하고 반은 삼키는 등 진술에 의혹이 있으니 재조사 후 보고하고, 서천군에서 압송한 서창길과 유한표의 보인(保人) 송병근과 정의중을 엄히 심문 후 옥에 가두고 사정을 보고하라고 훈령하였다. 서창길의 경우, “동학 소요 때에 그 무리에 이름을 올려서 관장을 능욕하고 백성을 침학하며 한산과 서천 두 고을을 무너뜨린 허다한 죄상은 군수가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웃 고을에서 지목하는 바”였지만 도망쳐서 잡지 못하다가 체포된 후 충남 관찰부로 압송되었다. 윤사평 및 이감찰과 대질신문에서 그는 이 사건은 꾸며낸 일이라고 진술하였다.⁸¹

한편 그 과정에서 충남재판소에 수감 중인 유한표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법부는 보인 정의중이 죄인을 풀어준 이유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감옥의 형리(刑吏)인 정의중은 중범죄인을 두 사람씩이나 멋대로 보석을 청하였고, 범인들이 도망친 후에는 여러 차례 정해진 기한에 출두하지 않았으니 고종(故縱)에 관한 율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79 『起案』(法部 檢事局), 開國 504年 월일 미상; 『起案』(法部 刑事局), 開國 504年 9月 8日.

80 『起案』(法部 刑事局), 建陽 元年 正月 6日.

81 『起案』(法部 檢事局), 建陽 元年 12月 4日.

이에 그를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되 죄인을 붙잡아 바치는 날에는 풀어주고 아울러 유한표는 힘써 체포토록 훈령하였다.⁸² 서창길에 대해서는 그가 비록 잡아떼고 있으나 증인 진술이 명확하고 관찰부와 군의 조사 보고가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태 100, 징역 15년에 처하라고 훈령하였다.⁸³ 결국 서창길은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비류죄(匪類罪)’로 태 100, 징역 15년형의 판결을 받고 수감되었다.⁸⁴ 그로부터 4년 후 그는 ‘평민을 침학한 죄[侵虐平民罪]’로 형명이 바뀌어 석방되었다.⁸⁵

전라도의 경우 장성군 ‘동비 거괴’ 박군달은 부자가 서교(西敎)에 이름을 올렸으며 부인과 주점을 열고 금전을 사취(詐取)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는 혐의로 법부는 그를 붙잡아 공초를 받고 관찰부에 보고하라고 훈령하였다.⁸⁶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경기재판소에서는 양성군 ‘동학당의 잔여’ 홍병섭은 의병에 들어갔다가 귀화하여 야소교(耶蘇敎)에 들어갔고 용인의 교두 김준희와 표리관계로 김준희는 징역형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홍병섭은 도망쳐서 체포하지 못하였지만 이후 자수하였는데 양성군 노곡 이보경의 논 15두락과 농우 1마리를 탈취하였다는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경기재판소는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는 것이 어떠하냐고 문의하자, 법부는 ‘수종은 1등을 감한다’는 율을 적용하고 더하여 김준희에 적용한 율에서 1등을 감하여 태 100, 징역 3년에 처하라고 지령하였다.⁸⁷

82 『起案』(法部 刑事局), 光武 2年 8月 23日.

83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3年 8月 14日.

84 『官報』, 光武 3年 10月 3日.

85 『官報』, 光武 7年 7月 31日.

86 『起案』(法部 檢事局), 光武 2年 7月 1日.

87 『起案』(法部 刑事局), 光武 2年 7月 8日.

다음은 영학당(英學黨) 관련 인사에 대한 판결이다. 영학당은 동학농민군 봉기를 계승하여 1898년 12월과 189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정읍·고창·영광·장성·함평 등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 전개된 반침략·반봉건 운동이었다.⁸⁸ 첫 번째는 홍덕군 ‘난괴’ 이화삼과 송민수가 영학에 투탁하여 행패하였고, 수서기 박우종도 이들과 왕래한 혐의가 있다고 하니 이들을 조사 후 압송하여 심사 처벌하고 속히 보고하라는 훈령이다.⁸⁹ 두 번째는 본래 ‘동비 거괴’로 도망쳤다가 죽음에서 살아날 계책으로 영학을 자탁(藉託)하고 7읍 계장(七邑契長)을 칭하며 통행하는 길에 방문을 붙이고 평민에게 가입을 협박하여 돈을 거두는 등의 패행을 저지른 영광군민 김태서를 자세히 신문 조사하라는 훈령이다.⁹⁰ 전라남도 재판소는 김태서는 갑오년에 범망을 빠져나간 ‘동비 무리’로서 요행히 도망쳤다가 영학에 투탁하여 사창(社倉)에 방(榜)을 내걸고 말목(抹牧; 고부 말목장터·필자)의 모임에 참여하여 패거리를 모은 자취를 감출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범부는 재판소에서 처음 보고한 것과 해당 범인이 앞서 진술한 내용이 모호한 바가 있어 갑작스레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다시 상세히 사실을 확인하여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헤아려 처결하라고 훈령하였다.⁹¹

세 번째는 체포된 고창군의 포군 순찰 김상흠과 대장 기수 김재호가

88 吳世昌, 『英學黨 研究』, 『史學論叢: 溪村閔丙河教授停年紀念』, 溪村閔丙河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刊行委員會, 1988; 이영호, 「대한제국 시기 영학당(英學黨) 운동의 성격」, 『동학과 농민전쟁』, 해안, 2004.

89 『起案』(法部 檢事局), 光武 3年 2月 17日.

90 『起案』(法部 檢事局), 光武 3年 3月 3日.

91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3年 7月 17日.

범죄를 저지른 정절을 별도로 심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⁹²과 압송해 온 ‘비류 죄인’ 김상흠과 김재호의 진술서를 검토한 내용이다. 전남 관찰사 겸 재판소 판사 민영철은 범부대신 조병식에게 심문 결과 김상흠은 범망을 빠져나간 동학 무리로 다시 비류가 되어 3개 군을 공격하여 군기를 탈취하고 사람을 위협하여 돈과 재물을 빼앗았으며, 사도(邪道)의 주문을 외우고 성찰(省察) 직을 맡는 등 여러 죄상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김재호는 갑자기 비당(匪黨)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오년 때의 놀란 기억으로 도망갔다가 그들에게 붙잡혀 기수(旗手)로 강제로 충당되었고, 고창의 전투에 참여했지만 도망치려고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김재호의 경우는 협박 때문에 따라다닌 것으로 김상흠이 저지른 죄와는 차이가 있지만 죄의 경중을 율로 헤아려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⁹³

이 보고서에 첨부한 「공초기」에 따르면, 김상흠은 갑오년에 태인의 동학 접주 류응로의 포(包)에 투탁하여 성찰에 임명되었고 이후 산내면에 숨어 있다가 영학당이 무리를 모은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두머리 정사국이 있는 곳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가서 그 동정을 살펴보니 밖으로는 영학이라고 하지만 안으로는 사실 전날의 동학이었습니다”라고 말하여 영학당은 동학농민군의 후예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어 고부군으로 들어가 성을 함락시키고 총 40여 자루, 화약 1짐, 탄환 90여 개를 탈취하고, 다음 날 저녁 무렵에는 사방에서 모인 100여 명과 함께 흥덕군을 공격하여 군기고에 남아 있는 총기 10여 자루를 다시 탈취하였다. 그다음 날에는 흥덕 후포에서 200냥을 탈취하고 무장으로 가는

92 『起案』(法部 檢事局), 光武 3年 7月 8日.

93 『司法稟報』, 「全羅南道 觀察使 閔泳喆 報告書(第六十七號)」, 光武 3年 7月 15日.

길에 고창 봉암의 민가를 불태우고 무장군으로 들어가 군총 50여 자루, 화약 1작, 환도 10여 자루, 200여 냥을 탈취하였다. 그는 73세의 연로한 나이로 고창군 수정에 모여 수성군과 접전하다 패하고 흩어지는 중 붙잡혀 압송되었다. 한편 김재호는 영학 무리 수백 명이 마을에 모여 위협하며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는 갑오년보다 더욱 건디기 어려워 겁먹고 도망가는 중에 그들에게 잡혀 강제로 기수에 충당되어 형편상 도망가기 어려워 따라다니던 중 잡혀서 압송되어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⁹⁴

이에 김상흠은 범행한 정황을 이미 숨김없이 다 실토하였으니 그대로 죄를 헤아려 처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틀 후 민영철은 조병식에게 김상흠이 옥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감옥 순검 김창원이 보고하였는데, ‘본서에 수감되어 있는 비류 죄인 김상흠이 본래 매우 늙었고 겸하여 말이 나오지 않는 병에 걸려 여러 날 동안 음식을 못 먹다가, 이번 달 17일 밤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몸소 정시처(停屍處)가 있는 감옥으로 가서 상세히 살펴보니, 전신의 상하에 달리 목을 맨 상처는 없었고 병 때문에 죽은 것이 확실하며 달리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⁹⁵라는 것이다. 관찰사는 검침 결과 병사한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시신은 별도로 매장하였다. 반면 조병식은 김재호의 경우 기수라는 명목은 기꺼이 따른 것이 아니라 강제로 징집된 것이고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곤욕을 당한 것이 확실하니 즉시 풀어주라고 훈령하면서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⁹⁶

94 『司法稟報』, 「全羅南道 觀察使 閔泳喆 報告書(第六十七號)」, 「匪類罪人供招記」, 光武 3年 7月 15日.

95 『司法稟報』, 「全羅南道 觀察使 閔泳喆 報告書(第六十八號)」, 光武 3年 7月 17日.

96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3年 8月 4日. 그런데 법무에서는 김상흠이 옥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훈령에서 그를 사형으로 처결하라고 지시하였다.

네 번째는 정읍의 영학당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체포된 최일서의 아버지 최영두 등 29명의 처벌에 관한 법부 훈령이다. 당시 영학당은 1천여 명에 달했는데 최영두는 봉기한 뜻을 ‘왜놈과 양놈을 물리치고 보국안민(輔國安民)’에 있다고 진술하였다.⁹⁷ 주장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겉으로는 영학을 칭하였지만 내실은 전일의 동학’이었다. 최영두는 저지른 정황을 스스로 다 실토하였으니 사형으로 처리하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으므로 율문을 검토하여 처단토록 하였다. 정읍의 하윤현은 위협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만 총을 짊어지고 최가의 집에 가서 묵었으므로 수종의 지목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그를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고 나머지 27명 중 고부의 최동순 등 5명은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이미 풀어주었으므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고, 정읍의 김춘언 등 22명은 진술서를 참조하여 범죄 정황을 확인해 보니 책망할 만한 점이 별로 없다며 풀어주도록 훈령하였다.⁹⁸

2) 동학농민군 혐의자·조력자

법부 기안 문서에는 동학농민군 참여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된 인사 또는 농민군들에게 협조한 인사들의 사례도 보인다. 전북 용담 서면에 거주하는 이름을 모르는 ‘비적 괴수’ 김가와 같은 읍에 사는 김낙삼은 내부의 비밀 관문에 따라 체포되었다. 김낙삼은 전주부 재판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 보고서에도 그를 ‘동학 괴수의 제자’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법부 검사국에서 살펴보니 범죄를 수사하여 체포하는 것은 자신들의 소관인데 지난번 내부에서 전라북도에 비밀리

97 『司法稟報』, 「全羅北道裁判所判事李完用質稟書(제15호)」, 光武 3年 7月 12日.

98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3年 8月 3日.

에 관문을 보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조회하였다. 이후 전주부는 김낙삼에게 적용할 죄명을 몰라 처리에 주저하자 법부는 동학 참여 여부 문제를 엄중히 조사 후 처리할 것을 조회하였다.⁹⁹ 사실이 아니거나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상황도 범죄 행위로 가정하고 적극 해석하면서 처벌토록 주문했던 것이다.

재판 없이 즉결처분한 군부와 의 갈등이 지속되는 또 하나의 사례로, 친위대 제2대대장은 전북 태인 등지에서 체포한 권성중 등 동학교도와 추후 잡아들인 ‘비류’ 이주보 등 11명을 전주 남문 밖 장사에서 처형했다. 수종한 문복만 등 17명도 비류와 결탁하여 군심(軍心)을 현혹시켰다는 혐의로 장형에 처하였다. 친위대에서 동학교도와 농민군을 동시에 체포 처형하였는데 그 근거는 농민군과 결합하여 ‘군심을 현혹’하였다는 애매한 판단과 처분이었다. 이에 법부는 군율에 관계된 것이 아닌데도 자신들에게 알리지 않고 군부에서 독단으로 집행한 것을 힐문하였다. 즉, “법부의 지령을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인명을 죽인 것은 신식(新式)에 위배되고 게다가 폐지한 정형(正刑)과 장형(杖刑)을 거리낌 없이 집행하여 법률을 준행하지 않았으니 매우 놀라운 일”이니 분명하게 회신하라는 것이다.¹⁰⁰

다음은 충청도 충주목의 노백용이 동학도에 참여하여 이규백의 조카를 타살한 사실, 집주 정택진을 ‘동도죄(東道罪)’로 처형한 이유 등 전말을 엄히 문초 후 보고토록 지시한 기안 문서이다. 농민군 참여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목받아 총살 처형된 이 사건은 복잡한

99 『起案』(法部 檢事局), 開國 504年 閏5月 17日.

100 『起案』(法部 刑事局), 建陽 元年 4月 21日.

송사로 진행되었다.¹⁰¹ 충주목사의 첩보에 따르면 이규백이 참모사가 되면서 노백용의 처남 전만철을 붙잡아 거짓 진술을 받았는데, 전만철이 “정영진의 동생이 몰래 노백용을 시켜서 이규백의 조카를 죽였습니다”라고 자백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정택진은 살육의 간증 혐의로 충청감영에서 붙잡아 동학도의 죄로 총살되었다. 정영진은 이는 모두 이규백의 모함에 빠진 것이므로 상세히 조사하여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소장을 제출하였다. 상세히 조사 보고하라는 법무아문 조희에 따라 충주목에서는 이규백의 형 규상을 붙잡고 해당 동의 두민에게 따져 물었다. 충주목에서는 정택진이 처음에는 옥사의 간증으로 체포되었다가 후에 동학도의 죄로 죽임을 당했으니 억지로 죄명이 더해진 것 같으나 자신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며 처분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법무아문 검사국은 정택진이 정확하지 않은 지목으로 ‘동학의 죄’로 모함에 빠져 비명횡사한 것으로 단정하였다.

“정택진이 과연 동학 무리라면 체포했을 때 어찌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옥사의 간증이라고 지목한 것입니까? 만약 옥사의 간증이라면 어찌 먼저 수범인 노가 놈을 체포하여 심문하지 않고 갑자기 간증을 죽인 것입니까? 여기에서 동학이라는 것은 애초에 지목할 증거가 없고, 또한 옥사의 간증으로 여겼더라도 결국 실정(實情)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규백의 모함에 빠졌다는 것은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라든가 괴이하지 않으며, 해당 감영에서 인명에 소홀하였던 것이니 어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같이 의심스러운 안건은 함부로 다시 논하여 판단하기가 불가능합니다.”¹⁰²

101 『先鋒陣傳令各陣』, 「傳令 公州의 營將과 淸州의 營將 및 忠州의 營將에게 보냄」, 開國 504年 正月 초5日.

102 『起案』(法部 檢事局), 開國 504年 4月 25日.

법무아문에서는 충주목사에게 정택진이 옥사의 간증이어서 정확한 사실을 밝혔는지와 동학도라는 확실한 증거 유무를 매우 빠르게 조사 정리하고 모든 내용을 긴급하게 보고토록 하였다.¹⁰³ 그러나 충청도 가도사 공주목 판관은 이규백은 동학 참모사였고 그가 시킨 일을 수행한 정택진을 동도로 판단하였다고 첩보하였다. 판관은 이규백의 두 번째 진술을 인용하면서 노백용이 빗을 돌려받으려 소란을 일으킬 때 정택진을 시켰고 그가 동도인 것도 명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를 총살한 것은 억지로 죄를 더 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공주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니 어찌 처리할지 알려달라고 회신하였다.¹⁰⁴ 이후 더 이상의 기록은 보이지 않아 최종 처결은 알 수 없다.

농민군 조력자 처리에 관한 사례이다. 황해도 장연군 조니만호(助泥萬戶) 안택순이 ‘비괴’ 김영보를 도주하게 한 사건으로 고등재판소에 관한 일이므로 원장을 함께 보내니 살펴서 재결하라는 통첩이다.¹⁰⁵ 신천군 화포영장 한용건과 최석주는 농민군이 전향한 사례로 군부는 이들이 사람을 함부로 죽인 혐의로 고등재판소로 이송하는 것이 합당하니 그대로 시행하고 다시 한성재판소로 이첩하라고 조회하였다.¹⁰⁶ 신천군수는 한용건은 원래 비적 무리의 화포영장(火砲領將)이었는데 도리어 신천군의 영장이 되어 동학 무리의 가지에서 흘러나온 잔당을 총살한 작은 공이 있지만 비적을 빙자하여 행패를 부려 백성들의 원한이 풀리지 않았다고 첩보하였다. 법부는 이 내용을 한성재판소로 통첩하였다. 이와는 별도

103 『起案』(法部 檢事局), 開國 504年 5月 8日.

104 『牒報』, 開國 504年 閏 5月 4日, 奎. 26287,

105 『起案』(法部 檢事局), 開國 504年 월일 미상.

106 『起案』(法部 檢事局), 開國 504年 월일 미상.

로 신천군수의 첩보를 받아보니 장용연 사건은 고등재판소에 관한 일
기에 원장을 함께 보내니 살펴서 받으라는 통첩이다. 동도의 우두머리인
장수산성 별장 장용연이 황해도 관찰사를 붙잡아 3일 동안 구류하고 자
신들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은 뒤에 풀어주었다. 그 무리인 한
용건의 경우는 귀화하여 의병이라 칭하고 영장이 되어 귀화하는 자를
동도로 몰아붙여 겁박하여 재물을 빼앗고 집을 불태우는 등 행패가 막
심하였다고 한다.¹⁰⁷

동학농민군에 참여한 일로 인해 경제적 피해받은 몇 가지 사례도 확인
된다. 첫 번째는 자살한 농민군의 재산을 추심하는 사례로 전라도 고산
군 정인현이 ‘동학난’ 때 빼앗긴 가산과 집기를 추심할 차로 김치경의 집
에 갔더니 그 아들이 비적의 우두머리로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알고 이
미 목매고 죽었기로 물건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고소 내
용이다. 이후 김치경이 오히려 모함하여 정인현의 조카 정치모는 강원도
홍천군에, 아들 정세모는 전라도 강진군에 정배된 후 귀양에서 풀려났으
나 정세모는 전주부로 잡아 올려서 불문곡직하고 징역형에 처했으니 원
통하다는 것이다. 전라북도 재판소는 이들의 죄명을 상세하고 신속하게
조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¹⁰⁸ 두 번째는 농민군 참여자의 인척을 경
제적으로 압박하여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한 사례이다. 진안군 두미면 전
내삼의 5촌 조카는 전에 ‘동비’에 들어갔다가 근처 마을에서 말을 취한
일로 형벌을 받아 죽게 되었다. 그런데 무주군에 살던 이경장이 적색 노
새를 잃어버렸다면 박성삼 등을 시켜 전내삼에게 그 노새를 돌려달라고
협박하므로 동서로 다녀도 금전을 마련하지 못해서 마침내 칩당굴에 목

107 『起案』(法部 刑事局), 開國 504年 5月 7日.

108 『起案』(法部 刑事局), 建陽 2年 3月 23日.

을 때 자살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법부는 박성삼은 태 100에 처결하여 풀어주되 매장은(埋葬銀)¹⁰⁹ 10냥을 추징하여 희생자의 친족에게 지급 하라고 전라북도 재판소에 지령하였다.¹¹⁰

세 번째 사례를 보면, 갑오년 경상도 예천군 동도 창궐 시 ‘비적 괴수’ 전도야지의 전토를 속공(屬公)함에 을미년에 그 아들 전세진이 안동부에 호소하여 되돌려 받은 사정의 시말을 조사 보고하라는 훈령이다. 그 결과 예천군수 김근연은 전도야지 부자의 토지를 속공한 것과 관련하여 남경익이 간특한 짓을 벌이므로 이를 잡아다가 처벌해 달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법부는 사안을 먼저 자세하게 파악한 후 훈령을 내릴 것이고 상소와 고등재판소 판결 내용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조회하였다.¹¹¹ 경제 문제와 관련한 또 다른 사례로 하동군 아전 정찬규가 범포(犯逋)한 갑오 조 결전(結錢) 3,109냥 5전 5푼은 동학과의 싸움 당시 사용한 공전(公錢)으로 이미 면징된 바 있으니 그를 석방하라는 내용이다.¹¹² 탁지부는 문적이 분명하니 석방할 것을 법부에 알렸고 법부 또한 경상남도 재판소에 석방을 훈령하였다.

5. 해당 법률 조항과 판결 양태 : 맺음말을 대신하여

대한제국 시기 형법의 운용은 기본적으로 『대명률』 형률과 『대전회통』

109 죽은 사람의 장례비를 살인자에게 징수하던 은을 말한다.

110 『起案』(法部 刑事局), 光武 2年 2月 5日.

111 『起案』(法部 檢事局), 建陽 2年 6月 22日.

112 『起案』(法部 檢事局), 光武 2年 10月 29日.

형전의 규정을 이용하고, 처벌 방법은 『형률명례(刑律名例)』를 따랐다. 적도와 강도의 처벌에는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와 제8조를 주로 적용하였다.¹¹³ 『적도처단례』와 『형률명례』는 기존의 형법과 형사 관련 공문에 근거해 법률기초위원회에서 만든 형법으로 『적도처단례』는 『대명률(大明律)』 형률과 『대전회통』 형전의 내용을 참고하여 만든 법률로 강도와 절도 행위의 처벌 근거인 제7조 제7항이 가장 빈번히 사용되었고, 『형률명례』의 국사범 관련 조항은 제11, 12, 14, 15, 16, 19, 29조였다.¹¹⁴ 당시 체포된 동학농민군에게 적용한 법률의 대부분은 『대명률』(1367) 관련 조항이고 그다음은 조선시대의 법률 체계인 『대전통편(大全通編)』(1785)과 『대전회통(大典會通)』(1865)의 일부 조항으로 전근대적인 법률 체계를 활용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동학농민군과 을미의병에 대한 치안 유지책으로 제정된 근대적 법률인 『적도처단례』(1896)와 『형률명례』(1896)도 일부 적용한 바 있지만 극히 예외였다. 『적도처단례』는 조문뿐 아니라 범죄 내용과 형량 규정도 기존의 법전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다.¹¹⁵ 『형률명례』도 『대명률』의 ‘명례’에서 가져온 것이다. 흥덕군의 채내삼처럼 러일전쟁 이후에는 새로 제정된 『형법대전(刑法大全)』(1905)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다.¹¹⁶ 1896년 의병 판결에서는 『대명률』이 적용되었고 『징역처단례』에 의해 국사범으로 유배형을 받아야 하였지만 국왕의 사면권 행사로 형이

113 鄭鎭淑, 「1896~1905년 형법 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 『형법대전』 제정을 위한 기초 작업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2007, 40쪽.

114 鄭鎭淑, 앞의 논문, 16~19쪽.

115 도면희,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푸른역사, 2014, 153쪽.

116 『司法稟報』, 「報告書 二十三號」, 光武 9年 9月 2日.

집행되지는 않았다.¹¹⁷ 그러나 법무행정 관료는 물론 국왕까지도 전제 권력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관용 없이 철저한 탄압을 하였던 동시기 동학농민군에 대한 처벌과는 차이가 크다. 민간에서의 사적 복수도 너그럽게 이해하려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특히 대한제국 초기부터 전제 황권의 강화 추세와 더불어 범부대신은 강력한 형사정책의 시행에 관해 다음과 같이 훈령하였다.

“높고 낮은 것이 펼쳐져 귀천이 자기 자리가 있는 것이다. 준비의 차례와 귀천의 분수가 천지의 도리이며 이것이 바로 개화이다. 어찌 범분·난상·멸륜·패리를 개화라 하겠는가. 지금부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고 천한 자가 귀한 신분을 방해하며 젊은이가 어른을 능멸하는 것은 모두 법을 어지럽히고 덕을 어그러뜨리는 백성이니 잘못이 큰 자는 주살하며 작은 자는 징역을 살려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방문을 게시하여 먼저 가르치고 모두 반드시 알게 하여 후회함이 없도록 하는 뜻으로, 도착하는 대로 관할 각 군에 훈령을 발하여 언문으로 번역 등사하여 고을에 게시하게 하여 한 명의 백성이라도 모르는 폐단이 없게 할 것을 훈령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할 것이다.”¹¹⁸

『대명률』 적용 사례를 보면 황해도 해주의 원용일 포와 함께 장수산에 들어가 활약하던 강달조는 세 가지 조항을 적용받았다. 그는 『대명률』 「적도편(賊盜編)」 ‘조요서요언조(造妖書妖言條)’의 “무릇 요서와 요언을 만들어 내거나 이를 전하고 사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는 참한

117 김항기, 「1896~1910년간 충청지역 의병판결과 의병의 대응」,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7, 2021, 34쪽.

118 『起案』(法部 檢事局), 光武 2年 2月 26日.

다”는 법률, 『대명률』 ‘백주창탈조(白晝搶奪條)’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약탈하는 자는 장 1백, 도형 3년에 처한다”는 법률, 『형률명례(刑律名例)』의 “두 죄를 같이 지은 경우에는 무거운 죄로 논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수형에 처하였다. 함경남도에서 동학 활동을 한 윤형천·송재원·최성도도 ‘조요서요언조’의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였다. 반면 맹범영·김응삼·정승조는 ‘조요서요언조’ 중 “만약 사사로이 요서를 가지고 있거나 숨기고 감추어 두어 관에 보내지 않은 경우”의 율을 적용하여 태 100, 징역 3년에 처하였다. 백낙현과 임수련은 동률 동조의 주에 언급된 “만약 전하거나 이용하여 현혹된 자가 2인에 미치지 않은 경우”의 율을 적용하여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였다.

동학교도 및 농민군으로 참여한 인사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된 법률은 『대명률』 「제사편(祭祀編)」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術條)’였다. 이 조항은 “일체의 좌도(左道)로 정도를 어지럽히는 술법을 부리거나, 도상(圖像)을 은밀히 보관하거나, 향을 피워 무리를 모으거나, 밤에 모였다가 새벽에 흩어지거나,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하는 척 꾸미고 인민을 부추겨 현혹시키는 수범과 종범”에 관한 율로 주로 동학교도에게 적용하였다. 일찍이 고종 원년인 1864년 이 조항을 적용받아 동학사상을 창시한 교조 최제우는 대구 감영에서 처형된 바 있다. 2세 교주 최시형도 같은 조항의 ‘수범(首犯)’에 관한 율로 교수형을 선고하였고 상주하여 그대로 처결하라는 명령으로 형이 집행되었다.

최시형을 보좌한 황만기는 ‘종범(從犯)’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였다. 반면 최시형을 보좌하였으나 그를 체포할 때 길잡이 한 공로를 참작하여 박윤대는 태 100·징역 15년, 송일회는 태 100·징역 10년에 처하였다. 최시형의 사위 김연숙과 최명기 또한 종범에 관

한 율을 적용하여 태 100, 징역 종신을 선고하였고, 김춘서·조성덕·이기현·김영래도 본율에서 1등을 감하여 각각 태 100, 징역 15년에 처결하였다. 그러나 이후 평리원에서 『형률명례』 제17조에 “국사범 외의 범죄는 경중을 참작하여 징역형 대신 속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제20조 아래에 “단, 윤상풍화(倫常風化)에 관한 범인은 수속(收贖)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김연숙을 석방한 바 있다.¹¹⁹ 반면 법부는 이를 부정하고 원율 그대로 다시 시행하도록 하고 당시 이를 판결했던 판사를 확인하여 급히 보고하도록 훈령하였다. 최시형의 제자 김치만으로부터 동학을 전수받은 ‘동학 죄인’ 서정만 등 34명도 같은 조항을 적용하여 교형과 징역 종신에 처하였는데, 이들은 단지 동학을 믿었다는 이유로 처형되었다. 서정만은 수범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교형, 김당골·편합덕·육사명 등은 모두 종범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태 100, 징역 종신을 선고하였다.

북접 농민군 핵심 지도자인 서장옥과 손천민도 같은 조항 수범의 율을 적용하여 교형에 처하였다. 손천민 포의 접주로 활동하다 체포된 서석여와 김시묵에게 적용된 조항도 ‘금지사무사술조’로 종범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각각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였다. ‘동학 거괴’ 고문선과 같이 활동하다 체포된 김준홍·유덕장·이관동·이용구도 동 조항 종범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각각 태 100, 징역 종신으로, 김성초·장한여·이치옥 등에게는 정상을 참작하여 본율에서 2등을 감하여 각각 태 100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지령하였다. 반면 ‘동비’ 조창식·이명삼·정순구·김덕화·이이노·김문영·유달수·김광유 등은 수범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교형, 이

119 『형률명례』는 건양 원년(1896) 4월 4일 법률 제3호로 제정되었는데, 평리원에서 제기한 제17조와 제20조는 실재는 제19조와 제22조이다. 『官報』, 建陽 元年 4月 7日.

인규·홍종한·박순경·조가희·김치삼 등은 종범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도록 훈령하였다.

평안북도에서 활동하다가 진위대에 체포된 ‘동학 여당’ 원의길은 동 조항 종범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태 100, 징역 종신에 선고하고, 오치덕·이원선은 원의길에게 적용한 율에서 2등을 감하여 태 100 징역 10년에 처하여 집행하였다. 평북 접주로 활동하던 강성탁은 수범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그 휘하에서 활동하던 강병업과 박종근은 종범에 대한 율을 적용하되 2등을 감하여 태 100,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선고하였다. 평남 중화군의 ‘동학 괴수’ 김영학도 수범률로 교형, 김광찬은 종범률로 태 100, 징역 종신으로 선고하였다.

‘정음의 비도를 수종한 혐의로 박승도·이흥구·이석교·김대율·최한경은 『대명률』 「명례율(名例律)」 ‘공범분수종조(共犯分首從條)’의 “무릇 공동으로 죄를 범하면, 조의자(造意者, 주모자)를 수범으로 하고, 수종자는 1 등급을 줄인다”라는 율을 적용하여 각각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라는 선고대로 형을 집행하였다. 황해도 장연의 백낙희·전양근·백기정·김계조·김의순·백낙규는 『대명률』 「적도편」 ‘모반대역조(謀反大逆條)’의 “무릇 모반을 공모한 자는 수종을 가리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凌遲處死)한다”라는 율을 적용하여 교형을 선고하고 집행하였다. 동학농민군 참여자 가운데 모반으로 판결한 유일한 경우다.

한편 동학 활동 후 다시 서학에 투입한 김선재와 서가량은 『대명률』 「전택조(田宅條)」 ‘남의 재물을 훼손하면 물건의 수를 헤아려서 절도에 준하여 논한다와 『대전회통』 「추단조(推斷條)」 ‘유생(儒生)으로 토주관(土主官, 수령)에게 발악한 자는 장[태] 100, 유 3,000리[징역 종신]의 율’을 적용하였다. 김성원의 경우는 동학에 투입하여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판

혐의로 『대명률』 「적도편」 ‘발총죄(發塚罪)’ “무릇 분총(墳塚)을 발굴하여 관곽(棺槨)을 드러낸 경우”의 율을 적용하여 장 100, 유 3,000리에 처하는데, 이를 『징역처단례(懲役處斷例)』 제1조에 의하여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할 만하다고 판단하였지만 2등급을 감등하여 태 100, 징역 10년에 처하였다. 형리 정의중의 경우는 농민군의 탈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명률』 「포망편(捕亡編)」 ‘주수불각실수조(主守不覺失囚條)’의 “일부러 놓아주면 각각 수인(囚人)과 같은 죄이다”라는 율에 「명례편(各例編)」 ‘칭여동죄조(稱與同罪條)’의 “사죄(死罪)에 이르면 1등급을 줄인다”라는 율을 참조하여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되 탈옥수를 붙잡아 바치는 날에는 풀어주라고 훈령하였다.

『대전통편』과 『대전회통』을 적용한 농민군 관련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봉준의 후장이자 동학 접주인 김재홍, ‘비괴’ 박만귀, ‘관사를 불태우고 돈과 식량을 약탈한’ 이동엽과 승려 금월 관련 판결이다. 김재홍과 박만귀·이동엽은 『대전회통』 「추단조(推斷條)’의 “군복을 착용한 채 군마를 타고서 관문에서 작변(作變)한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참형[교형]에 처한다”라는 율을 적용하여 교형에 처하고 금월은 “그 추종자는 장 100, 유 3,000리[징역 종신]에 처한다”라는 율을 적용하였다. 동학 농민군 총대장 전봉준과 손화중도 이 조항을 적용하여 처형하였다.¹²⁰ 영학당으로 최일서를 수종한 하윤현은 『대전회통』 「추단조」와 더불어 『대명률』 「명례편」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수종자는 1등을 감한다”라는 율을 적용하여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였다. 한편 농민군 활동 이후 의병과 기독교에 투탁한 바 있던 홍병섭에 대해 경기재판소는

120 『刑事裁判原本』, 『東學關聯判決宣告書』, 「第三十六號 判決宣告書原本 孫化中」 및 「第三十七號 判決宣告書原本 全琿準」, 開國 504年 3月 29日.

『대전회통』 「금제조(禁制條)」의 “시골에서 세력으로 백성을 억압하고 침학함”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는 것이 어떠하냐고 문의한 바 있다. 이에 법부는 『대명률』 「명례편」의 “수종자는 1등을 감한다”라는 율을 적용하고, 김준희에게 적용한 원래의 율에서 1등을 감하여 ‘태 100, 징역 3년’에 처하라고 지령하였다.

정택진의 경우는 ‘동도죄’로 법률적 판단과 심리 없이 총살 처형된 특이한 사례였다. 서창길은 범망에서 빠져나간 후 서학에 투입한 혐의로 ‘비류죄’를 적용하여 태 100, 징역 15년형을 판결받았다. 그러나 ‘동도죄’나 ‘비류죄’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 죄명이 아니다. 이같이 적용할 수 없고 판례와 법률적 근거도 없는 새로운 죄목까지 생산하면서 국가 폭력으로 수렴시키면서 시종 탄압 처형하였다. 서창길에 대해서는 이후 형명이 바뀌어 법부에서는 『대전회통』 「금제조(禁制條)」 “시골에서 세력으로 평민들을 침학한 자”에 관한 율을 적용해야 하나 사면령 이전 범행이므로 사면령을 삼가 받들어 1등을 감하여 태 100, 징역 15년에 처하였다. 오재봉·양선태도 서창길과 같은 ‘비류죄인’으로 처벌하였다. 전라남도 재판소는 이들은 『대전통편(大全通編)」 「형전(刑典)」 ‘추단편(推斷編)’의 “군복을 착용한 채 군마를 타고서 관문에서 작별한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참형에 처한다”라는 율을 적용해야 하나 종신 이상은 선고한 판례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법부는 건양 원년(1896) 4월 4일 법률 제3호로 제정된 『형률명례(刑律名例)』 제15조¹²¹를 개정한 후 법부에서 훈령을 내리기를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님에도 선고한 격례(格例)가 없다고 하니 즉시 율을 헤아려 선고하고 보고하되, 형명(刑名)에 특히 주의

121 “第15條：國事犯을 役刑에 處할 시는 만드시 上奏를 經함이 可함”.

를 기율이라고 지령하였다.

‘동도 화포영장’ 김선장과 봉산군 화포 이원조는 건양 원년 4월 1일 법률 제2호로 제정된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의 제7조 제7항의 “1인 혹은 2인 이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궁벽한 곳 혹은 대로상에서 주먹·다리·몽둥이 혹은 병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하여 재물을 겁취한 자는 수범과 종범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율을 적용하여 교형을 적용받은 유일한 사례였다.

참고문헌

자료

『官報』

『起案』(法部 檢事局)

『起案』(法部 司理局)

『起案』(法部 刑事局)

『法部去來案』

『司法稟報』

『先鋒陣傳令各陣』

『牒報』

『刑律名例』

『刑事裁判原本』, 『東學關聯判決宣告書』, 「第三十六號 判決宣告書原本 孫化中」 및 「第三十七號 判決宣告書原本 全瑋準」

단행본

이영호, 『동학과 농민전쟁』, 해안, 2004.

도면희,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푸른역사, 2014.

연구논문

金容燮, 「全瑋準供草의 分析: 東學亂의 性格一斑」, 『史學研究』 2, 1958.

吳世昌, 「英學黨 研究」, 『史學論叢: 溪村閔丙河教授停年紀念』, 溪村閔丙河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刊行委員會, 1988.

도면희, 「규장각 소장 법부 관련 자료의 내용과 자료적 가치」, 『奎章閣』 26, 2003.

鄭鎮淑, 「1896~1905년 형법 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형법대전』 제정을 위한 기초 작업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2007.

유승희, 「法部 <起案>의 자료적 성격과 특징」, 『書誌學研究』 43, 2009.

왕현중, 「1894년 농민전쟁 지도자의 재판과정과 판결의 부당성」, 『韓國史研究』 168, 2015.

- 이영호, 「충청남도 서남부 지역의 동학여당(東學餘黨)과 서양종교」, 『역사와 담론』 88, 2018.
- 김향기, 「1896~1910년간 충청지역 의병판결과 의병의 대응」,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7, 2021.
- 조재곤, 「해제」, 『법부 검사국 기안·법부 형사국 기안·법부 사리국 기안』(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5.

종합 토론

좌 장: 김양식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토론자: 한보람 청주대학교 강사

김기성 군산대학교 인문도시센터 전임연구원

김항기 독립기념관 연구위원

유바다 고려대학교 교수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배항섭 성균관대학교 교수

좌장 김양식

바로 종합토론을 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양식입니다. 앞서 세 주제의 발표가 있었는데, 재판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생존한 동학농민군이 어떻게 활동하고 법망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는가, 이런 문제를 사법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룬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한 세 주제에서 다룬 동학농민군 사례는 수백 건 정도가 될 텐데, 다양한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생존한 동학농민군의 삶이 어땠는지, 그들의 죽음과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엿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진행은 약정토론을 듣고요, 그 다음에 자유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론자에 대한 소개는 아까 시작할 때 이미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각 주제 발표별 토론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사법품보』를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에 대해서 도면희 교수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다양한 유형 사례를 4개의 범주로 나눠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반정부 활동한 사례, 그 다음에 동학교단 재건 활동 사례, 그 다음에 사적 폭력 문제, 이따 토론 시간에 나오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외래 종교에 의탁한 사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청주교육대학교 강사로 계신 한보람 선생님이 토론 질문을 해주시죠.

토론자 한보람

안녕하세요. 도면희 선생님의 토론을 맡은 한보람이라고 합니다. 도면희 선생님이 『사법품보』 최근에 나온 것도 구체적으로 해제를 해주셔서

저도 그 부분을 길잡이 삼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품보』를 통해서 동학교도들의 활동을 정리해 주셔서 저도 공부
 가 많이 됐고 재밌게 봤습니다. 『사법품보』는 다들 아시겠지만 ‘서민들의
 실록’으로도 불리기도 할 만큼 지배층이 생산한 문서가 기록하지 못한
 민중의 목소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받고 있네
 요. 특히 지방 재판소에서 올라온 실무 기록이 주가 됐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거의 그대로 수록하고 있어서, 당대 계층사회의
 동향과 갈등 양상, 민중의 저항, 여론의 향방까지 입체적으로 보존돼 있
 는 흥미로운 사료인데요. 그렇지만 『사법품보』 연구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갑오년부터 광무 연간까지 망라하고 양적으로 총 180책이기 때
 문에 너무 거대한 분량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법품보』 갑 122책에 대해서는 역주 작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접근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지
 긴 했는데요. 그리고 또 역주 작업 때문에 연구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지
 만, 여전히 방대한 물량과 사료 체계의 이해 부족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
 는 힘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면희 선생님께서 『사법품보』를
 통해서 동학농민혁명 당시 그리고 그 이후까지 동학도의 동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주시고 당대의 현실 지형에서 동학도의 활동 양상
 을 세밀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학도의 활동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제시해 주셔서, 앞으로 진행돼야 되는 『사법품보』를 통한 동학
 농민혁명 관련 후속 연구하는 데 기반 마련과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그
 런 연구를 제시해 주셨다는 점에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선생님의
 연구를 읽으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토론
 이라기보다는 발표문을 보면서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는 형식으로 토론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학농민혁명 이후 상황에 대한 조명과 정리의 부분인데요. 사실 『사법품보』는 갑 1책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은 다 1895년 이후 기록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대부분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사회 상황, 동학도의 활동을 조명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요도가 높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사법품보』에 등장하는 영학당 관련자 문서들을 통해서 영학당 봉기의 준비, 실행 과정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사법품보』에는 영학당 외에도 활빈당 같은 동학농민혁명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영학당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동학 접주에게서 도를 전수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직접적인 단서가 제공이 되고 있지만요. 『사법품보』에서 저는 여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 검토했었는데, 여성 관련 내용을 보면서 얼핏 봤을 때도 화적, 비도, 비류,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당시 비록 동학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이 없더라도 동학농민혁명의 사회적인 영향이 굉장히 컸을 텐데, 그 영향 하에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사건들도 다수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발표문에서도 제시해 주셨던 것처럼 당시에 관군이 비밀리에 순찰을 하면서 동학도에 기미를 보이는 인물들, 기미만 보여도 수사를 하거나 보부상 조직의 상무사를 통해서 동학의 재건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거나 주요 인물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동학이 내세우는 활동을 이어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당대의 도적이라고 치부됐던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영학당 이외에도 비슷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사법품보』라는 거대한 자료에서 더 찾아볼 수 있을지가 궁금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동학 여당에 대한 정부의 대응 양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발표문에서 선생님이 제시해 주셨듯이 『사법품보』에는 형사사건의 형량을 경감할 만한 때, 법률상 적용에 의의가 생길 때 사건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 질품한 내용이 들어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품보』 속 논의들을 보면 당대의 지방관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 저는 그 부분을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사건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국가의 인식, 판단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학, 동학도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로인데요. 그렇다면 동학에 대한 국가의 판단과 태도, 처벌 양상들을 『사법품보』를 통해서 더 세밀하게 추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법품보』를 검토함으로써 동학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처벌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지,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장기간에 걸친 국가의 태도 변화 양상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고찰해 볼 수 있을지가 궁금했습니다. 발표문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남궁탁, 이원칠 이런 사람들이 결세 부과를 항의해서 세무주사를 구타한 사건을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람들이 비적 무리의 잔당이라고 하는 죄목은 용서할 만한 것이라고 넘어간 관찰사 서리의 태도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관찰부의 태도가 동학의 재건 동향을 비밀리에 수사해서 관련자들을 다 색출하고 있었던 국가 정부의 태도와는 차이가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시기별 개입 여부 그리고 조선 중앙정부의 입장 그리고 중앙과 지방 관아의 시각차, 지방관 개인 개인의 판단 차이 같은 다양한 측면들이 『사법품보』에 비쳐져 국가의 판단과 처벌의 시기 그리고 역사적 단계, 판단 주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면 당대 현실을 정밀하게 살

펴보기 위해서 보다 세부적인 고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품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학을 빙자한 사적 폭력 부분에 대한 서술인데요. 선생님께서 동학도의 사적 폭력에 대해서도 발표문에 비중 있게 정리를 해주셨고, 저도 읽으면서 생각했을 때 동학혁명의 과정에서 어떤 농민혁명 과정에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적 폭력 양상까지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 혁명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인간의 행동 양상들을 이해를 할 수 있고, 당대의 사회구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갈등 양상, 역사적 변화상 같은 것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동학농민군 조직의 힘을 믿고 일어났던 사적 폭력 관련 사건이 이 『사법품보』에 다수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발표문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서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의 어두운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함께 종합적으로 고찰되고 전개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선생님께 견해를 여쭙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장 김양식

감사합니다. 크게 네 가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법품보』를 읽어보지 않았으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재미있는 사료이죠. 『사법품보』를 통해서 대한제국 그러니까 1900년 전후의 시대상, 사회상을 볼 수 있는 사료인데, 그걸 가지고 세밀하게 분석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흔히 등장하는 도적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

지, 그래서 이 질문을 보고 스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실제 1900년 전후에 화적, 도적의 예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1887년부터 화적 수가 급증을 하다가 1893년경부터 사료 속에 화적 사례가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1895년~6년경부터 다시 화적 기록이 점증해서 1900년 전후에 절정을 이뤄나가거든요. 따라서 이 큰 흐름 속에서 동학농민군과 화적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영학당과 비슷한 사례를 『사범품보』에서 더 확인할 수 있느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사범품보』를 통해서 보다 연구를 확장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사적 폭력 문제인데, 이 네 가지 질문 중에서 사적 폭력 질문은 그다음 토론 질문에 또 나옵니다. 그때 몰아서 사적 폭력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앞에 세 개의 문제만 지금 답변해 주시죠.

발표자 도면희

질문이 상당히 더 연구를 해야 될 주제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1906년 을사조약 이후부터 일어난 의병과 연관되는 질문인데, 일반 농민들이 봤을 때는 의병이나 화적이나 큰 차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일제시기 만주에서도 독립군이나 마적이나 구별하기 힘들습니다. 그럼 뭘로 구별하느냐, 이념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이념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죠. 군자금을 내놔라 하는데, 이 군자금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쓰는 거다 또는 보국안민을 위해 쓰는 것이 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항하면 공적인 가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그걸 그렇게 썼느냐 안 썼느냐는 정말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그 당시에 영학당, 활빈당, 그 외에도 1906년 전후에 대한제국기 수탈이 있는 곳에서는 많은 봉기들이 일어났습니다. 1904년 시흥민란이 등 수많은 봉기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인데요.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국가를 위한, 민족을 위한 싸움이면 무조건 숭고한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가치가 낮은 것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의병이 과연 어디까지 의병이고 동학은 어디까지 동학으로 봐야 될 것이냐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개별 사건들에 대해서 다 추적을 해야 결론이 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학당도 원래 보국안민을 내세웠다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공명정대한 투쟁을 하려고 했을까? 라는 점에서는 그건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 질문은 좀 더 개별 사례들에 대한,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직접 답사를 해본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쉽게 결론 내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동학에 대한 국가의 입장, 그다음에 지방관의 입장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동학이라 하는 것이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었을까? 우리는 지금 동학농민혁명을 대단한 싸움, 투쟁으로 바라보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지방관의 입장에서, 지방관 밑에 있는 향리의 입장에서 다 다르게 느껴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층을 나눠서 들어가 본다면 어떨까. 그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는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진압할 만한 의지도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아까 왕헌종 선

생님 발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만은 일본군한테 사실 맡겨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어떤 경우에 지방관에 따라서는 동학의 의의에 공명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지방관은 전혀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 않았을까. 통일된 그런 입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큰 주제여서 그 이상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사실 제가 『사범품보』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진 못했고, 그 반대쪽에 있는 기안 사료는 다 봤습니다만, 사실 도적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이 시기 사범품보나 기안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좌장 김양식

한보람 선생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시죠? 두 번째 약정토론 들어보겠습니다. 군산대학교 인문도시센터에 게시는 김기성 선생님의 토론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토론자 김기성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김기성입니다. 선생님의 『사범품보』에 나와 있는 동학도의 활동을 잘 정리해 주셔서 수고가 참 많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었던, 가지지 못했던 어떤 양상들을 드러내기 위한 작업들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몇

가지 질문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에 관한 겁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반정부 활동, 동학교단 재건 활동, 사적 폭력, 천주교·기독교 등 외래 종교로의 전향 등의 네 가지 범주로 하고 그 밑에 세부 기준을 다시 부여하시면서 각 절에 활동을 세분화해서 서술하고 계십니다. 사적 폭력 같은 경우는 도입 부분에 왜 이런 분석을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의견들을 나름대로 잘 설명하고 계신데요. 다른 부분에 가면 그런 설명이 별로 없어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썼을가 의도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2장 1절 부분에 동학농민혁명 전후 활동 사례들은 좀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우선 다른 장절은 보면 주로 2차 봉기 이후 사건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과거에 저질렀던 행적들이 드러난 경우까지 포함해서 1, 2차 봉기를 포함해서 활동을 분류하고 계신 것 같은데, 1, 2차 봉기는 기본적으로 반정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정 활동의 분류 기준으로 삼으면 봉기에 참가했던 모든 동학도의 활동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그렇다면 반정부 활동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차 봉기 이후에 즉 2차 봉기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그들은 어떻게 반정부적인 활동을 계속했던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백낙희는 해주부 공약을 시도했고, 남궁탁·이원철 같은 경우는 세무주사·세무시찰관과 갈등을 겪었고요. 박만귀 역시 의병에 가담했다가 품팔이를 하던 중에 발각됐습니다. 이런 것을 반정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박만귀와 백낙희를 같은 계열로 보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백낙희 같은 경우는 김구를 비롯한 여러 동학 임원과 관계가 있었는데, 박만귀 같은 경우는 박만귀가 가담했다는 의병이 전우

부대였는지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병과 동학은 지향 자체가 다른 집단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같은 계열로 보는 게 과연 맞는가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승려 응운은 도망치다가 체포당했고, 김순여, 황준삼, 백낙중, 이경태는 나중에 기도를 드리다가 체포됐거든요. 뚜렷한 반정부라 활동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순여 같은 경우는 개별적 동학 수련과 유사하고요, 표영조 같은 경우는 2차 봉기 이후에는 사적 폭력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도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만큼 의병 활동을 분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다만 2장 1절 같은 경우는 다른 성향을 고려했을 때 사례들이 분산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영학당인데요. 저는 동학을 이단적 존재로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학은 기본적으로 구체사상으로서 '사회에 대의를 남긴다' 이런 민중의 역모와 열망, 기저에 흐르는 불만, 욕망, 울분 등을 기반으로 한 건데, 개항기는 사회적 혼란기였고 그래서 혼란한 시기에 백성들이 종교적 공동체가 제공하는 보호에 경도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근대적 신종교의 탄생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학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생해서 대규모 교단을 이루었죠. 교단의 확장 과정에서 분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단 이런 현상은 기독교, 불교에서도 보이는 종교가 가지는 일반적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정달 선생님 역시 동학농민혁명을 분석하면서 남접이 가졌던 이단성에 주목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학당 존재가 주목이 되는데, 영학당을 동학의 분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단적 존재로 볼 수는 없을까입니다. 필자(도면회)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동학과 개신교, 천주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영호 선생님께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동학이라는 이름 자체가 개신교, 천주교로 대표되는 서학에 대립하는 의미가 있고, 초기 동학과 개신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영학당에서 동학과 기독교가 결합하는 것은 의외라고 할 수 있는데, 도 선생님께서 이영호 선생님의 책에 서평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에서 거룩, 일용, 천국, 육신, 성령 등등 기독교 용어를 받아들이고 일요일마다 예배를 하고 기독교의 십일조와 비슷한 성미제도 등등 동학, 천도교의 시천주 한울님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서술하신 바가 있습니다. 물론 문명개화 노선으로 전환한 손병희는 천도교와 동학의 단절을 시도했기는 하지만 동학, 개신교, 천주교 사이에서 서로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영학당을 동학의 이단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연구를 보면 동학농민혁명을 조선 후기 이래 민중 혁명의 폭발, 최고점 혹은 비극적 결말로 보는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조선 후기부터 식민지배 이후까지 이어지는 긴 호흡 속에서 바라보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구 초점 역시 1, 2차 봉기 이후 다른 운동들과 연결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즉 외세에 대항하는 동학교단의 대통합이 아니라, 분화와 발산의 측면에서 주목해서 영학당, 천도교 등을 바라볼 순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과제로 5장에서 기독교·천주교 등 외래 종교로의 전향은 다른 장 절에 비하여 사례도 좀 적고 분량도 적은데, 아예 두 개를 통합을 해서 동학의 분화와 이해의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영학당은 물론 외래 종교로 전향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면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사범품보』에 기록이 가지는 의미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진

압과 체포의 기록들인데 그래도 보시면은 다른 지역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보통 호남·호서 사례가 중심입니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1900년 이후에 동학은 호남·호서 중심에서 관서지방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러한 동학 중심지의 변화와 『사법품보』에 기록된 진압과 체포 사례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당연히 정부 쪽의 진압과 체포의 영향이 결정적이었을 거고, 동시에 진압과 체포 과정에서 향촌사회에서 동학 관련 혐의가 일종의 주홍글씨가 되었다는 점도 함께 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일순의 증산교, 차경석의 보천교, 김연국의 상제교 등등 동학과 일정 정도 연결점에 있는 신종교들이 동학의 중심이 관서에 넘어간 이후에도 호남·호서 지역에서 많았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민중의 기저에 흐르는 불만, 욕망, 울분 등등 이거에 기반한 종교적 공동체의 보호를 추구하는 성향들은 호남·호서 지역에서의 동학의 배치 그리고 그 속에서 진압, 체포의 역할 등과 함께 유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사적 폭력이 가지는 의미인데요. 이 부분이 읽으면서 가장 흥미를 끌었는데요. 사회개혁 혹은 혁명과 폭력과의 관계는 역사학을 넘어서 인문학 전체의 연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4년 촛불집회 이후 한국의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폭력성을 부정하거나 거리 두는 조짐들이 나타났고, 이번에 12.3 계엄 이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민중 폭력에 대한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적 같은 경우에는 발터 벤야민의 폭력 개념을 빌려와 신적 폭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재곤 선생님께서는 이들의 사적 폭력을 개인적인 원한, 금전 관계, 분묘 분쟁 등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히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존 향촌 질

서하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욕망, 욕구들이 표출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기존 질서에 대한 타격이라는 측면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이들의 폭력을 무한히 긍정할 수 없겠지만 사적 폭력을 다각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좌장 김양식

마지막 부분은 생략하셔요. 4개의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조선 후기에서 식민지에 이르는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의 제기라든가, 동학농민군이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분화되고 발산되어 나가는 입체적인 과정을 추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질문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히 사적 폭력까지 다 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표자 도면희

1차, 2차 봉기 문제가 나왔는데, 1차 봉기는 관군이 진압 처벌할 힘이 없었잖아요? 대체로 2차 봉기에서 일본군의 힘을 빌어 진압되었으니까요. 그래서 2차 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잡아들여 가지고 과거에 그 동학군이 행한 행적을 봅니다. 일단 귀화한 사람은 주도적 인물이 아니면 사형에까지 처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주도적인 인물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참형을 실시한 경우가 많으니 사법품보를 통해서까지 이들에게 집

행할 형벌을 질품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의병과 동학은 기본적으로 지향이 다를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동학농민혁명의 제2차 봉기는 의병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 동학이 내세운 보국안민이나 의병들이 내세운 왕권 수호 또는 외세 반대, 똑같은 지향 아닙니까? 물론 그 주체가 양반 유생과 양반 유생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많은 접주들 중에는 대부분 유생 출신이 많았고, 그 지역에서 말 꽤나 하고 인망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달랐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학 투쟁을 하다가 갈 데가 없으면 고향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은 1895년 을미의병 정도로 일단 몸을 숨길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문만 외웠는데 왜 잡혀 가서 처벌받았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봉기 과정에서 그 주문이라는 것이 효력이라든지 뭐가 있었겠죠. 동학 종교적 의례만 행한 것으로 나온다고 해도 그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지 아마 대답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범품보』에 있는 기록만 가지고는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표영조는 포수들의 대장을 했죠. 동학농민군 중에 제일 중요한 병력이 총 쏘는 사격부대거든요. 보병대가 아니라 화기영장이라고 하는 부대들. 그래서 표영조는 사냥꾼들과 총포 쏘는 사람들을 거느리는 동학 접주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적 폭력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사적 폭력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동학농민군의 선봉에 서서 관군을 깨뜨리는 그런 선봉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했

습니다.

그다음에 영학당 문제인데,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한국 근대사의 마지막 자주적 동력을 동학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동학을 높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동학의 교리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게 되면 천주교, 개신교에서 나타난 것을 그대로 답습해온 게 많기 때문에 일종의 작용과 반작용, 상호의존의 적대적 융합 그런 문제라고 볼수 있는거죠.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영학당에서의 영학 종교는 이단이라고 보기보다는 동학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정도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이단이 되려면 영학당을 이끌었던 최익서라든지 김태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경전을 하나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문을 외워서 사람들에게 초인적인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없으면 교단 조직을 만들어 낼 수 없죠. 그래서 영학당은 이단 조직이라기보다는 그냥 과거 동학의 조직과 이념을 빌려 투쟁을 하려고 했던 급진적 세력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학과 근대 신종교들의 문제는 개항기부터 일제시기를 거쳐 1945년 이후까지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문제로 보기 때문에 가볍게 취급할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19년 3.1운동, 1910년대 그리고 1920년대, 1930년대까지 계속해서 한국사에 작용하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연구를 좀 더 깊이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 종교로 전향 이 부분은요. 『사법품보』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1902년부터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신문기사에 등장합니다. 제

주도의 민란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다 외래 종교를 등에 업고 관과 싸운다든지 아니면 민중을 수탈한다든지 이런 양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천주교와 개신교이고, 그밖에 러시아정교, 일본 불교를 수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 서구 열강과 일본의 영사재판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관과 싸우거나 민중으로부터 자기 필요한 것을 탈취하는 식의 상황이기 때문에 동학교도 중에서 불순한 마음을 품은 사람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동학의 포교 중심을 북부 지방으로 옮기는 문제와 진압과 체포의 인과 관계는 어떤 것인가. 1900년 이후에는 교주 손병희가 관의 수배를 피해 일본으로 도피하고 교단 조직은 이용구한테 맡겼죠. 교단 조직을 맡은 이용구는 평안도·황해도 등 북부 지역 중심으로 동학 전파를 했기에 『사법품보』에 호서·호남 교도들이 많이 등장한 것 같아요. 좀 더 첨언하자면, 동학 교단이 북부 지역 중심으로 활동을 했기에 3.1운동 시기에 주로 북쪽 지역의 천도교 교단의 참여가 아주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호남과 호서 지역에서 증산교, 보천교, 상제교 등 신흥종교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 신흥종교는 교도들을 끌어모아 정부와 직접 대항해서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기도와 교리 전파 등 활동에 치중했기에 정부의 탄압을 받지 않고 유지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적 폭력 문제는 사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지만 저는 “모든 인류 역사는 폭력이 아니면 발전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모든 국가는 그 발생기에 폭력을 수반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 또 선진국들 다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고 그 위에서 안정적인 토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근원적인 동력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 농민들도 국가권력에 맞먹는 힘을 동학농민혁명에서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아무리 관청에 호소하고 재판관에게 호소해도 안 되는 부분들을 이 혁명 과정 속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들의 폭력에 의한 국가 장악이 만약에 좀 더 오래갔다면, 그리고 그들이 좀 더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국가를 바꿀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전망을 못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좌장 김양식

지금 질문하신 김기성 선생님은 젊은 연구자이고 해서 상당히 좋은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이 충분하면은 상당히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적 폭력 문제는 실제 동학농민혁명기에도 이런 현상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랬을 때 이런 폭력에 대한 정의, 개념, 그리고 폭력에 대한 해석이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규정짓는 데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차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매우 많습니다. 시간상 주제발표 2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발표 2는 1894년 이후 동학농민군 처벌과 근대 사법의 편파성에 대해서 왕현중 연세대 교수님이 발표하셨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효수, 동학농민군 지도자 대부분이 효수를 당했잖아요. 이 효수를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 학살의 사법적 의미가 무엇이나. 보통 효수를

당했다, 학살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갖는 사법적 의미에 대해서 탐구를 하셨고 그다음은 동학농민군에 대한 폭력적 사법적 조치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결론을 끄집어냈는데, 이 문제는 근대 이행의 주체와 경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깐 무자비한 학살, 효수를 통해서 민중적인 근대 주체의 길이 차단된 거죠. 일단 독립기념관에 계신 김항기 연구위원님의 토론을 한번 들어보죠.

토론자 김항기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독립기념관의 김항기입니다. 왕헌종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발표는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동학의 사상과 조직 구조, 농민군의 봉기 과정과 일본군 개입 및 전투 양상, 동학농민혁명의 반외세 반봉건 성격, 최근에는 어셈블리카지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봉기 이후의 처벌, 그리고 그 처벌을 가능하게 했던 제도적 조건, 사법제도 운영의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기 때문에 참 재미있게 봤고요.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틀에서 선생님께서는 이 사법체계의 편파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하셨습니다. 이 편파성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효수형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효수형이라고 하는 것이 비사법적 처벌이라고 하는 성격에서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신의 머리를 대중 앞에 굉장히 오랫동안 전시함으로써 어떤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그것을 바라보는 대상자, 백성에 대한 정치적 경고, 질서 회복을 위한 상징적

효과를 노린 조치로써 굉장히 좀 야만적인 면이 있는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체들과 사법기관이라기보다는 토벌군이었던다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극 같은 것을 봐도, 주로 군대에서는 사극에서 나오는 대사가 군법은 지엄하고 군령은 추상같다 하면서 당장 목을 베어 군문에 효수하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체가 군대였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과연 비사법적 처벌 문제로만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비단 이 시기뿐만 아니라 홍경래의 난이라든가 임술민란의 가담자, 또 이 시기와 가깝게는 임오군란의 가담자들도 효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한국전쟁 시기에도 빨치산 가담자 같은 경우 효수되는 경우가 어떤 지방의 보고서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많이 봤던 소설 『태백산맥』의 가장 마지막 부분도 대부분 빨치산 가담자였던 염상진을 효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요. 이 효수하고 하는 것은 좀 굉장히 그 시기와 아울러서 쭉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농민군에 대한 효수라고 하는 것이 사법제도의 전환기 형식상 전통적 관행에 따른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근대적 사법 절차를 무시하려는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전통적인 관행에 따른 조치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어떤 면에서 근대적 사법 절차를 무시하려는 의도성이 있다고 느끼시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어떤 사법제도의 편파성이라고 했을 때, 어떤 재판 날짜 같은 경우도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되는 4월 1일 이전, 3월 29일 이틀 전에 먼저 진행된 걸로 인해서 어떤 근대적 재판이 이뤄지지 못하고 편파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절차적으

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절차적 측면에서 보자면 절차적 정당성을 다 지켜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 재판일과 이에 따른 재판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도 농민군의 주요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대전회통』 형전 「추단조」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관청문에서 변란을 일으킨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참수한다고 하는 내용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전기 의병에 대한 처벌 역시 『대명률』 「소송편」이나 「잡법편」의 조항에 따라서, 관청에 침입해서 관리를 협박하거나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 인해 사리가 무거운 자로 간주되어 처벌받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재판 자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법조항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또 전례의 여러 가지 사례와 비교해 가지고 어떤 일관성이 확인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사법제도의 편파성이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농민군들에게 이러한 사법제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적용시키지 않은 것은 분명히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합법성이라는 것이 지켜졌을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일종의 사법제도를 통해서 어떠한 사안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합법성이 확보된 경우 사법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좌장 김양식

이 문제는 해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1895년 3월 29일 전봉준 등의

재판 문제를 편파성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어쨌거나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형태적, 사법적 정당성을 인정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 제기였던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표자 왕현종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단만, 이 재판 자체는 미리 선입견 속에서 설정해 놓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동학농민전쟁 2차 봉기에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과정을 우리가 군사적인 전시의 처벌 과정으로만 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투과정에서 농민군의 지도자가 참여자를 그냥 학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는 모두 사로잡힌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처벌한 것인가에 일정한 조사가 있었고, 또 이것은 공개재판을 통해서 일정한 형을 처결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참형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재판 과정으로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뒤에 질문에도 나오는데 과연 전시 상태에서 포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그런 국제법의 문제도 걸리는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전통적인 법률과 민란의 처벌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시행했고, 특히 19세기 들어와서 몇 차례 사옥을 통해서 천주교도들에 대한 가혹한 징벌 같은 게 일어났기 때문에 일종의 관행화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근대적인 재판, 사법제도의 도입이라는 약간의 허상을 가지고 구분해서 자꾸 보려고 하는 것에 무

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형태는 18세기나 19세기 경우에 종교적인 탄압 이외에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되었고, 더군다나 그것은 일종의 공초라든가 사유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전시에 가혹한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 지도자에 대한 재판과 비교해서는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썼던 논문하고 관련해서 보면 전봉준에 대한 사형, 처분의 근거, 이런 것들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 판결 선고서가 굉장히 편향적으로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2차 봉기는 일본에 대항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전통적인 형벌로 처단한 거죠. 그거 자체가 의도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설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것하고 새로운 상황 속에서의 법률 정정하고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적용됐다는 점을 우리가 부각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대 사법의 편파성이라는 건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장 김양식

결국 어떤 법의 형식적인 논리 내지는 재판 절차보다는 실질적으로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법이 적용됐는가 내용적인 측면에 더 무게

중심을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고려대학교에 계신 유바다 교수님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유바다

네, 토론을 맡은 유바다입니다. 방금 김항기 선생님 토론하고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글을 읽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저도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왕현중 선생님 글에 주제 의식이 되는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저도 특히나 농민군 진압 자료는 참여자 조사를 하면서 많이 읽었는데요. 이것은 특히나 2차 봉기 때에 집중해야 되죠. 농민군들을 대상으로 한 처형이 너무 많습니다. 곳곳마다 효수, 포살, 총살 이런 기사들이 난무합니다. 이걸 이제 왕현중 선생님께서는 즉결처분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즉결처분은 오늘날에도 상당히 대단히 문제시되는 절차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표문에서도 나왔지만 비사법적 처벌에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재판없이 처벌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즉결처분, 돌이킬 수 없는 사형,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특히나 농민군 진압 과정에서 대단히 심각했다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선생님께서 촉구를 하셨고요. 아마 그래서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조금 더 보태자면, 제가 토론문 내용에도 썼습니다만, 여기 사실 제가 쓴 내용들은 왕현중 선생

님께서도 다 아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오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볼 만한 지점이 몇 군데가 있어서 저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질문을 던지는 지점에서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발표문에서도 지적됐듯이 적어도 갑오개혁이 시작되고 나서는 군국기무처에 의한 이렇게 체결되었죠. 모든 죄인은 사법관이 재판 명령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오늘날 근대국가에 혁신에 이르는 죄형법정주의입니다. 그 누구도 법률에 의하지 않는 법률가의 판단 없는 재판 절차 없는 처분은 안 된다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근거하고 있는 근대국가에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정신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따지면 오늘날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도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갑오개혁을 어떻게 보면 형식상으로나마 우리나라가 근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갖추나가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문제는, 선생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군국기무처에 의하면, 한창 이런 조항을 만든 때가 1894년 7월, 8월달 무렵인데, 대부분 농민군 문제는 10월, 11월,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재판 없이 처벌한단 말이에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여기에도 썼지만, 이후 체포되는 동학농민군은 모두 재판을 받고 처벌이 되어 하는데 실제로 즉결처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죠. 분명히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 군국기무처에 의해 이런 원칙을 세웠지만, 일단은 어떤 후속 조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률 제정이라던가 제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하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때

는 이루어지지 않은 과도기였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라는 원칙이 물론 1894년 7월, 8월 무렵에 마련되긴 하였지만 지키지는 않았죠. 당시로서는 국법이라고 하죠. 쉽게 말씀 드리자면 기본적인 때는 어떤 법률들을 많이 썼냐면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때 구 형법 제도를 써요. 그리고 미군정 때도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일제시대 때 버전이라든가 심지어 미군정기 버전도 사용합니다. 이런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구현한 것인데,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대전회통』이 제공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때 조선 정부에 사법체제 운용이 이전의 제도로 따르기로 하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즉결처분 자체는 조선시대 때 과정을 따져봤을 때 과연 불법이냐라고 할 때 좀 따져보자면 유감스럽게도 당연히 조선시대 때는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원리 이런 게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중세시대 조선에서 일어난 즉결처분 역시도 불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홍경래라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정주성 함락 직후에 체포된 성인 남성 1,917명 전원이 다 처형을 당합니다. 대단히 가혹하죠. 어떻게 보면 농민군 체포 후 처형 사례와 매우 유사합니다. 1,917명이라는 정말 대단한 인원들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조선시대 때 법 감정으로 볼 때도 상당히 잔혹하고 가혹하다라고 해서 당시 조정에서도 무리라는 논의들이 빗발쳤고, 일단 신문 기사를 보면 당시 처형의 책임을 맡은 순무중군 유효원을 삭직하라는 청도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효원은 그 이후에 포도대장을 지냈고 죽은 다음에 병조판서까지 지냈지만 아무런 처분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예

와 같은 방식의 가혹한 처분도 불법 취급을 받은 것 같진 않아요. 좀 더 법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제 순무영의 홍경래라는 가담자에 대한 즉결처분이 불법 취급을 당하지 않은 것은 전통적 관념이긴 합니다만, 여기 토론에 부월이라고 썼는데 도끼죠. 임금이 장수에게 내리는 즉결처분해도 좋다 이른바 선참후계라고 하더라도 용서하겠다는 방식의 대권을 물려주는 부월이라는 존재, 이게 상당히 중세적인 관념입니다. 여기 써놔 습니다만 대대적인 통치권력의 절대적 권리를 상징하는 상징물, 그래서 국왕의 명을 받고 지방으로 파견되는 최고 등급의 관리에게 그 방면 일대를 전적으로 제어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을 줍니다. 당시 순무영에는 당연히 부월이 부여돼 있었고 재판 없는 즉결처분도 얼마든지 가능했죠. 어차피 서구식의 죄형법정주의가 도입되지 않은 바에야 조선시대 즉결처분은 별다른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를테면 홍주목사 이승우는 제가 기사를 찾기로 부월을 받은 기사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대전회통』이라던가 아니면 『대명률직해』 이런 것들을 보면 대역죄인들도 반드시 재판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어쨌든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서도 사실은 이인좌의 난이나 홍경래의 난, 동학농민혁명 때까지 보듯이 부월을 받은 장수의 즉결처분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에 대한 즉결처분이 시각에 따라서는 특별히 잔인하였다고보다는 조선시대 사법 문화가 그랬던 것이죠.

다음으로 세 번째는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 1864년도에 최초 12개국에 제네바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나면 포로는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오늘날의 전시국제법의 제1원칙이 확립이 되죠. 이걸 일본은 1886년도에 가입

을 하고 우리나라는 좀 늦죠. 1903년도에 가입을 하는데, 적십자 조약이라고도 하죠. 따라서 일단 조약상으로 보자면 1894년 당시 조선 관군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즉결처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적인 시각에 따르면, 이 제네바협약과 같은 국제 인도법은 심지어 여기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도 따르도록 하는 것이 국제 관습입니다. 이때 무렵이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조선 관군의 행위는 지탄받을 수는 있긴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제네바협약을 체결한 나라였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무리 전투 중에 적에 대한 사살이 있었다 하더라도 포로에 대한 즉결처분은 분명히 제네바협약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하실 부분이 동학농민군이 과연 전쟁 대상, 교전권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민병제도, 국가에서 속하지 않은 어떤 인위적인 군사 집단도 교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군 포로에 대한 즉결처분은 분명히 가혹행위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만 하더라도 제네바협약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반드시 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국제법상으로 완벽하게 정착시켰던 시점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루어진 조선 관군 내지 일본군의 농민군에 대한 즉결처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살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앞부분은 좀 생략하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재판을 거치고 나서 처벌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비단 농민군에게뿐만 아니라 대한제국 시기 내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원칙이죠. 이게 우리

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1899년 「대한국국제」에는 이런 얘기 전혀 나오지 않아요. 갑오개혁 때나, 독립협회들 활동 쪽에서도 많이 요구가 있었는데 이때는 일단 수용하지는 않아요. 물론 헌법 제정 측면에서 마련하긴 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서구적인 관념하에서 인권 존중을 위시로 한 인도적 법 조치라는 사법 문화 정착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연히도 1910년 병합 이후에도 일제하 조선인의 기본적 인권은 대일본제국 헌법 체제하에서도 그 어떤 곳에서도 제대로 보장받지 않은 상황에서 1945년도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1894년 후반기 무렵에 농민군에 대한 즉결처분, 혹은 재판 없는 처분이 과연 이때 당시로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추궁할 만한 일이었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토론문을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김양식

예, 간단한 문제 같은데 유바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왕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표자 왕현종

마찬가지 토론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호 순무영이 일정하게 동학농민군 처벌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지표를 5가지 차원에서 처벌한다라는 방식을 세우고 있었고, 또 그런 과정이 집행이 되다가 해체하면서 12월 27일 날 그 말에 고종이 더 이상은 효수형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걸 보면, 그만큼 이제 효수

형, 참형에 대한 잔인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글썄요, 어떤 차원에서의 잔인함을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집권층에서 일정한 제한을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2~3개월 동안 행해진 그런 방식은 위법하다 혹은 도의적이지 않다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의 전환이 있었을까는 좀 더 살펴봐야 하는데, 그 이후에는 참수형은 없어지고 교수형으로 낮춰진 것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경험이나 2차 봉기의 대단한 진압 과정에서 반성을 하든 어떻건 간에 그런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홍경래 난이나 민란에 대한 처벌을 볼 때는, 민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을 처벌하면서 공중의 의미를 확산시켰는데 그 여파가 사실은 굉장히 크죠. 민란에 참여해서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나도 그렇게 참형을 당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굉장히 크고, 또 농민전쟁 당시에 여러 증언을 보면 실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처벌하는 광경을 보았던, 특히 전라도 무안에서 보면, 자기 할머니가 어렸을 때 소녀 시절에 집단처형 장면을 보고서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밤중에 대나무 숲을 지나면서 그 대나무 죽순에 신발이 벗겨지고 발이 까져서 피투성이가 된 채 돌아왔다는 질문을 1930년~40년대 어린아들한테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공포하지 못 할 정도로 그렇게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던 할머니 사례를 보면, 당시에 집단처형이라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짐작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근대적인 것과 어긋난다는 측면, 혹은 전시니까 용인해야 된다 그런 반대 측면도 있는데, 이 참수형이라는 게 이렇게 많았을까라고 짐작을 못 했어요. 한 20~30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지금 체크한 것은 일률적

으로 한 것이지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보면 200여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물론 이제 홍경래의 난은 좀 예외로 보고 어쨌든 홍경래의 난은 참수를 다 시킨 게 아니죠. 그냥 죽인 거죠.¹ 참수한 정도가 이렇게 많은 것은 그만큼 전근대적인 악형을 간직하고 있는 19세기 말의 조선 사회가 아닌가. 그 사회를 좀 더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본군의 개입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본군이 청일전쟁 시기에 전시 지역에서의 다른 주민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 점을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여순학살 같은 경우가 이 시대에 일어났으니까 그때 어떤 식으로 대응했었는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청일전쟁 시기에 일본군에 한반도하고 중국에서 혹은 대만에서의 학살 문제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지 비교사적인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김양식

이건 해석의 문제이지만 결국 법의 논리로서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한제국 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조재곤 교수님이 발표했었는데, 앞서 도면희 교수님의 분석 방법처럼 조재곤 교수님도 크게 동학농민군 출신, 동학 교

1 당시 평안도 농민전쟁 홍경래란의 처형과정을 기술한 『진중일기(陣中日記)』 1812년(순조 12) 4월 23일 평안병사의 보고에 의하면, 산채로 사로잡은 남녀 2,983명 중에서 여자와 10세 이하 남자를 제외한 1917명을 “모두 효수하여 진영 앞에 머리를 매달아 두었다(並爲梟首陣前)”고 하였으므로 당시에 참혹한 참형에 처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홍경래의 난에 대한 참수형 여부를 발표에서는 잘못 이해하고 대답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각주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 관계자, 기타 등으로 나눠서 다양한 법률 적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로 계신 전경목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자 전경목

네, 저는 동학농민군이나 동학농민전쟁을 전공하는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재곤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비평할 역량이 없습니다.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많이 배워가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말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세 종류의 법부 기안에서 동학농민군의 재판 기록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여 대한제국 법부의 판결이 어떠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동학농민군 출신, 동학교단 관련자, 기타로 나누고, 기타는 기독교 투탁, 영학당 활동, 동학농민군 혐의자·조력자로 상분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맺음말을 대신하여 해당 법률 조항과 판결 양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세 종류의 기안을 전량 조사하여 분류하여 소개하고 분석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세 종류의 법부 기안에 동학농민군 관련 자료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기안들에 동학농민군과 관련하여 어떤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소개하고, 판결할 때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했는지를 대강 알아보고 판결의 양태가 어떤지를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사건의 하나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상세히 소개했다고 판단됩니다. 법부 기안을 상세히 소개한 교수님의 논문을 통하여 동학농민군에 대한 자료 이용의 폭을 크게 확장시키고

다양한 시각에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으니, 이 논문은 학계에 기여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일 교수님이 분석 논문을 작성하기 이전에 기안에 수록된 동학농민군 재판 하나하나 사건 장소, 사건 개요, 판결의 근거, 관련 법전이나 규정, 판결 이후 법 집행의 추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면 교수님이 자료 소개에 기울인 노력을 분석에 치중해서 보다 새로운 시각의 연구 지평을 확장하는 성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와서 이 자료를 유바다 교수님이 번역해서 거의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곧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되면 보다 자세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부 기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 중에 하나는 현재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연구가 부진한 황해도, 함경도, 평안도의 동학농민군 자료들이 기안에 상당히 수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법부 기안을 꼼꼼히 연구하면 이러한 지역의 동학농민군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와 아울러 학계 구성원 모두 이러한 지역의 동학농민군 자료 확보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대한제국이 조선왕조를 뒤이어 세워졌기 때문에 구시대의 폐단과 잘못된 관습을 극복하기 위한 목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와 체제 등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관원 대부분이 조선시대에 선발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혼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징역형과 유배형이 뒤섞여 실시되는 등 혼동스런 면이 있었습니다. 유배형은 징역이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실시되었지만 그 폐단 또

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에는 유배형을 폐지하는 대신 징역형을 살도록 했는데, 지방에서는 물론 중앙에서도 징역형과 유배형을 혼동하여 실시하는 모습을 법무 기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중앙의 법무와 군부 사이에 동학농민군의 재판 및 처형을 둘러싸고 혼동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잘 활용할 경우 동학농민군에 대한 연구가 단지 동학농민군에 머물지 않고 대한제국 국가 제도의 한계 등을 지적하는 연구로 외연을 크게 확대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이와 결부하여 동학농민군의 자료를 이용하여 대한제국 시기의 법의식 등에 대한 연구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예컨대 교수님도 인용하셨지만 고종이 법부를 통해 다음과 같은 훈령을 각 지역에 전달하는데, 고종 스스로 개화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유교의 준비의식과 연결했습니다. 준비와 귀천을 인정하는 것이 곧 개화라는 논리인데, 건강부회도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유교적인 귀천과 법의식에서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한 채 입으로 개혁을 되뇌이면서 새로운 법규를 제정한들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동학농민군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외연을 넓혀 장차 왜 대한제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등에 대한 연구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김양식

기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라던가, 대한제국 사법제도 법의식 연구 필요성을 주는 의견을 대신했기 때문에 특별히 토론할 내용은 없을 것 같아서, 두 번째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배항섭 교수님 토론 들어보겠습니다.

토론자 배항섭

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배항섭입니다. 저는 이 토론문이 이렇게 긴데 실질적인 내용은 짧습니다. 짧게 질문을 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자료를 사실상 조재곤 선생님이 발굴하다시피 해서 많은 새로운 동학농민군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있다는 점에서 매우 수고가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조금 궁금한 점에 대해서, 특히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 선생님이나 저나 동학농민참여자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조 선생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쪽에 나오는 오일상 같은 경우에는 한자명에 '상'자가 다르지만 이미 등록된 오일상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김낙삼 같은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았지만 많이 알려져 있는 그 김낙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김재호 같은 경우에는 「사범품보」에도 김재호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 데, 김재호의 경우에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적어도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좀 불분명합니다. 아까 조 선생님 발표문에서도 몇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같이 나오는 김상흠에 대해서는 “동학 중 범망을 빠져나간 무리”라고 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김재호의 경우에는 그런 점이 불분명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아까도 나왔던 전주부의 김형순이라든가 등등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조금 더 다른 자료들과 교차를 하면서 분

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실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등록된 농민군과 관련된 오류”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조재곤 선생님 발표에서는 전라북도 재판에서도 고문선의 무리인 김준홍 등을 교형으로 결정하였고 김성초 등은 종신으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농민군이라기보다는 복첩 계열의 동학교단 인사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 김준홍, 류덕장, 장한여, 이치옥은 농민군 참여자로 등록되어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평안도와 함경도 동학 관련자들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함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평안도, 함경도에서는 농민군의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원의길, 정기명, 장선탁, 강병업, 박종근, 김영학, 김광찬 이런 사람들이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시기에 동학의 접주로 활동을 했다던가 이런 게 있지만 이것이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활동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활동이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화한 농민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참여자 조사를 하다보면 이런저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신천군 화포영장 한용건의 경우에 보니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참여했다가 나와서 귀화한 농민군들을 몰아붙여서 겁박하고 재물을 견고 이런 행패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봐야 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해도 여자 농민군 문제입니다. 여자 농민군이라고 표현되어 있

는 건 아니구요. 선생님 글에도 보면 “또한 여자 도적 2명을 해주부로 이송하여 각각 그 남편을 엮담하여”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동학농민혁명에서 여성이 직접 참여한 사례는 장흥의 이소사 사례가 유일합니다. 만약에 여자 도적이라는 이 두 명이 농민군이라면 굉장히 획기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여자 도적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이랄까 관련 자료가 확인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 이와 관련되어 추가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작 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귀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체포되더라도 잘 타일러서 석방하라고 하였고, 실제로 그런 법적인 조치를 내리고 하는데. 반면 아까 조 선생님 발표에도 나주봉기 때 한윤화 같은 경우에 동학 주문을 외웠다는 제보만으로 교수형에 처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는 원리가 적용이 된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불균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처벌 기준이 적용이 됐는지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혹은 지금까지의 이해나 인식을 넘어서는 큰 전환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에 아까 왕 선생님도 비교사의 필요성을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비교사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가 매우 편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조금 더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를 만드는 데 실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사적인 접근, 또 그것을 통해서 동학농민혁명을 바라보는 시각이랄

까 이런 것을 어떻게 바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학술회의를 조직해서 같이 좀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좌장 김양식

조재곤 선생님, 아까 전경목 선생님 토론 내용과 같이 결부시켜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표자 조재곤

기안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 보면 검사국 기안은 기본적인 방향 제시에 대한 것이 너무 짧고 형사국 기안은 법률 참관이라든지 조문 적용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검사국과 형사국이 동일한 같이 하는 것 같은. 반대로는 동학농민 역할 분담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것까지 자세히 분석보다는 내용이 좀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징역형, 유배형이 뒤섞여 있는 것이 갑오개혁 당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집행하는 데 참형도 있고 총살형도 있고 그랬습니다. 결국 법률은 교형으로 가야 되는 게 형법의 대세인데, 구법과 신법이 처음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대혼란이 일어난 거죠. 특히 지방관 같은 경우 근대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데, 관찰사가 내려오는 경우는 중앙에 계속 주고받고 하는 내용에서도 해매고 그 과정에서도 군대가 개입해서 즉결 처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형사법이 정착되는 과정의 충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항섭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가능한 이야기만 말씀드린다면, 아까 김재호가 동학농민혁명 참여가 불분명하다고 그러시는데 여기서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여기서 보면 저는 김재호의 사촌이라는 사람이 김상흠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전부 영학당으로 활동합니다. 그러면서 김재호는 영학당 전투에 같이 참여합니다. 고창성 전투를 얘기하는 건데 당시 농민군에 대해서는 굳이 수범 외에 종범들은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자료상 보면, 수범을 적용하는 거고 나머지는 종범들은 하나씩 다운시켜서 법률 적용해요. 그런 과정에서 김재호는 자기 살려고 독립하면서 오히려 농민군을 또 영학당을 또 못살게 굶니다. 하여튼 참여 여부가 불분명한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영학당에서는 애매하지만 참여한 이야기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문선의 종범들을 복접 계열의 동학교단 인사라고 그렇게 판단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고문선이라는 사람 자체가 교단 조직에서 실체가 별로 안 나타나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 사람은 주술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사람을 모아서 설교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고, 수배령이 내려져서 옥사한 사람입니다. 종범들도 대부분 여기 보면 이관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원팔이죠. 이원팔은 홍천인가요? 하여튼 예전에는 어쨌거나 당시 우리가 교단 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농민군으로 일단 보았기 때문에 해석 문제는 다르지만 농민군 51% 이상은 교단에 가입됐죠.

제일 어려운 부분이 평안도, 함경도 문제인데, 현재 농민군으로 공식 집계된 참여자등록사업은 평안도 수치는 2명이고 함경도 수치는 1명입니다. 자세한 자료가 없이 몇몇 자료에서 확정된 것인데 가장 유명한 사

람이 강성탁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자료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고 나옵니다. 굉장히 작위적인 표현으로 뭐는 뭐고 뭇이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제 좀 그럴 가능성이 좀 보이긴 하지만, 저도 정확하게 딱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분석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귀화 농민군에 대해서도 법부자료에서는 동비여당과 갑오년 이후에 동학에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정부는 동비여당이니 그야말로 동학교도인지 분간 안 하고 다 죽입니다. 심하면 잡아 죽이거나 아주 심한 처벌로 기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고종도 그런 것들을 표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동학이나 동비여당이나 그런 자료는 더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자료로는 더 이상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 도적 두 명, 여자 도적 두 명 문제는 자료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배항섭 선생님이 말씀하신 장흥 이조이도 있지만, 최근에 우리가 확정된 여자분 중에서 유명한 유시현의 부인 정선의 최시화의 경우는 남편과 같이 합니다. 이 사람은 또 옥고를 치르고 그래서 기록에 나오거든요. 등록이 안 됐지만 아무개의 부인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하면 나올 부분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벌 수위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지방관의 판단, 지역 사정, 이런 것에 따라서 인식과 처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좌장 김양식

여기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발표 토론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배향섭 교수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앞으로의 큰 동학농민혁명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본 관점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생존한 동학농민군들이 다양하게 분화가 돼 나가거든요. 그래서 동학재건운동한 축이 있지만은 화적으로 변신하는 경우도 있고, 광부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기독교인으로 가기도 하고, 영학당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단선적 연구 가지고는 당시의 대한제국의 시대상이라든가 사회상을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을 통해서 조선왕조라는 체제를 분열시키고 유교 이데올로기를 거의 해체시켜 나갔잖아요. 그러면 기존 체제가 어떻게 균열되고 어떻게 해체됐는가, 그리고 균열되고 해체된 틈으로 어떤 새 시대의 여명이 싹트는가, 이런 문제의식하에 대한제국 시기를 천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학술발표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학술회는 나름 한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지배, 감시, 처벌하려는 자와 그 법에 저항하려는 자가 분명히 상존을 하잖아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근데 오늘은 법을 통해서 감시, 처벌하려는 측면만 조명을 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는 그 법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동학농민군 후손 내지는 생존한 동학농민혁명군 입장에서 이 시기를 다시 한번 더 천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토론한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나머지 반대편, 법에 저항하

는 세력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하여튼 좋은 발표 토론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과 특히 이 더위에도 참석해 주셔서 세 시간 넘게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퇴근 시간도 미루면서 고생하신 재단 직원들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학술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연구소 학술총서 4

총괄 김양식(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기획 이병규(연구조사부장)
편집 오진경(연구조사부)
지원 김미연·정유리·이현제(연구조사부)

재판자료로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

인쇄 2025년 12월 03일
발행 2025년 12월 05일
발행인 신순철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화로 742
누리집 www.1894.or.kr
전화 063-530-9432
전송 063-538-2893
편집인쇄 흐름(www.heureum.com)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5

비매품

ISBN 979-11-990487-7-5 94910

ISBN 979-11-990487-0-6 (세트)

* 발행처의 승인 없이는 본서의 무단복제를 금함